

2025년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사례집

편집자 주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202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30을 5년 남긴 시점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K-SDGs 달성을 위한 실천 사례'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소모임, 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기업 부문에서 총 44개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서면(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한 12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하여 합산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7점, 우수상 4점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시상하고, 우수사례발표회(학습교류회)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례별로 사진은 적절히 배치하고 1)응모사례 2) 발표자료(PPT) 순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응모사례 소개서’는 심사를 받기 위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내용이고, 발표자료(PPT)는 발표심사에 실제 사용한 자료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더 많이 더 널리 국내·외에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행합니다.

심사총평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는 총 44개 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시민·학교·기업·행정이 함께 기록하고 지키는 창원 생물다양성 이야기" 사례가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25년 한 길, 빈곤층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대안은행" 사례와 삼삼은구의 "프로젝트 모아", 전라남도 해남군의 "해남형 SDGs의 정책 실행 화와 군민 생활화" 사례가 최우수상인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상(최우수상)은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1만 8천 건의 기록이 여는 지속가능발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천 SDGs 교육 네트워크(RCE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추진)", 경상남도 김해시의 "20년의 동행, '람사르습지도시 김해' 지속 가능 여정", 국립청도숲체원의 "특수교육 숲케어 지원 프로젝트 '포용의 숲'"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 실천 사례 - '한(欄)끼의 품격'과 '홈 스위트홈'을 중심으로",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행정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 유천케어팜 유한회사의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방 시범사업",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의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강원, 세계시민교육의 불을 켜다" 등 4개 사례가 우수상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2019년 거제 대회부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확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소모임, 단체, 기업, 지자체 등이 부문별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전환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선 발표심사에 오른 12개 사례는 소모임 1개, 지자체 2개, 기업 3개, 단체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응모한 전체 44개 사례의 비율과 유사합니다. 대상은 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한 최고 점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창원의 지난 5년간 생물다양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탄탄한 짜임새를 갖추었고, 해를 거듭하며 참여 기관·단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하는 생생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우수상(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한 "프로젝트 모아"의 삼삼은구는 본선에 오른 유일한 소모임 부문이었지만, 대상과 경합을 벌일 만큼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한 기획력, 실천력, 파급력 등에서 개인 또는 소모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 해남군과 경상남도 김해시가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최우수상에 선정된 것은 예년의 단순한 민관협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군민·시민을 단순한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중심에 군민·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행정이 뒷받침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청도숲체원, 유천케어팜 유한회사,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 등 3개의 기업 부문이 본선에 오른 것도 이번 공모전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핵심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제27회를 맞는 2025년에 국회의장상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환경부장관상을 최우수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부활하여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위원장 권상동

Contents

| | |
|--|----|
| 심사총평 | 04 |
| 대상 (국회의장상) | |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6 |
| - 시민·학교·기업·행정이 함께 기록하고 지키는 창원 생물다양성 이야기 | |
| 최우수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 |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28 |
| - 25년 한 길, 빈곤층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안은행 | |
| [삼삼은구] | 44 |
| - 프로젝트 모아 | |
| [전라남도 해남군] | 54 |
| - 해남형 SDGs의 정책 실행화와 군민 생활화 | |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 | |
|---|-----|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70 |
| -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1만 8천 건의 기록이 여는 지속가능발전 | |
|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84 |
|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천 교육네트워크 (SDGs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RCE 추진) | |
| [경상남도 김해시] | 98 |
| - 20년의 동행, '람사르습지도시 김해' 지속 가능 여정 | |
| [국립청도숲체원] | 112 |
| - 특수교육 숲케어 지원 프로젝트, "포용의 숲" | |
| 우수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 |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126 |
|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 실천 '한(欄) 끼의 품격'과 '홈 스위트홈'을 중심으로 | |
|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142 |
| - 의회·행정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 | |
| [유천케어팜 유한회사] | 158 |
| -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방 시범사업 | |
|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 | 172 |
| -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강원, 세계시민교육의 불을 켜다 | |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계획

I. 공모전 개요

1. 개요

-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지자체, 기업, 시민 등 지역 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 혹은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
-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에서는 환경보전과 사회통합,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실천 사례를 우선하여 발굴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채택, 2018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이후, 17개 목표 연계를 통해 지역-국가-지구의 SDGs 달성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 본 공모전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공모전 명칭을 2009년부터 '지속가능발전대상'으로, 2023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으로 변경하여 시행

2. 사업목표

- 지속가능발전 우수 실천 사례 발굴과 확산
 -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SDGs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실천 사례, 파트너십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 발굴
 - 지자체,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
 - SDGs 이행을 위한 지역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우수사업 발굴, 확산

-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를 개인(소모임), 기업, 단체 부문별로 구분하여 심사 및 시상

-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활동 상호공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확산과 지역 거버넌스 추진체계 활성화 계기 마련

3. 추진일정

| 일정 | 절 차 | 내 용 |
|-----------|--------------|---|
| 7.28 | 공모전 공고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SNS(페이스북 등) 채널 홍보 |
| 7.28~8.26 | 공모전공지 및 사례접수 | 공지 및 사례접수 : 공문, 이메일, 온라인홍보 등 |
| | ↓ | |
| 8.29~9.2 | 서면 심사 | 제출서류의 완성도 및 관련 사항 심사 발표 심사 대상 개별 통지 |
| | ↓ | |
| 9.9 | 발표심사 및 최종 심사 | 발표+질의응답(사례별 15분) 심사 최종심사에서 시상 대상별 훈격 선정 |
| | * 9.10~15 | (장관상 등 공적조서 작성 제출) |
| 11.5 | 시상식 |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에서 시상 및 사례 발표(예정) |
| | ↓ | |
| 11월 | 우수사례집 발간 | 우수사례집 편집, 인쇄 |
| | ↓ | |
| 12월 | 우수사례집 배포 | 온-오프라인 배포 및 홈페이지 탑재 |

II. 공모절차 및 일정

1. 응모 공고

○ 응모분야

| 분야 | 사례 내용 |
|--------------------------------|---|
| 소모임 부문 (2인 이상 동아리 등) |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 시민 실천 사례 - 대상 : 2인 이상의 동아리, 소모임 등 - K-SDGs(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실천 활동 사례 |
| 단체 부문 (단체등록증 있는 경우)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통한 실천 사례 - 대상 : 비영리 단체·법인, 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 SDGs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례 -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간의 파트너십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의제를 수립하고 실천한 사례 - 다양한 협력과 협업(시민단체, 행정, 기업, 대학 등) |
| 기업 부문 (사업자등록증 있는 경우) |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모든 협력 사례 - 대상 :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 지속가능경영(ESG, CSR), 사회적 가치(SV) 실천 사례 - 파트너십을 통한 K-SDGs 달성 노력 사례 |

- **응모대상** : SDGs 달성을 위해 실천하는 소모임, 단체, 기업
- **심사대상 기간** : 사례 제출일까지 진행되었거나,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례
- **응모제한** :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최근 5년(2020년~2024년) 최우수상(장관상) 이상 수상 사례는 제출 불가(* 동일 기관 다른 사례는 가능)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약 4주
- **접수 사례에 대한 부적격 처리**
 - 기일 내에 접수되지 않았거나 사례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공모사업 목적 및 타당성, 사실성이 현저히 부적격한 경우

○ 응모방법

- 공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메일로 접수 (전화로 접수 여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서식) 1부 (*분야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
- 응모사례 소개서 1부
- 공모전 참가에 대한 동의서 1부

| 분야 | 신청서 |
|-------|---------|
| 소모임부문 | 서식 1 작성 |
| 단체부문 | |
| 기업부문 | |

○ 작성 방법

-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한글 문서로 작성(별첨 참조)
- 한글 문서는 배포용 파일이 아닌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
- 사례소개서는 최대 8쪽 이내로 작성(소모임 부문은 5쪽 이내 작성)
- 파일 크기는 최대 15MB(사진 첨부 시 파일 용량 축소하여 첨부)
- 발표심사는 사례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므로, 사례발표 시 사용할 PPT 및 동영상 등은 사전에 준비

○ 접수 결과 공개

- 접수가 마감되면 응모자/응모 기관, 사례명을 전국지속협 홈페이지에 공개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메일 (sdkoreaorg@hanmail.net)
- 문의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국 (042-223-1141)

2. 평가방법

- 적격 여부 확인 - 1차 서면 심사(20점) - 2차 발표 심사(80점)
- K-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사례 중심으로 소모임, 단체, 기업으로 구분하여 진행
- 발표 심사에 불응한 사례는 0점 처리

3. 심사절차



○ 서면 심사

- 접수 완료된 사례를 모은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심사자료집」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메일발송
- 제출 서류의 완성도 및 관련 사항 심사 및 10개 이내 발표 예정 사례 선별
- 서면심사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배점(20점 만점)

○ 발표 심사

- 발표 대상별 15분 발표(질의응답 포함) : 예) 10분 발표 + 5분 질의응답
- 사례별 심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합산점으로 순위 결정
- 심사위원 중 발표사례 이해관계자 있을 시, 심사에서 제외
- 응모 사례 발표 및 심사위원이 사례에 대한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작성한 심사기준표를 취합, 모든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심사

○ 최종 심사

- 심사방법 : 모든 결과를 토대로 종합 토론·심사하여 시상 대상(훈격) 결정

- 최종결과 :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이내), 총 10점(이내) 선정

* 최우수상과 우수상 개수(점수)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III. 평가지표 및 심사표

○ 사례접수 및 서면 심사 기준

- 공모사례 목적 및 타당성, 사실성에 기준하여 작성
- 사례 내용 허위 작성 시 부적격 처리

○ 서면 심사

- 적격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대상을 선별
- 서면심사 기준은 발표심사 기준 참조

| | 적격 여부 판단 기준 | 여부 (O,X) |
|---|---------------------------------|----------|
| 1 | 제출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하였는가? | |
| 2 | 접수서류의 각 항목의 내용이 파악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 |
| 3 |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례인가? | |
| 4 | 제출된 자료가 타당성에 입각하여 사실을 기록한 것인가? | |

* 위 판단기준은 심사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발표 심사

- 사례별 발표자 외 보조자 1명 입장 가능하고, 발표+질의응답 15분임

| | 단체 부문 심사 기준 | |
|---|-------------|-----|
| 1 | 지속가능성 | 15점 |
| 2 | 파트너십, 역량강화 | 30점 |

| | | |
|---|-------------------------|-----|
| 3 | 지역사회 이슈 쟁점 분석 | 10점 |
| 4 | 이행평가 행동계획예산 이행과정 모니터링 등 | 15점 |
| 5 | 성과 및 파급효과 | 10점 |
| | | 80점 |

| 기업 부문 심사 기준 | | |
|-------------|---------------|-----|
| 1 | 기업의 비전 | 15점 |
| 2 | 파트너십, 역량강화 | 30점 |
| 3 | 지역사회 이슈 쟁점 분석 | 10점 |
| 4 |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 | 10점 |
| 5 | 성과 및 파급효과 | 15점 |
| | | 80점 |

| 소모임 부문 심사 기준 | | |
|--------------|---------------|-----|
| 1 | K-SDGs 실천 | 15점 |
| 2 | 파트너십, 역량강화 | 30점 |
| 3 | 지역사회 이슈 쟁점 분석 | 10점 |
| 4 |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 | 10점 |
| 5 | 성과 및 파급효과 | 15점 |
| | | 80점 |

○ 최종 심사

- 발표심사 결과(순위)에 따라 시상 훈격을 결정함

IV. 시상식 및 우수사례집 발간

1.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진행방향

- 선정된 우수사례의 시상식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중에 시행하여 우수사례 발굴을 알리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
-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시 사례 제출 지역 관계자 및 시상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발표 시 발표자에게 소정의 발표비 별도 지급)

○ 개요

- 일 시 : 2025. 11. 5(수)
- 장 소 :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대회장(경기도 화성시)
- 참석인원 :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지속가능발전추진기구 관계자 등 1,000여명
- 주요내용 : 개회, 인사말, 축하, 추진경과보고, 시상, 기념촬영 등
- 시상 및 훈격

| 구분 |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
| 시상 수 | 1점 | 3점 ~ 5점 | 4점 ~ 6점 이내 |
| 훈격 (예정) | 국회의장상(1점) / 장관상(3~5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상(4~6점) | | |

2. 우수사례 국내·외 홍보 및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 선정된 우수사례는 국내·외 적극 홍보 및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
- 선정된 우수사례와 실천 활동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
- 중앙정부 「지속가능발전포털」 및 언론사(신문, 잡지 등)를 통한 홍보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한 홍보
- * 발표심사 시 발표자는 우수사례집 스토리 작성(원고료 별도 지급)

대상

[국회의장상]

단체

01

시민 · 학교 · 기업 · 행정
함께 기록하고 지키는
창원 생물다양성 이야기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학교·기업·행정이 함께 기록하고 지키는 창원 생물다양성이야기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0년, 도심 한복판 람사르생태공원에서 작은 생명이 발견되었다. 인공습지의 얇은 물가에 알을 가득 품은 두꺼비 산란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도심 복판에 두꺼비라니! 그러나 반가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원 내 인공수로 구조물로 인해 수많은 아기 두꺼비가 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다. 개발과 기후위기로 도심 생태계가 흔들리는 현실이 한눈에 보였다. 이 작은 발견은, 창원 시민들에게 도시 생물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때 시민들과 함께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시,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민이 직접 도시 생태를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논의는 곧 민·관·산·학 실무협의회로 확장되었고, 여러 기관과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모든 의사결정은 공개적이고 격월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기관은 역할과 책임을 공유했다.

이듬해, 생물다양성 시민생물조사단이 발족했다. 시민, 학생, 직장인, 가족, 어르신, 은퇴자까지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 조사단은 네이처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 데이터를 기록하고, 종 동정은 전문가 자문 아래 검증되었다. SOS 양서류 구조대를 운영하고, 반딧불이를 관찰하며, 도시 하천의 물고기와 조류를 조사하는 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시민 스스로 도시 자연을 이해하는 교육이자 경험이 되었다.

조사단 활동은 매년 확대되었다. 두꺼비 산란지 보호, 양서류 생태사다리 설치, 도시 조류 탐조,

회귀어종 모니터링, 하천 정화 캠페인까지—활동은 세대와 지역을 넘나들며 확산되었다. BNK경남은행, 해성디에스, 현대위아, 무학, 덴소코리아,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등 지역 기업들도 ESG 활동으로 참여했고, 어린이집·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은 세대 간 생태 지식이 전승되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 결과, 시민이 기록한 생태 데이터는 2024년 기준 93개 팀 799명 참여, 2,070종 7,177회 기록으로 축적되었다. 이 데이터는 창원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반영되었고, 시민조사단의 자료는 창원시의 생태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취약종 관찰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클레이한국사무소는 이 사례를 국제적으로 소개했고, 2024년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협약을 맺으며 민간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도시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기록한 시민들은 스스로 도시 생태계의 지킴이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반딧불이를 본 후 “빛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들, 기업의 직원들이 함께 하천 정화에 참여하며 “이 활동이 회사의 ESG를 넘어 지역을 위한 일”이라 말하는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었다.

창원의 생물다양성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다. 이는 시민·학교·기업·행정이 함께 만든 지역 기반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모델이자,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형 시민참여의 성공 사례이다. 앞으로도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시민주도형 생태 보전 활동을 지속하며, 도시 생태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01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학교·기업·행정이 함께 기록하고 지키는 창원 생물다양성이야기

2020년 ~ 현재 (2025년까지)

요약

본 사업은 도심 속 하천과 습지, 공원을 시민이 직접 관찰·기록하고 전문가·기업·행정이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020년 람사르생태공원 두꺼비 산란지 발견을 계기로 시작된 이 활동은 은어, 연어, 수달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보전과 로드킬 방지, 생태사다리 설치 등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는 네이처링과 도시생태 현황지도에 반영되어 지역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된 민관산학 협력 모델로 확산되었다. 2024년까지 누적 6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여 탐사대회, 반딧불이 모니터링, 야생동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 우리동네하천생태체험교육(22년)



펼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 생태공원 내 두꺼비 이소 활동(20년)

목적/배경

-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창원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은 2020년 도심공원인 람사르생태공원에서 두꺼비 산란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두꺼비는 기후위기와 도시 개발로 인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양서류로, 공원의 인공구조물(수로)로 인해 부화한 아기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시민과 전문가, 행정,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형 보전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시민생물조사단 발대식(21년)

이에 민관거버넌스기구인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창원시, 관내 기업, 학계, 시민활동가들이 함께 창원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시민들이 도심 속 생태를 직접 생물종을 관찰·기록하는 시민생물조사단을 조직하였다. 시민들은 전문가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생태조사에 참여하며, 조사 결과는 네이처링과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반영되어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하천정화, 멸종위기종 보호, 생태사다리 설치 등 다양한 실천활동으로 확산되었다.

즉, 본 활동의 목적은 도시 생물다양성을 시민의 손으로 기록하고 지키며, 정책과 생활 속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내용

- 1) 추진과정

본 사업은 2020년 람사르생태공원에서 발견된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참여 활동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두꺼비의 이동 과정에서 반복되는 로드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행정의 협력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창원 도심속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창원천과 남천을 대상으로 한 어류조사를 통해 은어, 연어, 수달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 현황이 확인되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부터 '시민생물조사단'이 발족되어 정기적인 조사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매년 활동 범위와 참여 인원이 확대되어 현재는 하천, 습지, 공원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아우르는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은 출발 단계로서, 4월 두꺼비 산란지 발견 및 1차 보호활동(이동 통로 설치, 팻말·안내 인력 배치)을 시작으로 9~10월 창원천·남천 어류조사(은어·연어 등 확인)등을 진행하였다. 그해 12월에는 창원시, 창원대학교 링크사업단, 창원YMCA, 경남양서류네트워크, BNK경남은행, 해성디에스 등이 참여하여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민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2021년 부터 격월로 민관산학 실무협의회를 출범하여 규약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활동을 추진하였다. 2024년 말 기준 총 23차의 실무협의회가 운영 되고있다. 3월에는 시민생물조사단을 발족하여 창원천과 남천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시작, 연말까지 총 19차례의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ESG경영 성과가 알려지면서 무학(주), 덴소코리아, 현대위아(주)가 추가 협약을 맺고 참여하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1회 생물다양성탐사대회(23년)

2022년은 활동 확산의 해로, 3월~11월 창원천·남천 전문가 어류 생태 조사와 '우리 동네 하천생태교육'을 3차례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도심하천 생태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민 생태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단은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12월에는 약 100명의



▲ 제1회 생물다양성탐사대회(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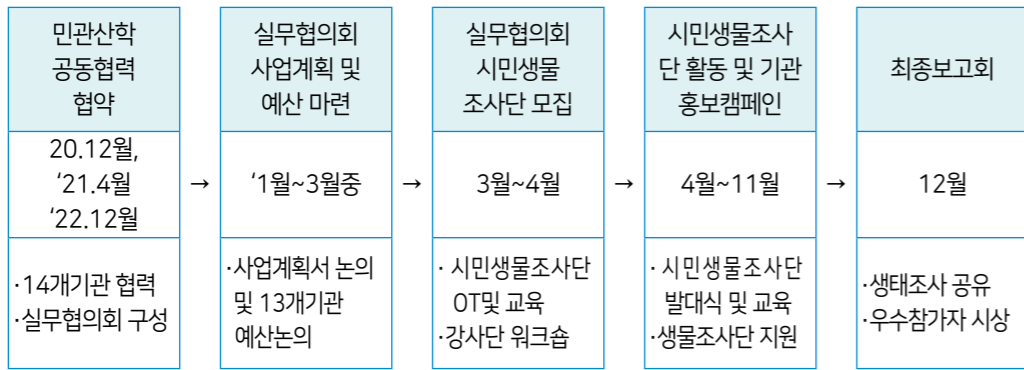
시민조사단이 참여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23년은 시민참여 심화의 해였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조사단 22팀, 약 160명이 활동을 펼쳤으며, 제1회 창원시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를 개최해 5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였다. 또한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반딧불이 조사를 실시하고 '반딧불정대'를 발족하여 체계적 보호와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창원생물다양성인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시민조사단의 활동 성과를 알렸다.

2024년에는 총 25개팀, 203명의 시민·기업생물조사단이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창원시와 기업의 협력으로 도시생태공원 수로에 양서류 생태사다리를 설치하여 두꺼비 이동을 지원하였고, 귀제비 생태조사, 도심 야생동물 교육, 수달 흔적 찾기, 어류 조사기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생태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주남저수지에서 탐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조사단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생태행사로 발전시켰다.

2) 추진방법

활동은 민관산학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행정, 기업, 시민단체, 학계가 함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시민조사단 운영을 총괄한다. 조사단은 매년 모집·교육 과정을 거쳐 편성되며, 생물 모니터링 기법, 네이처링 활용법, 생태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은 뒤 현장 조사에 참여한다. 조사 결과는 시민들과 공유될 뿐 아니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정기 조사와 함께 포럼, 탐사대회, 활동보고회 등을 통해 성과를 환류하고 있다.



3) 주요 특징

첫째, 기업 참여 확대이다. 현대위아, 무학, 해성디에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덴소코리아 등 지역 기업들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여 생물종 조사, 하천 정화,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둘째, 시민 다양성 확보이다. 학생, 가족 단위의 참여를 장려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태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지속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교육 병행이다. 양서류, 어류, 조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방법을 지도하고, 강연·특강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지식을 심화시킨다.



▲ 활동보고회(23년)

넷째, 체험과 조사 병행이다. 단순 기록 활동을 넘어, 반딧불이 조사와 체험교육, 양서류 생태사다리 설치, 귀제비 모니터링 등 체험형 교육을 접목하여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였다.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을 총괄하며, 경남환경재단과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담당 한다. 경남양서류네트워크와 YMCA는 시민참여와 활동 지원을 맡고, BNK경남은행, 해성디에스, 현대위아, 무학, 현대로템, 덴소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등은 기업 ESG 경영 활동과 연계해 후원과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학교·기업·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목표 13(기후행동) : 기후위기로 서식지가 위협받는 양서류·수달·어류 등을 보호하는 시민참여형 조사와 로드킬 예방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모델을 실천.
- 목표 14(수생태계 보전) : 창원천·남천·내동천 등 도심 하천에서 어류·반딧불이·수달 조사 및 생태사다리 설치, 수질개선 캠페인 등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
- 목표 15(육상생태계 보전) : 람사르생태공원 두꺼비 보호, 도시 조류 모니터링, 도심속 야생동물 탐사 등 육상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 강화.
- 목표 17(파트너십) : 행정(창원시), 학계(창원대), 기업(현대위아·무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시민단체(YMCA·양서류네트워크)와 협력해 민관산학 거버넌스 모델 구축.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21년 71명의 시민생물조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200명 이상의 시민생물조사단이 모집 되어 활동진행중에 있음. 이들의 활동은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네이처링과 도시생태 현황지도에 축적되고 있음. 이클레이한국사무소에서 창원시 생물다양성민관산학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수사례로 전세계에 소개하기도 함.
- 또한 교육·캠페인·정책 제안까지 연결되고, 참여자 만족도와 재참여율이 높아 지역사회 내 인식 변화를 견인함.
- 단, 시민참여 데이터의 정밀성과 표준화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검증 체계가 필요함.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2020년 두꺼비 보호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규모와 범위를 넓혀왔으며, 2021년 경남은행과 해성디에스 2기업의 참여를 시작으로 매해 새로운 기업의 가입과 활동이 이어짐.
올 7월에도 효성중공업(주)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신규로 협약을 맺고 도시생태보전에 함께 하고 있으며 시민·기업·학계·행정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가 정착됨.
- 조사 결과 및 격월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 협력실무단 회의를 기반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창원시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 생물이 공존하는 풀베기, 양서류 이동통로 구축 등)
- 시민 강사단 양성, 청소년·가족단위의 지속적 참여와 확대를 통해 세대 간 전승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있음.



최우수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단체

02

25년 한길,
빈곤층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안은행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25년 한 길, 빈곤층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안은행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 2000년,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무담보 대출사업) 도입 및 25년 간 지속 운영

신나는조합은 2000년 마이크로크레딧 도입 이후 25년 간 끊임없이 시중 은행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영세소상공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탈북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적금융 융자사업 및 비금융지원사업 등 약 1,150억원을 지원했고, 이 중 융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35,564백만원(541건),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창업자금 27,750백만원(1,373건), 생계자금 등 개인용자 1,763백만원(540건) 등 651억원을 제공했습니다.

○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 통합 지원으로 취약계층 자립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빈곤층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경제기업은 단순 대출로는 실질적 자립이 어려우므로, 대출과 함께 비금융지원인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여 자립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빈곤층에게는 재무 컨설팅, 채무 조정 상담, 취업 연계 지원 등,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컨설팅, 창업 업종 기술교육 지원, 입지 선정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 판로지원, 투자기금 연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하여 지원했습니다.

○ K-SDGs 목표 1번.'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

고금리 시대에 다중 채무, 2금융권 이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로 가계 부담을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카드사, 저축은행 등) 이자 평균 약 15%로 보면 신나는조합 개인용자 이자(0~3%)이므로 최소 12%의 이자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나는조합이 운영 중인'연금보험료 대출지원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연금 수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납부할 보험료를 대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자금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K-SDGs 목표 8번.'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여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중 은행권 융자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자본조달을 통한 기업 규모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여 사업이 원활한 기업도 부담이 되며, 일시적 현금흐름의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아 시중은행 금융거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신나는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로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대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기관, 신나는조합

신나는조합이 실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출자(기업)과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관계 금융, 연체 발생 시 연체사유 파악,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상환 유예, 상환 조정 등 조치를 통해 신용불량자, 기업 파산 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하는 인내금융입니다.

앞으로도 빈곤층 자립,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2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25년 한 길, 빈곤층 자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안은행

2000년 6월 9일 ~ 2025년 8월 현재까지 (25년 2개월)

요약

- (목적) 한국 최초 빈곤층 등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실행으로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배경) ① 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금융 접근성 취약하여 자립 기회 잡기 어려움, ②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요인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직면하여 성장 둔화
- (추진내용)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무담보·무보증, 저금리 대출) 실행, 공공·민간 등 다양한 기금확보로 빈곤층 공동체 창업 지원,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자금 지원 수행
- (사업성과) ① 마이크로파이낸스 총 651억원(2,454건) 공급으로 빈곤층 등 금융 접근성 대폭 개선

▼ 2000.6월 신나는조합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 1999.6월 'Grain International Dialogue Program' 참여



- ② 무이자·저금리 대출로 금융 부담 완화(약 12% 금리 감소),
- ③ 창업, 체납보험료 납부로 소득 증대,
- ③ 사회적경제기업 기업 생존율 향상(5년 이상 생존율 95%로 일반기업 평균보다 61.2% 높음)
- (지속가능성) ① 최근 4년 193억원 대출, 대출총액의 29.6%로 규모 확대,
- ② 새정부 123대 과제에 반영
- ③ 창업, 체납

목적 및 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심사기준3. 지역사회 이슈/쟁점분석**

가. 목적

- (시작) 2000년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설립하여 일반금융권 접근성이 낮은 빈곤층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무보증·무담보 소액대출 사업 실시하고자 함

<실천행동의 목적 체계도>

| | | |
|-------------|---|---|
| K-SDGs 달성기여 | <과제1> 빈곤층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과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
| 신나는 조합 | 비전 | - 마이크로파이낸스 통해 포용·상생 금융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 |
| | 미션 | - 빈곤층 및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와 자립·성장 지원 |
| | 정관 (제1조 설립목적) 명시 | -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나. 추진배경

- 1990년대, 빈곤층 자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 필요
 - 1990년대 외환위기로 기업 파산, 은행의 붕괴와 실업자 양산, 빈곤 심화 등 사회문제 대두
 - 빈곤층이 생계를 위해서 영세 소규모 창업을 하려해도 보증이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웠고, 당시 이를 해결할 특별한 대안이 없었음
- 2000년, 빈곤 극복을 위한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무담보 용자사업) 시작
 - 1999년, 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자활 대안으로 '공동체 창업' 모델 도출
 - 그라민은행1) 'Gramin International Dialogue Program'에 참여, 이를 계기로 '그라민은행 한국지부'로 지정되어 창업자금(5만달러) 마련, 한국 최초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개시(2000년 6월)
- 2010년대, 금융 접근성 취약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위한 사회적금융 필요성 대두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양적 성장했으나, 사회적금융* 발달 미흡하여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 겪음
 - * 캐나다 퀘벡주(RISQ, 피두시, 데자르딩신편),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노동인민금고) 등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심사기준3. 지역사회 이슈/쟁점분석**

▣ 가. (빈곤층) 일반 금융권 진입의 어려움 해결로 금융 접근성 개선

- (다중 채무 부담) 빈곤층은 저신용자로 다중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1금융권,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부업, 카드론, 불법사금융 등 최대 법정 최고 이자를 넘는 대출도 이용함
- (불법 사금융 피해 심각) 연이율 5천% 요구하는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인한 피해 증가* 및 불법 추심으로 생존 위협에 직면하는 등 사회안전망 부재
 - * 2021년 9천여 건 → 2023년 1만2천여 건으로 증가

▶▶ 의식주 비용, 학비, 의료비 등 해결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로 금융 안전망 구축

▣ 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 (저소득, 저신용자 창업자금 마련 어려움)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자립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을 결심하고도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워 빈곤의 순환고리를 끊지 못함
 - * 수급자는 자활기업 창업 기회 등 주어지나 정부 지원 사각지대 계층은 소자본 창업도 어려움
-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융통 어려움) 고금리, 원가상승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고 폐업* 수도 증가하나,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한 운영자금, 사업장 개선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거의 없음
 - * 경기침체에 소상공인 2025년 1분기 매출 13% ↓, 폐업 사업장 50만곳 육박(조선비즈)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창업자금 지원으로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

▣ 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일반금융권 자금 융통 한계 개선 및 성장가능성 제고

- (일반금융권 접근성 낮음)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으로 일반적인 투자시장에서 투자를 받기 어렵고, 일반 금융권 용자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자본조달을 통한 기업 규모화에 한계가 있음
 - (시중은행 고금리 부담)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여 사업이 원활한 기업도 부담이 되며, 일시적 현금흐름의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아 시중은행 금융거래에 한계가 있음
 - * (사례) A기업은 공장 신축으로 시중은행 대출, 상환불이행 없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을 이유로 월 단위 대출 계약으로 전환 및 이자 상향 조정하여 경영 어려움 직면(신나는조합 대출기업)
- ▶▶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로 사회적경제기업 재무건전성 확보 및 성장 촉진

내용

1) 추진과정 **심사기준2. 파트너십 / 역량강화** **심사기준4. 행동계획**

<1~3기 단계별 혁신적 추진 과정>

| 1기 (2000~2010) 도입단계 | 2기 (2011~2020) 확장단계 | 3기 (2021~2030) 혁신단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시스템 구축 * 무보증무담보 용자+공동체 창업 지원 • '두레일꾼' 양성 및 전국 조직화 • 민간 모델 → 정부제도 도입 기여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크레딧 대상 확대 : 빈곤층 → 빈곤층 + 사회적경제기업 • 퇴직시니어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원 전문성 강화 •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전국 16개소)에 노하우 전수 및 사업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등장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 개발 * 플랫폼노동자(라이더) 용자 등 • 사회적가치* 측정 강화하여 대출 상환 방식에 반영 * ESG 실현정도, SVI 등 측정 |

▣ 가. 1기 : 빈곤층 공동체 창업 기반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시스템'을 만들다

- 그라민은행과의 국제 협력 추진으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17 원칙'* 수립
 - * 공동 관리감독, 민주적인 토의, 재정 공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칙 등
- 공동체 창업 구성원을 '두레일꾼(지역 리더)'로 양성하여 능동적 창업 촉진

1) 방글라데시에서 경제학교수였던 유누스 박사는 빈곤층에게 "무보증 무담보" 대출(마이크로크레딧) 하기 시작하였고(1976년) 이후 "그라민은행"을 설립함(1983년). 유누스 박사는 이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

- 성공적 창업을 위해 1) 교육 : 신나는조합 사무국, 2)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연계,

3) 공동체 운영: 지역 내 창업자 중 '두레일꾼' 지정하여 정서적 지지자로 역할을 함

- 다양한 민간·공공 영역과의 협력으로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확보
- (민간) 기업(한국시티은행, 한국일보, 삼성, KT, 국민은행 등) 후원 등 순수 민간자금 확보
- (공공)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2005~2008년) 위탁 운영, '희망키움뱅크(2009년)' 중 약 28억원 규모 사업 수행 및 사업개발* 지원

* 희망키움뱅크 민간수행기관(22개소)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실무자 교육 위탁 수행

- '전국마이크로파이낸스협의회' 설립(2009) 및 운영
- 한국 최초 협의회 설립 및 공동대표 역할 수행하며 마이크로파이낸스 정책 제안 선도함

■ 나. 2기 : 빈곤층 포함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출 확장 및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다

- 자활공동체를 정책적으로 확대한 형태인 '사회적기업' 대출 사업 시작(2013)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자금 공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서민금융진흥원, 서울시 등 정책자금 확보)

-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시니어 발굴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인력으로 양성 및 일자리 제공
- 퇴직시니어를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인력으로 교육훈련하여 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 * 창업자금 대출 심사, 대출 후 상환관리 등 현직 경력 활용 및 노하우 발휘

- 전국 대규모 사업 수행 위해 광역 단위 협력기관(전국 15개소) 발굴 및 협업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사업 규모화로 광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과 협약을 맺고, 신나는조합의 사업 노하우 전수, 심사 역할 수행하여 비수도권 자금 공급이 원활해짐

■ 다. 3기 : 급변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구현하다

-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개발 및 보급
- (새로운 대상 발굴) 불안정적 소득이 발생하는 플랫폼노동자 배달라이더, 국민연금 개시가 어려운 빈곤층 대상 긴급자금 용자사업 실시
- (혁신적 상환방식) 성실 상환자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ESG 실현 등 사회적가치를 달성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납부 이자 100%를 반납하는 인센티브 실시
- (지속적 내부역량강화) 사업 변화에 맞춰 내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지원했으며, 특히 3기에는 역량강화 내부 지원제도* 강화로 사업 품질 향상 및 대외 만족도 향상
- * 자체 해외 선진지 연수 실시, 상급학교 진학 시 주 1일 유급휴가, 자기계발휴가 지원 등

2) 추진방법 심사기준4. 행동계획 심사기준 4. 이행평가

■ 가. (다양한 신규 대출사업 개발) 사회변화에 따른 대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동일 대출사업 유지가 아닌 신규 대출 프로그램 개발, 자금 확보, 실행 과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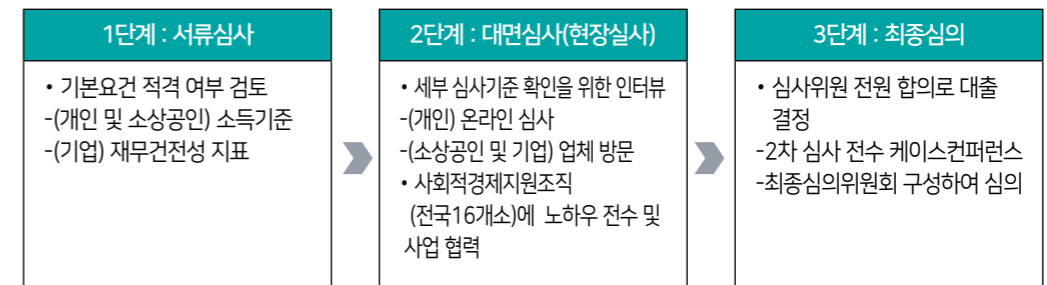
| 사업명 | 주요사업내용(현재운영중) |
|-------------------|---|
| 인천 ESG 상생기금 용자 | -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무이자 |
| 희망드든 연금보험료지원사업 | - 전국 저소득 연금 체납액 대납 지원, 무이자 |
|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용자 | - 영세소상공인 대상 소액대출 지원, 무이자 |
| 사회가치창출기업 용자 |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이자 1% (사회가치창출 KPI 달성 시 이자 100% 페이백) |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 | - 서울시 영세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용자 지원, 이자 1.8% |
| 배달라이더 생계자금 용자 | - 전국 배달라이더 생계자금 용자 전국, 이자 2% (성실상환 시 이자 100% 페이백) |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용자 |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8~3.6% |
|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용자 | - 성동구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이자 3% |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이자 최대 4.5%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기관) 종사자, 대표자, 조합원 대상, 이자 3% |

※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용자 사업만 초기 모델이며, 나머지 모두 신규 개발 사업임

■ 나. (단계별 대출심사 시스템 구축) 무담보·무보증 대출이므로 이에 맞는 전문적 심사 실시

- 제출서류로 정량심사만 하는 일반금융권과 달리 100% 대면심사로 '대출자' 면밀한 평가 단계별

<단계별 심사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별 심사기준 매뉴얼화하여 체계적 사업 수행

| 구분 | 빈곤층 생계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자금 |
|------|-------------------------------|------------------|-----------------|
| 정량지표 | -현금유동성, 부채규모 등 | -업종전문성, 소득규모 등 | -부채비율, 당기순이익률 등 |
| 정성지표 | -사용용도 타당성,대출시급성, 소비패턴, 상환의지 등 | -계획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성, 대출효과성 등 |

▣ 다. (이행과정별 관리) 매월 정기적 모니터링 및 사업 종료 후 사업별 성과측정 실행

- (체계적 관리) 사업 수행 시 Plan-Do-Check-Act 과정에 따라 체계적 사업 수행
- (모니터링) 매월 모니터링(현장방문, 유선)하여 추가 자원연계, 애로사항 파악 등 실시
- (성과 측정) 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 만족도조사, 대출 성과 측정하여 사업개선에 반영
- 필요 시 사업 성과에 대한 연구 실시, 보고서 제작하여 사업 성과 확산

▣ 라. (철저한 사례관리) 대출 현장실사 건수 100% 케이스컨퍼런스로 대출 평가 역량 강화

- 현장실사 담당자별 평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체 실사자 참여하는 현장실사 케이스컨퍼런스로 대출 평가 수준을 표준화하고 구성원 역량 강화 도모

3) 주요 특징 **심사기준2. 파트너십/역량강화** **심사기준4. 행동계획**

▣ 가.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 실현

- (무보증, 무담보) 담보와 보증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시중은행 접근이 불가능한 저신용자, 사회적경제기업에 저금리(무이자~최대 4.5%(정책자금 금리 수준)) 융자 지원
- (관계금융)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맺기를 통해 사회적지지 관계 및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함
- (인내금융) 시중은행과 달리 연체 발생 시 연체사유 파악,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상환 유예, 상환 조정 등 조치를 통해 신용불량자, 기업 파산 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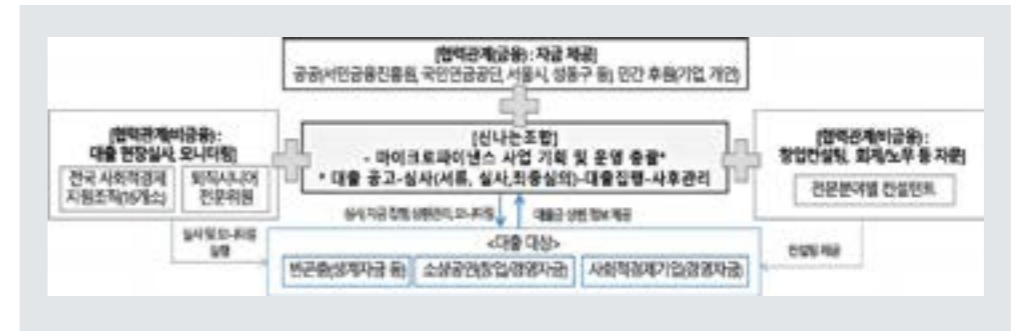
▣ 나. (금융서비스+비금융서비스 통합 지원) 금융(대출) 지원 외 컨설팅, 교육, 외부자원 연계 등 빈곤층 자립, 소상공인 및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를 통합 지원

- (빈곤층) 재무 컨설팅, 채무 조정 상담, 취업 연계 지원 등
- (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창업인증 기술교육 지원, 입지 선정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 등
- (사회적경제기업) 정부지원사업 안내, 판로 지원, 타 투자자금 연계 등

▣ 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국사업으로 추진하는만큼 대출자(기업)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음

- 대출신청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대면심사 온라인 병행, 찾아가는 대출 약정 등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 **심사기준2. 파트너십/역량강화**



※ 공동참여(공동주최(주관))는 아니지만,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작성함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심사기준5. 성과 및 파급효과**

▣ 가. [1번]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 SDGs 원문 일부 발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

○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 확대 : 총 295억원, 1,913명 지원 (2024년 말)

- 담보 및 보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은행 대출 불가능한 빈곤층 지원 구분 용자금액 용자건수

| 구분 | 용자금액 | 용자건수 |
|------------|-----------------|--------|
| 창업(경영개선)자금 | 27,749,596,000 | 1,373 |
| 긴급생계자금 | 558,000,000 | 81 |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1,205,215,620 | 459 |
| 합계 | 29,512,811,620원 | 1,913명 |

- 무이자/저금리 대출로 가계 부담 감소 : 이자 최소 12%* 감소, 1인당 약 350만원**(81.7%) 감소
 - * 제2금융권(카드사, 저축은행) 이자 평균 약 15% - 신나는조합 개인 대출 최고 이자 3% = 12%
 - **|1천만원 60개월 상환 시 : 제2금융권 이자(4,273,550원) - 신나는조합 이자(780,900원) = 3,492,650원
- 빈곤 진입 방지로 사회 안전망 강화
 - 국민연금 체납금 용자로 연금 수령 개시되어 저소득층 노후자금 확보 : 총 388억원* 발생(추정)
 - * 최소 월 30만원×23년 6개월(평균연령 88.5세 적용)=1인당 8460만원×459명=약 388억원 소득 발생
 -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창업자금 지원으로 소자본 창업 가능, 자립 성공 지원

■ 소상공인 대출 사례(서울 은평구 'A국수') :

사람의 목숨을 살린 마이크로크레디트돼지독감, 조류인플루엔자 등 영향으로 3번의 폐업을 겪고 파산한 자영업자 B씨는 삶을 포기하고 한강 다리를 찾았으나, 갑자기 마이크로크레딧이 생각났고 우여곡절 끝에 신나는조합을 찾아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B국수집을 오픈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지만 창업 의지, 업종 전문성, 폐업의 사유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용자를 승인했습니다. B국수는 전국 각지에서 구입하는 질 좋은 원재료. 다양한 메뉴 개발로 창업 1년만에 줄서서 먹는 식당이 되었고 현재 전국 10곳의 점포를 가진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대표자 B씨 : 사진 활용 동의받음>

■ 나.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에 기여

- * SDGs 원문 일부 발취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 총 355억 6천 4백만원, 541개소 지원 (2024년 말)
 -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기여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개선 : 대출기업 최소 5년 이상 생존율 95%로 매우 높음
 - 국내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 33.8%(2023년 10월 기준)보다 61.2% 높음
 - 신나는조합 대출이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 일자리 창출 기여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심사기준5. 성과 및 파급효과

■ 가. 마이크로크레딧의 정부 정책 도입 및 제도화 기여

- 본 법인이 2000년에 시작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 참고하여 2005년 보건복지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도입, 이를 확대하여 2009년 '희망키움뱅크사업(280억원)' 실시

■ 나. 사회적금융 전문성 공유로 전국 단위 민간 지원 인프라 확대 기여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뱅크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전국 민간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위탁 수행
- 비수도권(15개 광역)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중간지원기관과 협약을 맺고 신나는조합 대출 노하우 전수 및 심사 공동 진행으로 역량 강화 지원(2018~)

■ 다. 지자체 사회적금융 운영방안 구축 지원 및 타 지자체 확산 기여

- 서울시, 성동구 용자사업 운영 중, 화성시, 성북구 등 사회적경제기업 용자사업 도입 초기 운영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심사기준4. 이행평가

■ 가. 마이크로크레딧 선도적 도입으로 한국 사회적금융 토대 마련

- 일반금융권 외 빈곤층이 접근가능한 금융이 없던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금융을 확산, 현재까지 제도 개선 과제 제안 등 선도적 역할 수행

■ 나.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사회 통합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을 가진 빈곤층, 영세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대출+정서적 지지+애로사항 해결 등으로 통합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도움

■ 다. 대출사업 규모 지속 확대 및 지원 성과 인정으로 법인 지속가능성 향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금을 확보하여 대출사업 규모 확대,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안정적 사업운영 가능하게 됨
 - * 서민금융진흥원 최우수기관 선정(2025), 스타공익법인 선정(2022~2025) 등

■ 라.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확산에 한계 존재

○ 2000년 당시보다는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더 많은 수요자에게 공급하기에는 규모가 적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 개선 필요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심사기준1. 지속가능성

▣ 가 신나는조합 성장단계 3기*(2021~2030) 사업 순조롭게 진행 및 성과 도출

- *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3기에 해당하는 2021~2024년(4년) 대출기금 193억원 집행, 대출총액 651억원의 29.6%로 규모 커짐
- 2025년 8월 현재, 사회가치창출기업 융자사업(5억) 신규 확보, 배달라이더 소액대출사업 신규런칭(2억원), 2025년 상반기 융자사업 약 16억원 집행 등 사업 규모 지속 확대

▣ 나. 現 정부'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중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 포함

- 지자체 사회적금융기금 조성, 공적자금 확대 등 실행방안으로 제시, 기금 확대 가능성 높음
- 지난 25년 간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점진적 성장해왔으므로 지속가능성 높음



2020. 6월 설립 20주년 보고서 발간 발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취약계층(라이더) 융자사업 사회가치창출기업 융자사업



최우수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소모임

03

프로젝트 모아

삼삼은구

프로젝트 모아

삼삼은구

삼삼은구: 사람과 사람이 모여 지구를 구한다

삼삼은구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지구를 구한다'는 뜻으로, 강원도 홍천군 물걸2리 주민들의 모임이다. 물걸2리는 150가구, 약 300여명이 사는 작은 산골마을이다. 삼삼은구는 이곳을 배경으로 농촌의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를 기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농촌의 쓰레기 문제

쓰레기는 전지구적 문제다. 농촌 또한 쓰레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비한 분리배출 시스템, 불법 소각, 영농폐기물 등 도시와는 다른 어려움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가 부족하다.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물걸2리 주민들은 실험을 시작했다. 농촌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만들고 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만들었다. 또 농촌의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마을 차원의 돌봄까지 고민한다. 이 실험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프로젝트 모아

프로젝트 모아는 텃밭모아, 공방모아, 수리모아, 공부모아로 진행된다.

텃밭모아는 마을회관에 위치한 클린하우스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이곳에 쓰레기를 배출한다.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텃밭모아에는 모아짱, 모아지기라는

공공일자리가 있다. 이 일자리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만들어졌다. 모아짱은 마을의 쓰레기 배출과 관련한 일을 총괄한다. 일주일에 한 번, 모아를 찾을 수 없는 독거노인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 환경미화원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마을의 쓰레기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모아지기는 모아짱을 도와 텃밭모아를 관리한다. 마을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를 재분류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자원화 한다.

공방모아는 마을의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만드는 곳이다. 쓰레기를 잘 관리하는 것만큼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만든 모임이다. 주민 10명이 매주 목요일에 만나,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수제비누, 천연염색, 바느질 등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이를 마을주민들과 함께 나눈다.

수리모아는 마을의 수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주민이 수리가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도움을 준다. 농촌은 수리를 받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리모아는 긴급하고, 간단한 수리를 도움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돌봄을 만들고 있다. 또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허투루 소비하지 않는, 환경에 이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다.

공부모아는 농촌의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모아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전환마을로의 변화를 꾀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기후위기, 전지구적 문제와 연결 짓는 시도를 한다.

03 삼삼은구

프로젝트 모아

2022.8 - 현재

요약

삼삼은구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지구를 구한다”는 뜻을 가진, 강원도 홍천군 물걸2리 주민들의 환경모임입니다. 기후위기시대 농촌이 품은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합니다. 프로젝트 모아는 마을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실험입니다.

마을회관에 클린하우스 ‘텃밭모아’를 만들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이를 관리하는 공공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쓰레기를 재분류합니다. 또 독거노인 등 텃밭모아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로써 마을의 돌봄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텃밭모아



텃밭모아를 지원하기위해 제로웨이스트 공방 ‘공방모아’와 마을의 수리권을 확보를위한 ‘수리모아’,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공부모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모아를 통해 기후위기시대의 농촌이 나아가야할 하나의 대안이 되고자 합니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실천행동의 목적은 농촌의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적응하기위한 대안을 찾기위함임.
- 주민이 주체가 되어 농촌 마을공동체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만들. 또 이를 지속하기 위한 환경교육,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삼삼은구라는 환경모임을 만들고 마을의 환경문제를 고민함. 그 시작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모아’를 시작함.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농촌의 생활방식이 점차 소비중심으로 바뀜. (대형마트, 택배 등) 때문에 각 가정의쓰레기 배출량이 점점 늘어남.
- 농촌은 도시와 달리 생활쓰레기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수거하지 않음. 때문에 큰 도로를 따라 쓰레기를 배출함. 이를 거점이라 불렀는데, 물걸2리는 5개의 거점이 5년새에 15개로 늘어남.
- 환경미화원 3인이 트럭 1대로 내촌면을 담당함. 때문에 쓰레기를 정기적, 효율적으로 수거하는데 제약이 많음.
- 길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길었음. 고양이, 까마귀 등이 봉투를 훼손하고 지나가는 이들이 거점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강원도는 생활쓰레기 매립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 높고 재활용률은 51.5%로 전국 평균 56.7%보다 낮음. (2023년 기준)

내용

1) 추진과정 및 추진방법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환경활동을 함.
- 2021년, 환경미화원, 내촌면사무소, 홍천군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쓰레기문제를 공론화하고 프로젝트모아를 구상함.
- 2022년, 강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통해 '농촌마을에 알맞은 쓰레기 분리배출시스템 만들기'리빙랩을 진행함.
- 2022년 8월,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차원의 프로젝트 모아를 진행함.
- 2023년 강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지속과제로 선정되어 '공방모아'와 '수리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함.
- 2024년 숲과나눔과 사랑의 열매가 지원하는 '초록열매 농촌쓰레기 컬렉티브'사업에 참여하여 폐농약·폐농약병 수거 시스템을 만들.

2) 주요 특징

(1) 텃밭모아

- 마을회관에 '텃밭모아'라는 클린하우스를 만들. 15개의 쓰레기 배출 거점을 없앴. 주민들은 이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배출함.
- 텃밭모아를 관리할 공공일자리, 모아짱과 모아지기를 만들. 노인일자리와 연계함.
- 모아짱은 마을의 쓰레기 배출을 총괄하는 역할임. 환경미화원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매주 1회, 텃밭모아를 활용할 수 없는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함.
- 모아지기는 모아짱을 도와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고 텃밭모아를 관리함.
- 고철, 투명페트, 헌옷, 농약병 등을 수집하고 자원화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함.
- 생활쓰레기에서 영농폐기물로 관리 및 처리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2) 공방모아

- 텃밭모아를 지원하고 마을에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만들.
- 마을주민 10명이 매주 목요일에 모여 다양한 환경활동을 함.

-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천연수세미 재배 및 가공 등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함.
- 마을 주민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



▲ 수리모아

(3) 수리모아

- 물걸2리는 홍천읍과 30분이상 떨어져 있음. 때문에 작은 수리를 하더라도 비용과시간의 부담이 컸음. 수리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 마을주민 중 생활수리 기술이 있는 이들을 조직해 '수리모아'를 만들.
- 수리모아는 생활에 필요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돌봄의 역할을 함.



▲ 공방모아

(4) 공부모아

- 프로젝트 모아를 기획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고민을 함.
-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의 모습과 상황을 기록함.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를 발굴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함.
- 지역과 마을에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만들. 지역에 여건과 상황에 알맞은 환경교육과정을 연구함.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1)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농촌은 마을 구성원들이 점차 고령화 되고 있음. 마을공동체 스스로 마을 구성원의 삶을 살피는 시스템을 만들.



▲ 공부모아 (환경교육)



▲ 마을과 마을이 모여 지구를 구한다 (2024. 11. 30.)



▲ 초록열매 농촌쓰레기 컬렉티브 정책포럼 (2025. 3. 25.)

(2) 13. 기후변화와 대응

- 농촌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함.
-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 생태시민으로서 나아가기위한 환경교육 등에 대한 대안을 농촌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 제시함.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프로젝트 모아의 사례를 바탕으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 환경활동을 주제로 한 홍천군의회와의 간담회,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정책포럼 등을 개최함.
-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방법과 경험 등을 이웃 마을공동체에 공유함. 각 마을공동체의 환경문제와
- 홍천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마을과 마을이 모여 지구를 구한다'라는 환경축제를 해마다 진행함.
-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기후위기에 취약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살피는 '녹색특파원'이라는 지원사업을 함께 구상하고 진행함.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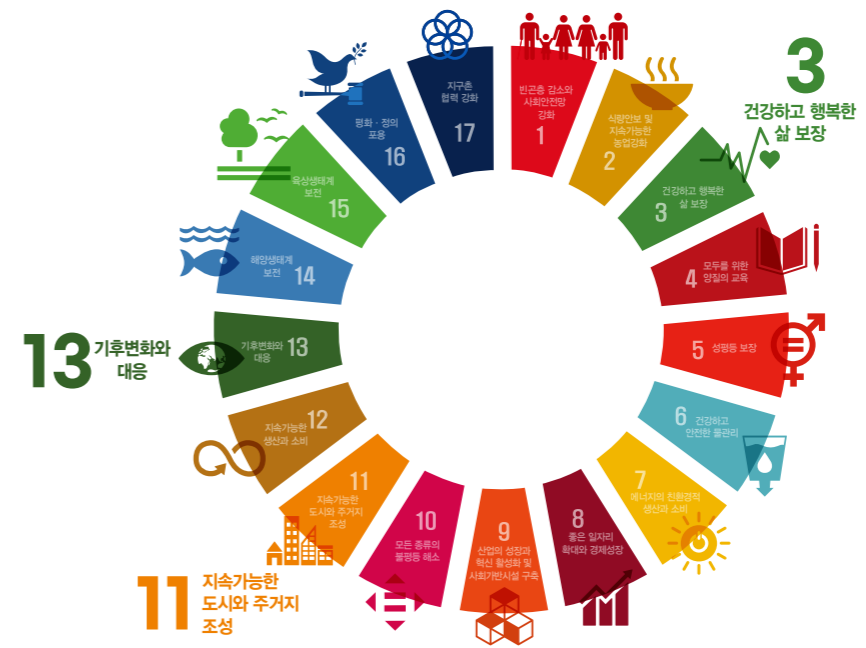
- 농촌의 환경문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함.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문제임. 이 문제를 개인의 일상과 마을공동체와 연결짓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음.
- 공병, 고철, 헌옷, 폐농약병 등을 자원화하여 현재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모아 프로젝트를 통해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가 주민의 환경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함.

관련영상 : "작은 마을부터 '제로웨이스트', 춘천MBC뉴스, 2023.3.20.

<https://www.youtube.com/watch?v=q620tVFDejY&list=PLrbisMbTSMYqKuUXwB8Wlq2HwOrp0xWH-&index=7>



최우수상

[국무조정실장 표창]

단체 (지방자치단체)

04

해남형 SDGs의
정책 실행화와 군민 생활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형 SDGs의 정책 실행화와 군민 생활화

전라남도 해남군

기후위기, 초고령화,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도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특히 해남군은 재생에너지 갈등, 지역 간 불균형,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가치 충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전환”이 절실한 지역이었다.

지속가능발전(SDGs)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군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해남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 “군민이 체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은 어떻게 가능할까?”

해남군의 여정은 2022년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으로 시작됐다.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업 TF팀을 꾸렸고, 62개 세부목표와 151개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를 직접 만들어냈다. 이후 주민참여단 100명과 함께 4회의 숙의공론화장을 열어, ‘해남다운 지속가능성’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에 녹여냈다. 행정·전문가·군민이 한 테이블에서 비전을 만든 매우 드문 사례였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파트너십 강화 단계로 확장됐다. 군 단위에서는 이례적으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개설하여 강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학습, 주제별 토론, 정책 제안 프로젝트까지 포함한 20시간의 참여형 교육을 운영했다. 1기 수료생들은 단순한 수강생을 넘어, 캠페인·정책제안·홍보활동을 이끄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리더’로 성장했다. 지역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은 지속가능발전을 군민의 일상 속 실천으로 확산시키는 데 집중했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생활 속 실천을 공유하는 우수사례 공모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액션데이 릴레이·빙고 캠페인이 이어졌다. 마을 자치회, 청년회, 동아리, 어린이집까지 참여가 확산되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해남군은 체계 구축 → 파트너십 강화 → 군민 실천 확산이라는 선명한 흐름 속에서, 군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실행 주체로 전환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공무원·전문가·주민이 함께 만든 전략은 정책 실행력을 높였고, 교육·공론장·공모사업은 주민의 인식을 실천으로, 실천은 다시 정책 확산으로 이어졌다.

지금 해남군이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는 단기간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풀어가는 해남군의 실천은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더 나은 미래, 우리는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04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형 SDGs의 정책 실행화와 주민 생활화

2024. 1. 1. ~ 현재

요약

해남군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행정 실행력과 주민 실천력을 동시에 강화한 선도적 사례이다.

[1단계 이행체계 구축]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민·관 협업 TF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와 추진계획 2025~2029를 수립하였다. 또한 이행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2단계 파트너십 강화] 주민참여단 100명을 모집하고 4회의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하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제1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개설하여 단순한

강의 방식을 넘어 현장학습, 주제별 토론, 정책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 작성·발표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이 직접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단계 군민실천 확산] 주민주도형 실천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실행하도록 지원하였고, ‘액션데이 릴레이’와 ‘빙고 캠페인’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SDGs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해남군은 이러한 단계별 흐름 속에서 ‘**체계 구축 → 파트너십 강화 → 군민 실천 확산**’이라는 구조를 갖추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목적/배경

1)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추진배경

■ 군 지역사회 복합적 도전 과제

- 해남군은 기후위기, 급격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
- 2025년 6월 기준 인구 62,557명, 노인 인구 비율 38.6%로 초고령사회 진입 → 장기성장 동력 상실
- 낮은 지역안전지수와 문화지수는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사회 전반의 격차 해소 필요

■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과정 속 갈등 요인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서 경관 훼손, 소음, 이익 배분 문제로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 개발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소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및 지역 불균형 갈등 심화
- 환경 보전과 지역 개발을 둘러싼 가치관 차이가 세대·계층 간 갈등으로 확산 가능성 존재

■ 군민 인식과 참여 기반 미흡

-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군민들에게 아직 생소하고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교육·홍보,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지역사회 쟁점과 연계한 전략 수립 필요

- (지역맞춤형 모델 구축)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발맞추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행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해남군은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실천과 연계한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 위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
- (민·관 협력 강화) 행정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공무원·주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정책 실행력과 군민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비전 체계도

| | | | | | | |
|--------|---------------------------|--------------------------------|---------------------------------|---------------------------|----------------------------|-------------------|
| 비전 |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좋은 해남 | | | | | |
| 5P 전략 | 기후·환경 (Planet) | 사회·문화 (People) | 산업·경제 (Prosperity) | 평화·협치 (PeacePartnership) | | |
| |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치 강화 | | |
| 17대 목표 | 1. 사회보장과 빈곤해소 | 2. 친환경농업과 기후변화대응 농업 강화 | 3. 건강증진과 예방적 관리 | 4.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보장 | 5. 성평등 실현과 여성참여 확대 | 6. 위생적인 물공급과 물절약 |
| | 7.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 9. ICT 융복합과 생태·역사·문화 기반의 신산업 육성 | 10. 불평등 해소와 열린공동체 실현 | 1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 | 12.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 | 13.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 14.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 15. 육상생태계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 16.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와 평화공동체 실현 | 17.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
| 평가체계 |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체계 | | | 지속가능성 사후평가체계 | | |
| 추진체계 | 제 도 | | | 조 직 | | |
|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 | |



내용

1) 추진과정

| [1단계] 이행체계 구축 | [2단계] 파트너십 강화 | [3단계] 군민실천 확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례 제정 · 기본전략 수립 TF 운영 · 위원회 출범(30명) · 기본전략 2045 수립 · 추진계획 2025-2029 수립 · 중장기계획 사전검토제 ·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평가·모니터링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단 100명 운영 · 전략 수립 속의공론화 장 운영 (4회, 워크숍 활동 통한 의견수렴) ·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10회차 20시간 / 3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형 실천 공모사업 · 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 SDGs 액션데이 릴레이 캠페인 · SDGs 생활실천 빙고캠페인 |

2) 추진방법

■ 1단계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국가 기조에 따라, 군 단위 지자체로서 선제적으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22. 12. 01)
- 군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민·관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 군정 정책 수립시 SDGs 원칙 반영 등

■ “지속가능한 미래 해남의 청사진”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 수립

- (민·관 협업 TF 구성)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대신 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업 TF팀을 구성함 * TF팀: 기획실 3, 전문가 4
- (TF 업무협의) 매월 1~2회 TF팀 회의를 통해 기본전략 수립안 작성하여 62개 세부목표와 151개 정책과제, 해남군 미래 지속가능성을 대표할 수 있는 62개 지표 도출
- (부서별 컨설팅) 전문가-지표담당자 개별 컨설팅을 통해 62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산출방식, 20년 단위 목표치 설정 논의
- (기본전략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심의·의결 및 다양한 측면에서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17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목표, 62개 세부목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153개 정책과제 도출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25-2029 수립

- (TF 업무협의) 매월 1~2회 TF팀 회의를 통해 추진계획 수립대상 세부사업 선정 및 5년 목표치 설정
- (부서별 컨설팅)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지표담당자 컨설팅 기획 및 추진
- (추진계획 심의·의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2025-2029” 심의·의결 및 다양한 측면에서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모색

153개 정책과제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62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간 목표치 설정

▣ “실무 역량 강화로 미래 행정 준비”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지속가능발전 실천 다짐식) 해남형ESG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 인식 향상) “지속가능발전(SDGs) 활성화”공직자 교육 추진(24. 5.)
- (부서별 컨설팅) 전문가-지표담당자 개별 컨설팅을 통해 62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산출방식, 20년단위 목표치 설정 논의

▣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민·관 거버넌스”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운영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24. 9. 9.)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경제·사회·환경 3개분과, 30명 구성)
- 군정의 주요 정책·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검토하고 자문·심의 기능 수행, 중장기 행정계획사전검토

▣ “지속가능 가치의 군정 내재화를 위한”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운영

- (추진목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후적 평가·보완에 앞서 주요 행정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가치의 선제적 내재화 필요 * 주요 행정계획 내 SDGs 가치와 목표를 연계·반영
- (검토방법) 지속가능발전 분야별(경제·사회·환경·제도 등) 평가리스트를 활용, 의뢰부서 자체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검토의견서 작성
- (검토흐름) * 위원회 의견을 부서별로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가치 내재화 검토 의뢰

| 검토 의뢰 | 검토 실시 | 결과 환류 |
|------------------------------|------------------------------|----------------------------------|
| · 검토의뢰서 작성 · 검토 안전 위원회 회부 | · 검토 실시 및 의견서 송부 (30일 이내) | · 검토 의견 반영 및 반영결과 회신 (30일 이내) |
| 의뢰부서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의뢰부서 |

- (검토대상) 해남군 환경계획(2025-2040), 제3차 해남군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4), 해남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5), 해남군 공업지역 기본계획(2030),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6-2030)

▣ “투명한 평가, 체계적인 모니터링”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정책 이행과정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제고
- (지속가능발전 이행사항보고서 작성) 2년마다 지표별 달성도 및 추진실적을 종합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사항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 정책 목표 달성 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2026년 예정)
- (의회 자문 및 성과공유 보고) 작성된 기본전략 및 이행사항보고서를 의회와 공유하고 자문을 받아

군정 정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보고회를 통해 성과 공유와 환류 체계를 강화

153개 정책과제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62개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간 목표치 설정

■ 2단계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SDGs) 파트너십 강화

▣ “군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거버넌스”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구성·운영

- (추진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비전, 세부목표, 지표를 도출하는 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별, 읍면, 연령별 균형을 고려한 주민참여단 100명을 위촉함
- (주요역할) 주민참여단은 정책 모니터링, 이행사항 점검, 현장 의견 전달, 지속가능발전 홍보대사 등 다층적 역할 수행

▣ “참여와 토론의 열린 논의의 장”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속의공론화장 운영

- (추진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속의공론화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 (연중 4회 워크숍 활동 추진) SDGs 지속가능성 위협요소 및 해남군에 적합한 세부목표 논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안 도출,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표 도출&의견수렴



▣ “배움과 실천을 통한 더 나은 미래”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 (군민 역량 강화) 군 단위로는 이례적으로 개설된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을 통해 군민 스스로 SDGs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참여형 프로그램)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학습·주제별 토론·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 수강생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 모색(10회차, 20시간의 커리큘럼)
- (수료생 성과) 제1기 수강생 24명 최종 수료, 향후 정책 홍보, 생활실천 캠페인 참여, 신규 정책 제안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확산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 예정

[팀 프로젝트 활동 → 성과 공유회 → 군정 제안 반영 / 선순환 구조]

| 연번 | 조 명 | 과 제 명 | H-SDGs 연계 |
|----|-----------------|---|-------------------------|
| 1조 | 녹색지대 | · <경제> 전통시장의 생기를 되살리다 · <환경> 해남 순환+소통 프로젝트: 쓰임을 잇다 | 8, 11, 12, 13, 17 |
| 2조 | 형광등 | · <경제> 청년이 돌아오는 해남 ·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노래하다 | 4, 8, 13, 17 |
| 3조 | 멀리 내다보는 해남 | · <경제> 미남축제 속 명인의 요리와 1회용품 제로 축제 · <사회> 치유농업과 친환경농업 | 2, 3, 11, 12, 13, 17 |
| 4조 | 지속가능한해남씨 | · <경제+사회+환경> 빨래에서 시작된 마을 에너지 절약 작전 | 3, 7, 11, 12, 13, 17 |
| 5조 | 그린웨이 (GREENWAY) | · <사회> 탄소중립전도사 육성, 사회 인식의 전환점 · <환경> 생태적 삶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해남 | 6, 7, 8, 10, 12, 13, 17 |
| 6조 | 탄소발자국 | · <사회> 노쇠한 어르신 집 단장 도와주기 · <환경> 지역 행사시 쓰레기 분리배출 독려 | 1, 12, 17 |

■ 3단계 : 해남군 지속가능발전(SDGs) 군민실천 확산

▣ “생활속 실천으로 군민이 만드는 변화” 주민주도형 SDGs 실천 공모사업 추진

- (사업방식)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을 추진,분야별(환경·사회·경제) 창의적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24년 3개소, 25년 4개소 각 1천만원 지원)
- (성과공유) 사업 완료 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추진성과와 주민의 느낀점을 나누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SDGS 확산 방안 모색

| 연번 | 단체·기관 명 | 주 요 내 용 | H-SDGs 연계 |
|------|------------|--|----------------------|
| 2023 | 해남청년연합회 | · 청년플로깅 활동, 청소년-청년 멘토링 활동, 지역발전토론회 | 4. 13. 16. 17 |
| | 초효 | ·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 2. 12. 13. 17 |
| | 해남공업고등학교 | · 분리배출 교육·토론 활동,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및 나눔 | 2. 4. 12. 13. 17 |
| 2024 | 화산면주민자치 | ·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캔·화분 친환경 공예품 제작, 페스타 참여 | 3, 8, 12, 13, 16, 17 |
| |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 · 해양환경 중요성 교육, 해양플로깅 활동, 환경독서 등 | 4, 12, 13, 14, 17 |
| | 해남청년연합회 | · 벽화그리기 활동, 청소년-청년 멘토링 활동, 지역발전토론회 | 4. 13. 16. 17 |
| | 초효 | · 초효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만들기 | 2. 12. 13. 17 |

▣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해남형 SDGs 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

- (추진목적) 군민과 공무원이 일상 속에서 실천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발굴·공유하여 생활밀착형 SDGs 문화 확산과 자발적 실천 동기 부여를 강화
- (주요성과) 접수된 사례중 군민 9건, 공무원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우수사례집 발간, SNS 홍보 등을 통해 군민 전체로 확산하여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캠페인에 반영 예정
- + 화산면주민자치회(군민분야 최우수) / 1회용품 0, 화산면이 되는 그 날까지 / H-SDGs 3,4,5,7,11,12,13,15,17
- + 해남자원순환연구회(군민분야 우수)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 속 친환경 프로그램 / H-SDGs 10,12,13,17
- + 해남청년연합회(군민분야 우수) / 청년이 청소년에게, 청년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해남 / H-SDGs 1,2,3,4,10,11,13,16,17

▣ “실천은 릴레이로, 즐거움은 빙고로!” **해남형 SDGs 액션데이 릴레이·빙고캠페인 추진**

- (액션데이 릴레이) 군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 모두가 함께 참여 하는 행동을 릴레이로 전개 * 용기내서 용기내요(1회차), 꾸우욱 놀러놀러(2회차), 나의 애쓰지 뽀내기(3회차)
- (빙고캠페인) 해남형 SDGs 17개 목표와 연계된 빙고판 미션을 제시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실천 과제를 달성할 때마다 체크·인증 → 완성 시 기념품 제공 및 SNS 인증을 통한 참여 확산
- (주요성과) 생활 속 실천 → 참여 확산 → 지역 전체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3) 주요 특징

▣ **민·관 협력 TF팀 +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 기존 외부 용역 중심의 형식적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100여 명의 주민참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

▣ **주민참여형 숙의공론화장과 지속가능발전대학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 숙의공론화장을 통해 전략 수립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으로 군민이 교육·토론·현장학습을 통해 실천 주체로 성장하여 정책 홍보·생활실천 캠페인·신규 과제 제안 등 지역 확산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

▣ **일상속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SDGs 확산 운동**

- 주민주도 공모사업, 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액션데이 릴레이·빙고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이 일상에서SDGs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공유하며, 작은 실천이 참여 확산과 지역 전체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 이외에도 군에서 추진중인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하고,자원순환활동가 양성을 통해 지역 내 실천 리더를 배출함으로써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SDGs 추진 기반을 강화

▣ **복합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선도모델 구축**

-해남군은 기후위기대응, 인구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체계와 생활실천 모델을 결합한 지자체 선도사례를 구축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주요사례 (성과) | K-SDGs | H (해남)-SDGs-세부목표 |
|-------------------------|-----------------------------------|--|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 | 4, 10 16, 17 | · 4-3 찾아가는 평생교육 일상화 · 10-2 지역간 불균형 해소 · 16-2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 17-4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평가 |
| (2단계)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강화 | 4, 13 16, 17 | · 4-3 찾아가는 평생교육 일상화 · 13-4 주민 기후환경 교육 기회 확대 · 16-2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 17-1 군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
| (3단계) 지속가능발전 군민실천 확산 | 1, 2, 3, 12, 13, 14, 16, 17 | · 1-1 빈곤층과 취약계층 자립기반 확충 및 경제활동 지원 · 2-4 로컬푸드와 지역 안심 먹거리 확대 · 3-4 생활체육저변 확대 · 12-2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확대 · 13-4 주민 기후·환경 교육 기회 확대 · 14-3 해양오염 관리 · 16-2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 · 17-1 군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 |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타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 제시

- (추진방식)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전문가·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전략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주요성과) 여러 지자체의 주목을 받아 벤치마킹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모범사례로 확산

▣ 주민참여형 교육·캠페인의 확산 가능성 입증

- (추진방식) 제1기 지속가능발전대학, 생활실천 빙고캠페인 등 저예산으로도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함
- (주요성과)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유사한 여건의 지자체에서도 적용·확산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 마을 내 자생조직(자치회, 청년회, 동아리, 어린이집 등)도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기초지자체 한계 극복과 참여형 전략 수립

-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유인체계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남 군 내 전담 인력 부족과 기초지자체의 한계 속에서도 계획 수립부터 실행·확산까지 전 과정을 군민과 함께 추진
- 행정 주도의 일방적 방식이 아닌, 공무원·전문가·군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전략 완성

▣ 주민 실행 주체화와 확산 모델의 가치

- 지속가능발전대학, 생활실천 캠페인 등 참여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실천 주체로 성장
- 형성된 주민 네트워크와 실천 문화는 향후 정책 추진 기반이자, 타 지자체에서도 적용가능한 확산 가능한 모델로 평가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장기 전략과 실행계획에 기반한 지속 추진 구조

- 기본전략 2045 및 추진계획 2025-2029를 통해 20년 비전과 5년 단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년마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점검하며 주기적 관리 체계 구축

▣ 주민 네트워크와 실천 문화의 자발적 확산

- 주민참여단 활동, 지속가능발전대학 수료생 네트워크, 생활실천 캠페인 정례화를 통해 군민 참여 기반 마련
- 사업 종료 후에도 군민 스스로 참여·확산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문화 정착 기반 확보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단체

05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
1만 8천 건의 기록이 여는
지속가능발전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 1만 8천 건의 기록이 여는 지속가능발전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의 생명을 함께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14년의 여정

부산은 산·강·바다·습지 등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도시다. 이렇게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부산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도시 곳곳에서 진행된 생태 조사도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이 접근하거나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지역 생물종에 대한 기초 데이터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생태 보전 논의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기초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문가·시민과학자·지역 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생물다양성 탐사를 기획했다. 특정 집단이 기록을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 시민이 직접 생물을 찾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탐사는 매년 5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 있는 주말에 진행된다. 생태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 짧은 시간 안에도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덕분에 '바이오블리츠(BioBlitz)' 방식을 부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탐사는 금정산, 장산, 삼락생태공원, 대천천, 이기대 등 부산 곳곳의 주요 생태공간에서 이어져 왔고, 2025년에는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에서 진행되는 등 해마다 다른 지역을 찾아 부산의 자연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록은 현재까지 약 1만 8천여 건에 달한다.

식물·곤충·조류·균류·어류·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분류군의 정보가 시민과 전문가의 관찰로 꾸준히 축적되면서, 부산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조금씩 채워져 왔다.

무엇보다도 탐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생물을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동정을 배우며 기록을 완성하는 경험 그 자체가 부산의 생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기록을 통해 드러난 도시의 자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가능성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단순한 생물 관찰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활동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도시의 생태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에게도 드문 분류군 통합 기록이 시민참여를 통해 매년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탐사는 시민과학 기반의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자리잡아 왔다.

기록이 쌓이면서 부산의 자연을 둘러싼 여러 변화도 포착되고 있다. 일부 조사지역에서는 특정 곤충이나 조류의 출현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변화가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생물종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차이도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부산의 생태 공간을 보전하거나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축적된 기록은 교육, 연구,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탐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생태 교육의 장이 되고, 일정 규모의 생물 정보를 꾸준히 축적해 가는 방식은 지역 연구 기반을 넓히고, 생태 보전의 기초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생물다양성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구체화하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탐사는 매년 새로운 공간을 찾으며 부산의 생명을 이어서 기록할 예정이다. 기록은 도시가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쌓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이 되리라 믿고 있다.

05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 1만 8천 건의 기록이 여는 지속가능발전

2014 ~ 2025

요약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2014년 부산지역 환경단체인 '생명그물'의 주도로 시작된 시민과학 기반 생물다양성 기록 활동입니다. 현재는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 20여 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속도, 금정산, 삼락생태공원 등 부산의 주요 생태공간 13곳 이상에서 개최되었으며, 누적 인원 2,500여 명이 참여해 1만 건 이상의 생물 관찰기록을 남겼습니다. 시민과학자, 지역 준전문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탐사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지역 사회와 공유됩니다.



본 사업은 SDG 4, 13, 15 및 B-SDG(부산지속가능발전목표) 4, 13, 15의 실 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내 시민 주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지역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시민참여형 실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2014년 부산 지역 환경단체인 '생명그물'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 20여 개 환경·교육단체로 구성된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탐사 활동은 단순한 자연 체험을 넘어, 시민과학자, 지역 준전문가, 생물 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생물종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 기반 생물다양성 기록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이 생태 데이터 수집의 주체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부산은 도시 개발, 기후변화, 생물 서식지 훼손 등으로 지역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 참여의 접점이 적고, 지역 생물종에 대한 기초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과 공유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본 탐사는 전문가의 지식, 지역 준전문가의 현장 경험, 시민 과학자의

참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협력형 생물다양성 보전 모 델을 구축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탐사 결과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 생태자원으로 공유되며, 환경교육, 정책자료, 연구 기반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용

1) 추진과정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2014년 부산 환경단체 ‘생명그물’의 주도로 시작된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입니다. 초기에는 환경활동가 중심으로 삼락생태공원, 수영강 등지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 부산지속가능 발전협회가 주체를 맡고 부산광역시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면서 본 활동은 정례화 되고 공공성 있는 시민참여형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20여 개 환경·교육단체로 구성된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가 공동주관 체계를 구성하며 실행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탐사지역은 이후 금정산, 이기대, 회동수원지, 장산, 수영강, 을숙도·맥도 생태공원 등 부산의 다양한 생태공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매년 생태적 가치와 조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탐사는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생물종 관찰, 기록, 생태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민과학 기반 활동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생태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참여 시민들이 생태적 감수성과 과학적 이해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매년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 포함된 주말을 중심으로 1박 2일간 개최되며, 연중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한 장소 선정 및 실행 계획 수립
- 시민과학자 및 전문가 모집, 지역 준전문가 그룹 구성, 사전 교육 실시
- 분류군별 생물 조사 활동 및 관찰기록 등록
- 조사 결과 집계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결과 공유 행사 및 최종 보고서 발간

지금까지 총 14회 동안 누적 2,500여 명이 참여해 1만 건 이상의 생물 관찰기록이 축적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생태정보의 공공 데이터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교육, 연구, 정책 자료로의 활용 가능성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2) 추진방법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사전 기획-시민 참여-현장 조사-데이터 기록 및 공유-성과 환류의 구조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기획 및 운영 준비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부산생물다양성탐사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회의를 통해 연간 계획 수립
- 생태적 가치와 조사 필요성에 따라 매년 탐사지역 선정
- 협력기관 및 분류군별 전문가, 시민과학자, 지역 준전문가 모집

2. 시민참여자 모집 및 사전 교육

-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자를 공개 모집
- 사전 생태교육(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해 생물 기록 방법, 시민과학 개념, 조사 윤리 등 교육 실시



3. 현장 조사 및 생물종 기록

- 1박 2일 일정으로 분류군별 팀을 구성해 탐사 수행
- 시민과학자, 전문가, 준전문가가 함께 생물종을 관찰 및 동정
- 기록은 ‘네이처링’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 등록 (사진, 위치, 시간 포함)

4. 데이터 정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수집된 데이터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분류 정리
- 탐사 결과는 디지털 지도 및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시민 및 관계 기관과 공유
- 관찰기록은 장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추적, 교육,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



5. 성과 공유 및 환류

-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마련하여 탐사 결과 및 참가자 소감 공유
- 탐사 보고서 및 웹 아카이브 발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기반 마련

본 사업은 단순 체험 활동이 아닌, 시민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체로서 직접 조사·기록에 참여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적 신뢰성과 교육 효과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주요 특징

1. 시민과학과 전문가 협업 구조

- 시민과학자, 지역 준전문가, 생물 분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함께 조사·기록
-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과학 데이터의 저변을 넓히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신뢰도 있는 생물종 데이터 생산

2. 디지털 기반 기록 시스템

- 생물종 기록은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네이처링 등)을 활용해 위치, 사진, 시간 정보 포함 등록
- 기록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저장·공유되며, 향후 분석과 활용 가능성을 높임

3. 생태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구조

- 사전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시민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
- 교육 → 참여 → 기록 → 공유로 이어지는 생태적 실천의 순환 구조 형성

4. 지역 생태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매년 새로운 탐사지역 선정으로 부산 전역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

-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을 통해 도시 생태공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보호 의식 제고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B-SDGs) 실현과 연계

- 교육(SDG 4), 기후대응(SDG 13), 생태계 보전(SDG 15)을 통합적으로 실천
 - 부산지속가능발전목표(B-SDG 4, 13, 15) 실현에 기여하는 로컬 거버넌스형 생물다양성 보전 모델
- 이러한 특징을 통해 본 사업은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민문화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생태 실천 활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 구분 | 기관 / 단체 | 역 할 |
|-----------|---------------------|---|
| 주최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사업 총괄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예산 집행 및 행정 지원 - 시민참여 홍보 및 전체 사업 관리 |
| 공동주관 | 부산생물다양성탐사 조직위원회 | - 탐사 장소 선정, 프로그램 기획, 세부 실행 지원 - 분류군별 전문가·지역 준전문가·자원봉사자 연계 및 운영 |
| 후원 | 부산광역시 | - 행정적·재정적 지원 - 사업 성과 공유 및 정책 연계 추진 |
| 전문성 지원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 K-BON 전문가 지원을 통한 분류군별 조사 자문 및 전문성 제공 -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조사 체계와 연계 |
| | 전문가 및 지역 준전문가 그룹 | - 분류군별 조사 자문 및 시민참여자 교육 담당 - 시민 기록 검토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 장기 생태 데이터 축적 기반 마련 |
| 기술지원 | (주) 네이처링 | - 생물종 기록 플랫폼 제공 및 운영 관리 - 네이처링 앱을 통한 실시간 기록 지원 -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및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시민참여형 생물다양성 조사 활동을 통해 교육, 기후대응, 생태계 보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K-SDG 4 (양질의 교육) : 사전·현장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의 환경 인식과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킴.
- K-SDG 13 (기후행동) : 매년 축적되는 생물종 기록을 통해 지역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열어감.
- K-SDG 15 (육상생태계 보전) : 도시와 하천, 산림 등 다양한 생태공간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조사와 기록을 수행함으로써 보전 필요성을 확산하고, 장기적 생태 데이터 축적에 기여함. 또한, 부산지속가능발전목표(B-SDG) 4, 13, 15번과도 연계되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시민과학 기반 조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참여 확산 : 전문가·활동가 중심이던 초기 조사 방식에서 시민 주도 조사로 전환되며, 청소년·대학생·가족단위까지 다양한 시민층이 참여하는 대표적 시민참여형 환경활동으로 발전.
- 데이터 활용 : 네이처링 앱을 활용한 표준화된 기록 방식은 축적된 데이터가 교육·연구·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자리잡음.
- 거버넌스 모델 :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산광역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K-BON), 네이처링,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타 지역 활동에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
- 생태문화 확산 : '시민참여 → 데이터 기록 → 공유 → 환류'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2014년 시작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1만 8천 건의 생물 관찰 기록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들이 생태계 보전의 가치를 직접 체감하고, 교육·연구·정책 자료로 활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4, 13, 15 및 B-SDGs 4, 13, 15)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지역 준전문가·시민과학자기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인 참여·포용·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시민참여형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로는,

- 참여 시민이 가족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연령과 계층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
- 축적된 데이터의 정책·학술적 활용도가 아직 낮은 점
- 탐사 성과가 지역 환경정책 및 행정 계획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점 등이 있습니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2014년 시작 이후 10여 년간 매년 정례적으로 이어져 오며, 1만 8천 건의 기록을 축적해온 안정적인 지속적 생태 실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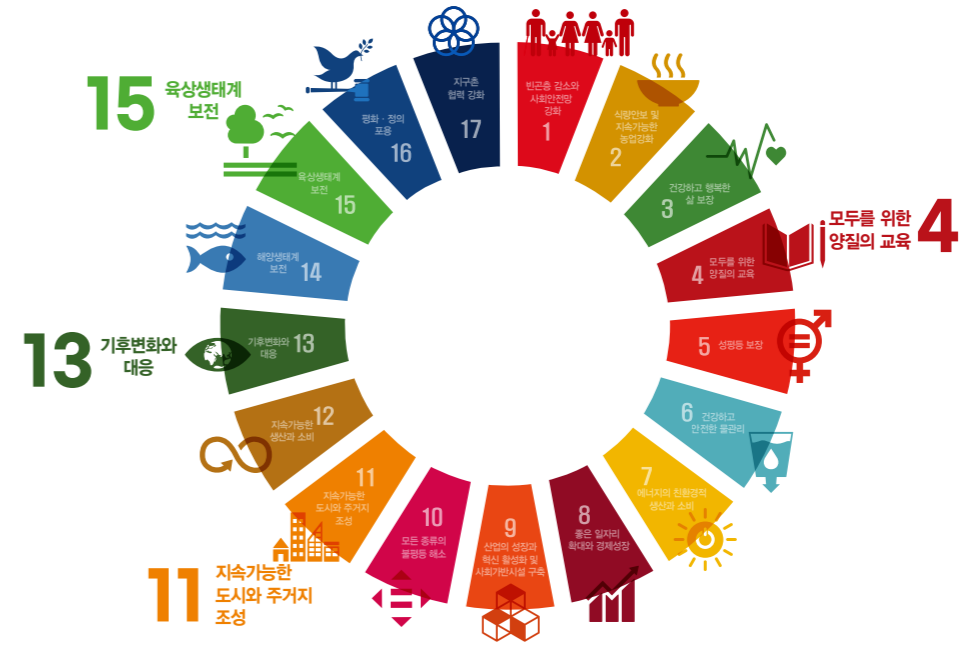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과학 기반의 조사 활동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미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시민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학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기록은 장기적인 공공 생태 지식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정책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탐사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지역 준전문가·전문가·행정이 협력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는 앞으로도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이며, 국내외 시민과학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사례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탐사 발자국(2015-2025) : <https://www.ecopa21.or.kr/explore/footprint>
-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생태지도(2015-2025) : <https://naturing-inc.carto.com/u/naturing/builder/1405aa6a-b6c4-4dfc-873a-e35685c1f5b3/embed>
- 부산 생물다양성 탐사 유튜브 · 페이스북 업로드 기록

| | 활동 동영상 | 공유와 소통의 시간 |
|------|---|---|
| 2025 | https://www.youtube.com/watch?v=VGv4P-NbrU | https://www.youtube.com/watch?v=Ey1EcnY5dBM |
| 2024 | https://www.youtube.com/watch?v=9KjzgYftivQ | https://youtu.be/Mm6Xo-itVnc?si=hMm810MEscJvgtC9 |
| 2023 | https://www.youtube.com/watch?v=DTioUUVt-ho | https://www.youtube.com/watch?v=CMW81eM2t1o&t=2603s |
| 2022 | https://www.facebook.com/share/v/1W3fXPK4PC/ | https://www.youtube.com/watch?v=hTkrij9da60 |
| 2021 | https://www.youtube.com/watch?v=Z6t_nxPLC-s | https://www.youtube.com/watch?v=pZsJ7ZWbFD4 |
| 2020 | https://www.youtube.com/watch?v=vcqHTggPSgk&t=75s | |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단체

06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천 교육네트워크

(SDGs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RCE 추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천 교육네트워크 (SDGs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RCE 추진)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가 마주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실

2023년, 멈춰 있던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시 가동되면서 부천의 민관 거버넌스도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큰 문제를 마주했습니다. 6년의 공백 동안 SDGs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결정적 시기, 즉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에게 여전히 낯선 개념이었고, ESD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용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대학·기관마다 ESD가 작은 단위사업으로 흩어져 있었고 서로 연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을 확인하니 난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공공학교는 '학교자율시간' 도입 이후 새 교육과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역사회는 아직 교육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정적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이 함께 만든 SDGs교육생태계

부천시지속협은 2024년 B-SDGs 4번 목표인 "생애주기별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중심에 두고 지역의 교육자원을 모아 ESD의 연결망을 다시 엮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만들었고,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조정자·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초·중·고 127개, 대학 4곳, 유치원·어린이집 535곳이 있는 인구 80만 도시에서 교육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공감할 방향성과 이를 밀어붙일 동력이 필요합니다.

"전 지구적 과제를 지역에서 함께 해결하고, 현재와 미래세대가 SDGs 실천 역량을 갖도록

교육생태계를 만들자"는 목표 아래 학교, 대학, 청소년센터, 시민단체 등이 네트워크에 하나씩 모였습니다.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한 핵심 힘은 바로 부천시지속협이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부천ESD교육네트워크는 현재진행형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처럼, 형식적·일방적인 교육을 넘어 참여하고 경험하며 변화를 만드는 SDGs 교육을 촘촘하게 운영했습니다. 부천시지속협은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SDGs 교육을 실험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진행한 SDGs 뮤지컬 공연은 학생과 시민이 이야기를 통해 SDGs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문화ESD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연은 배우는 내용을 감성적으로 체감하게 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일상과 연결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협력의 힘이 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과 교사들은 "일상과 연결되고 변화로 이어지는 배움"에 높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024년 5개 학교·500여 명으로 시작한 ESD 시범교육은 2025년 31개 학교·3,600여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시민과 학생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SDGs영상제를 개최했고, 수상작은 누구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기반의 SDGs강사 양성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경기지속협과 주변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직교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모임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부천은 이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RCE 인증을 준비하며 ESD의 글로벌(Glocal) 거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실제 SDGs 이행과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걸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06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천 교육네트워크 (SDGs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RCE 추진)

2023. 3 ~ 현재

요약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3년 복원되어 지역 ESD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먼저 관내 초·중·고·대학교와 지속가능발전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기반의 SDGs교육생태계 초석을 다졌다. 관내 교사들과 함께 ESD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SDGs강사 양성과정을 시행해 양질의 강사진을 육성해 왔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SDGs교육과정(토종종자, 도시숲, 미세먼지, 소하천 모니터링, 생태감수성, 사회적경제, AI혁신기술 등)을 실험적으로 적용하며 지역 민·관·산·학의 긴밀한 연계

▼ 2024. 3월 ~ 현재 SDGs실천교실 진행중(우리동네생태계 탐사)



가운데 SDGs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학생, 교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천시 SDGs영상제'와 SDGs창작뮤지컬 공연을 통해 SDGs 이해와 실천 의지를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SDGs교육체계를 바탕으로 부천시, 관내 4개 대학과 함께 RCE(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본 사업은 SDG 4, 13, 15 및 B-SDG(부산지속가능발전목표) 4, 13, 15의 실 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내 시민 주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지역내 ESD활성화 과제** :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빈부양극화, 사회적·문화적 갈등, 테러와 전쟁 등 당면한 전지구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혁하는 실제적 노력이 미진한 상태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의 소양을 갖추고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함

▶ **교육생태계 조성의 목적** : 지역 민·관·산·학 거버넌스 역량과 자원(Soft-Power)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역거점(RCE) 부천의 교육생태계 조성하여 K-SDGs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실천동기 부여

▶ **추진배경** : 민선 8기 부천시장의 공약에 의해 16년 이후 해산 상태에 있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부천지속협)가 재구성됨. 이에 따라 학교, 대학, 공공기관,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 재구성하며 그동안 멈춰있던 부천 ESD활성화와 정착을 최우선 실행과제로 설정하고 핵심당사자로 시민사회에서 역할 수행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해결과제** : 학교자율시간(22년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25년부터 학생주도(Learner

Agency), 문제해결 역량 강화 중심의 교과통합형, 지역연계형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확대

다가오는 학교자율시간, 준비되셨습니까?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학교차 별입니다. 학교자율시간 교육공동체가 자립과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의 발목을 단련할 프로그램과 연계활동 등 다양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할수있기 위해 도입된 교육정책입니다. 교육부, 2023.

▲ '다가오는 학교자율시간, 준비되셨습니까?' 한국교육신문, 25. 2. 15.

학교자율시간, 막막했던 첫해의 기억



학교자율시간의 현장 체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말년에 적용한 첫 1년과 2024학년도부터 1~2학년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4학년은 2024학년도 3~4학년도의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후 2025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4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신문, 25. 2. 5.

▲ '학교자율시간, 막막했던 첫해의 기억' 한국교육신문, 25. 2. 5.

⇒ Globally thinking, Locally acting 창의적이고 세계시민의 소양을 기르는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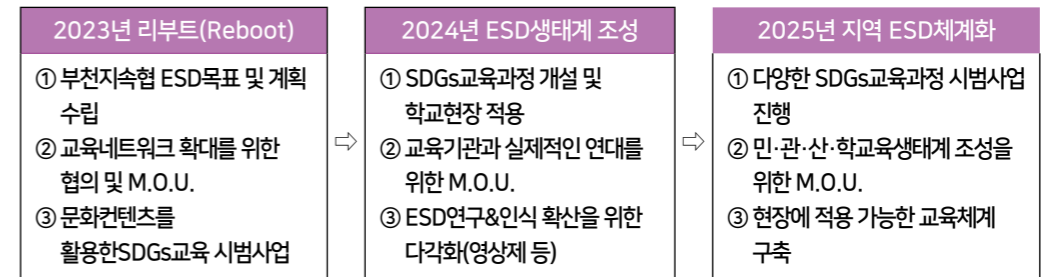
▶ **당면과제** : 부천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부재, 학습자, 교사, 교육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소통하고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공공 교육체계 구성에 대한 요구 증대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역사회와 교육현장 중심으로 현장체험·실천형·문화융합 커리큘럼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사회적 신뢰를 받는 교육네트워크가 필요, 부천지속협의 역할 부각

⇒ K-SDGs 17개 목표를 아우르며 핵심적인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특화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여 부천시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 요청

6. 내용

1) 추진과정



| 세부추진 내용 | 2023년 [활동재개]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ESD목표 및 계획 수립 | 임시총회 정기총회 | | | 성과공유회 |
| 교육네트워크 기초 마련 | | 업무협약 사전간담회 | M.O.U. (4개 학교) | |
| SDGs교육 적용 문화컨텐츠 제작 | | 둘레길 모니터링(2개 학교) | | SDGs뮤지컬 공연 |
| 2024년 [연대강화]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SDGs교육과정 개설 (학교와 협업) | 토종종자 (송내초) | 토종종자 (소사중) | 미세먼지(중원고) 소하천(소명여중, 송내고) | |
| 교육네트워크 확대 | | M.O.U. (1개 대학) | M.O.U. (5개 학교) | |
| ESD연구모임 (SDGs실천교사) | 공공교사(7개 학교) SDGs교육과정 연구 | | 경기지속협 SDGs교안 연수 | 부천교육청 ESD연구협의 |
| ESD적용 및 실행 다각화 | | SDGs뮤지컬 공연(2회) | 제1회 부천시 SDGs영상제 | 부천 환경 모니터링 보고 |
| 2025년 [ESD체계화]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예정) | 4분기 (예정) |
| SDGs교육과정시범사업 추진 (SDGs실천교실) | 토종종자(5개 학교) 학교숲(1개 학교) | 사회적경제(3개 학교) 생태교육(4반 80여명) | 생태교육(2반 40여명) AI교육(4개 학교) | 학교숲(3개 학교) 성과공유회 |
| 민·관·산·학 nESD생태계 조성 | M.O.U. (2개 교육기관, 14개 단체) | | 교육대토론회 | 부천 환경 모니터링 보고 |
| 지역ESD 교육체계 구축 | 공공교사 ESD연구모임 | SDGs강사양성 (19명 수료) | 제2회 부천시 SDGs영상제 | ESD연구모임 |

2) 추진방법

① 부천 RCE 마련을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 부천 교육기관들과 공동으로 SDGs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목표 설정 : 어린이집(424), 유치원(111), 초등학교(64), 중학교(33), 고등학교(28), 특수학교(2), 대학교(4)와 단계적인 교류연대와 신뢰형성
- 24년 부천시속협은 부천시와 함께 K-SDGs를 근거로 B-SDGs(부천시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REC추진 : 4번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 푸른부천21(지속협 전신)과 부천시가 전국 최초 작은도서관 설립한 사례 참고
- 참여 기반 실천과 평가 체계 마련 : 학교, 시민, 행정, 기업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 실행가능한 교육사업 운영, 성과 점검과 환류를 통한 연대와 협력 강화

② SDGs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산·학 네트워크 확대 : M.O.U. 총 26개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SDGs실천학교 업무협약 ● 송내초등학교 ● 소사중학교 ● 상일고등학교 ● 서울신대 FBI동아리 | ESD협력 업무협약 ● 부천시일학습지원센터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서울신대학교 ●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부천문화원 ● 미래환경인연합회 ● 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 SDGs실천학교 업무협약 ● 산학교 ● 원미중학교 ● 부천일신초등학교 ● 소명여자중학교 ● 중원고등학교 | ESD협력 업무협약 ● 상동호수공원 운영법인 ● (사)부천환경지킴이 ● 부천대학교 ● 부천공정무역협의회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가톨릭대학교 SDGs실천학교 업무협약 ● 시온고등학교 |

③ 교육현장에 적합한 SDGs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과정 | 설 명 | 추 진 |
|------------|---|---|
| SDGs 실천교실 | 2024~25년 공공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따른 SDGs실천역량 증진 | ● 토종중자텃밭 : 20개반 500여명 ● 공정무역&금융교육 : 6개반 150여명 ● AI영상교육 : 8개반 220여명 |
| 환경 모니터링 | 학생들과 부천 대기환경, 도시숲, 소하천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제안 | ● 미세먼지 측정 : 5회 30여명 ● 소하천/도시숲 : 13회 20여명 ● 보고회 및 환경 정책제안(24. 10. 28.) |
| SDGs 지구탐사대 | 2025년 부천교육청 공유허교와 연계한 지역중심의 생태교육 | ● 생물다양성 탐사 : 역곡동, 고강동, 원종동, 심곡동, 삼정동, 송내동 ● 6개동, 110여명 학생 참여 |

④ ESD활성화를 위한 연계활동

- 부천시 SDGs영상제 : 학생과 시민들이 K-SDGs 중 1개를 택해 소개, 적용, 실천하는 1분 미만 영상 참여형 콘텐츠 공모전
- 제1회(24. 9. 24.) : 75편 출품, 15편 시상 수상작 교육영상으로 활용
- 제2회(25. 10. 23.) : 공모 진행중



◀ 제1회 영상수상작



▲ 제2회 영상제 포스터

- SDGs뮤지컬 '내일을 지켜줘' 공연
 - 유아 대상(2회) : 1,000여명 관람(23. 10. 27, 24. 7. 9.)
 - 어린이, 청소년 대상(2회) : 700여명 관람(23. 12. 14, 24. 7. 17.)
- 부천 교육 대토론회 : 지속가능한 교육, 청소년이 말하다(25. 9. 1. 개최 예정)
- ⑤ ESD연구 및 교육자원 마련
- 공공공사 ESD연구모임
 - ESD교육현장 적용 : 24. 4. 3 ~ 12. 19 / 총 10회, 6개 학교 현직교사 6명
 - 학교숲탐사 연구 : 25. 4. 16 ~ 6. 18. / 총 3회, 8개 학교 현직교사 17명
- SDGs강사 1기 양성과정 : 25. 4. 18 ~ 6. 20, / 10회 x 2시간 (33명 신청 / 19명 수료) (이론강연 50% 수업시연&피드백 50%)
- SDGs강사 학습모임(자율) : 3회 / 교육현장 실습 예정 : 9월 중

3) 주요 특징

- ① 학생·학교·시민 연계한 교육거버넌스 :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 부천시속협을 통로 삼아 거버넌스의 자원과 역량을 ESD목표 달성에 집중

- ② 참여와 실천 중심 네트워크 : 현장에서 교육과제 발굴하여 실천형 ESD 추진
- ③ 지역과 연계 ESD거점 추진 :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교육부 정책기조에 맞게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제도화와 확산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ESD활성화에 동참하는 학습자와 교사 모두 지속가능발전 가치와 역량을 내재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K-SDGs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
- 지역중심 ESD실천은 아동·청소년·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경제, 문화, 환경적 문제를 성찰하게 하고 참여를 증진, 당면 과제에 대처하는 실천의 주체로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의제 설정
- 교육과정은 생명감수성, 토종종자, 도시숲, 소하천, 대기환경,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모니터링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생태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역 차원의 기후행동을 구체적인 실천 촉진
- 학생참여 정책제안, 교육제도 토론회, 공정과 평등에 성찰적 인문교육을 통해 당사자인 교육주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는 동역을 지역 전체에 제공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SDGs뮤지컬 : 2023 경기지속협 지속가능발전혁신상 수상, 타지역 SDGs교육 초연
- 거버넌스 사례 : 제15회 매니페스토 대회 최우수상 수상(25. 7. 24)
- SDGs영상제 : 경기지속협 SDGs시군협력사업으로 공모 선정(25. 5. 16.) 1회 부천내 공모(15편 시상) 2회 전국 공모, 시상규모 확대(50여편)
- SDGs강사 1기 양성과정 : 경기지속협, 시흥지속협 커리큘럼 벤치마킹 하여 진행중
- SDGs실천교실 토종텃밭교육 : 관외 학교에서 커리큘럼 공유(시흥 계수초 진행)
- SDGs실천교실 AI영상교육 : BIFAN(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협업 사례, 향후 국제 AI영화제 등에 제출하는 로드맵 협의중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지역사회 거버넌스인 부천지속협은 교육주체·학교·기관들과 폭넓게 연대하며 ESD연구와 교육과정·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부천 교육생태계 조성 RCE 추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여 협의회 존재 의미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평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2023년 부천지속협 재출범 이후 ESD를 핵심과제로 삼아 지난 3년간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 SDGs교육생태계를 일군. 앞으로 한국UNESCO ESD및 RCE 인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부천형 지속가능발전 교육모델을 정착·확산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ESD 거점으로 전개



▲ 2023. 10. 26.(목), SDGs실천학교 업무협약식(송내초, 소사중, 상일고, 서울신대FBI) 2025년 현재 10개 학교, 3개 대학(서울신대, 부천대, 가톨릭대) 협약
▶ 2023 ~ 24년 SDGs창작뮤지컬내일을 지켜줘 총 4회, 1,700여명 관람



▲ 2024. 9. 24.(화), 제1회 부천시 SDGs영상제 / 2025 제2회 SDG영상제 공모진행중
▶ 2024. 11. 28.(목), 2024 부천 환경 모니터링 보고회(중원고, 소명여중, 송내고) -삼정동 레미콘지대 미세먼지, 부천 소하천, 둘레길 모니터링 결과 및 정책제안



▲ 2025. 4월 ~ 현재, SDGs강사 양성과정 1기(19명 수료자 배출) ESD연구모임 진행(총 4회) & 현직교사 ESD연구모임 별도 진행중(8개 학교 17명)



2024 SDGs실천교실 소사중 토종씨앗 생태감수성 교육



2025 SDGs지구탐사대 _역곡동(부천교육지원청 협업)



<https://youtu.be/WGHfu3M9D4?si=j9GIWSny YY9da1oy>



<https://youtu.be/Cx5gjlMPP6Y?si=dGsBKxBrDSK7luVw>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단체 (지방자치단체)

07

20년의 동행,
'람사르습지도시' 김해
지속가능 여정

경상남도 김해시

20년의 동행, '람사르습지도시 김해' 지속 가능 여정

경상남도 김해시

“훼손된 습지를 되살린 20년의 장기 생태복원 프로젝트”

김해 화포천습지는 한때 산업폐수와 폐기물로 몸살을 앓던 훼손된 하천형 습지였다. 철새의 발길이 끊기고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등 생태계 기능이 붕괴되면서, 지역사회는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에 직면해 있었다. 김해시는 화포천을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국제적 보전가치를 지닌 생태자원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복원·보전 전략을 수립하며 '지속가능한 습지도시'의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2004년, 김해시는 훼손 원인 규명과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밀 생태 모니터링을 도입하였다. 서식종 조사, 식생 변화 분석, 수질 조사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복원 전략 수립은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어 2008년부터는 환경정화사업, 생태계교란종 제거, 수변 식생대 복원, 저류지 생태 복원 등 체계적 복원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환경단체·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2012년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관찰로·탐방길·전시관 등 환경교육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17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2018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으로 보전과 이용이 균형 잡힌 지속가능 모델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06년 시범 도입된 철새 먹이주기 사업은 독수리·큰고니·큰기러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 기능 회복을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22년부터 추진된 황새 텃새화 사업은 2025년 황새 3마리 부화에 성공하며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의 상징적 성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 복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주민들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 친환경 농업 확대, 환경정화 활동 등 자발적인 보전활동에 나섰고, 지역 해설사·생태관광협회 등 다양한 시민 주도 프로그램도 활성화되면서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로 성장했다.

김해시는 계속해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해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결합한 생태 거점 인프라를 강화하며, 화포천이 지속적인 배움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열린 생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국제적 모범사례로 도약”

20여 년간의 복원·보전·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김해 모델은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는 김해의 보전성과가 국제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하며, 황새 복원 경험을 기반으로 일본 도요카시 등 해외와의 공동 연구·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훼손지 복원, 탐방 인프라 확충, 국제 모니터링 협력, 맞춤형 생태교육을 강화하여 화포천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도시 자연자산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화포천의 변화는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생태적 전환에 참여하며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과정이다. 김해시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생태복원, 시민참여, 국제협력을 결합한 지속가능도시 모델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07 경상남도 김해시

20년의 동행,
'람사르습지도시 김해' 지속 가능 여정

2004년 ~ 계속

요약

김해화포천습지는 2004년 생태계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20여 년간의 보전·복원 노력을 이어나온 결과,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국내 대표적 습지 보전 사례입니다.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로 812종의 생물이 서식하며,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거점으로 연간 1~2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합니다. 2008년 환경정화 사업과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2018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제199호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 복원사업을 2022년 시작하여 2025년 3월 황새 새끼 3마리 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 화포천 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식지 복원, 환경교육, 생태관광을 결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연간 4만명이 방문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의 핵심 목적은 훼손된 하천형 습지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입니다. 하천형 습지는 유량 조절, 수질 정화, 홍수 완화, 지하수 함양, 생물다양성 유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한 번 훼손 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해시는 화포천습지를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자원으로 인식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환경교육, 생태관광,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를 함께 이루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생태계 보전과 지역 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과거 심각한 수질오염과 서식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는 2004년부터 체계적인 생태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식종 조사, 수질 측정, 식생 변화 분석등을 통해 환경 상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 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과거 화포천습지는 상류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와 떠내려온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일부 지역은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될 정도로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마저 악화시키는 등 생태계 전반에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주민·사업자는 토지이용 확대와 경제개발을, 환경단체·보전 지향 주민은 생태보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는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습지 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행정, 시민단체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습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7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이후의 장기 복원사업 추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화포천습지는 복원·교육·관광이 결합된 다차원적 보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등 성과를 통해 국내 외에서 주목받는 지속가능발전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용

1) 추진과정

| 세부사업 | 주요내용 | 비고 |
|--------------|--|--|
| 화포천습지 생태모니터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04년 ~ 계속 목적 : 습지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내용 : 서식 동·식물 종류 및 개체수 등을 파악하여 연보 및 누리집 공개 |  |
| 철새 먹이주기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06년 시범, 2008년 확대 ~ 계속 목적 : 월동기 철새의 안정적 먹이 확보와 개체 수 회복 내용 : 독수리, 큰고니, 큰기러기 먹이 공급, 농가 피해 예방 |  |
| 화포천습지 환경정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08년 ~ 계속 추진주체 : 지역주민, 학생, 시민단체, 기업 등 성과 :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습지를 체계적으로 정화·복원 하기 위한 움직임 본격화, 2009년 노랑부리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지속적 발견 |  |

| | | |
|-----------------------|---|--|
|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09년 ~ 2012년 목적 : 훼손된 습지 복원으로 생태적 기반을 회복, 환경교육과 생태 관광의 거점 마련 내용 : 생태관찰로, 생태탐방길, 생태학습관 등 230만㎡ 조성 |  |
|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12년 ~ 2025년 운영내용 : 생태탐방, 환경교육 체험·전시 등 연간 25개 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교육의 거점 역할 교육인원 : 연간 8,000명 |  |
|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13년 ~ 계속 목적 :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서식 환경 안정화 내용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등 |  |
| 람사르협약 국가담당자 국제네트워크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 2013. 10. 9. 장소 :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참석 : 미국, 호주, 일본 등 26개국 60명 내용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전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음 |  |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시기 : 2017. 11. 23. 지정위치 :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일원 지정면적 : 1.29km² 지정사유 :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 생물다양성 풍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함 |  |
| 화포천습지 생태환경지역지정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시기 : 2018. 1. 25. 목적 : 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지정면적 : 8km² | <p>경남연립일일 김해 화포천습지, 생태관광지역 제지정</p>  |

| | | |
|---|--|--|
| <p>(사)화포천습지생태 관광협회 지역 연계사업 추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18년 ~ 계속 목적 :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지원사업 발굴 내용 : 마을해설사 양성, 생태교육·홍보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  |
| <p>제1차 화포천습지 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 2019년 ~ 2023년 수립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내용 :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체계적, 실효성 있는 보전관리방안 제시 |  |
| <p>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위치 : 진영읍 본산리 7-12 일원 사업비 : 31,113백만원 목적 : 습지복원과 관리를 위한 연구·전시·교육의 거점 역할 사업내용: 연면적 5,334㎡(지상 3층) |  |
| <p>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 시설 설치사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2021년 ~ 2028년 위치 : 화포천습지보호지역(한림,진영) 사업비 : 15,000백만원 사업규모 : 훼손지 복원 A=0.6km² 사업내용 : 물길정비, 수질정화습지 조성, 조류서식지 복원, 탐방로 정비 |  |
| <p>황새* 텃새화 사업 (천연기념물 제199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시기: 2022년 ~ 2025년 추진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 일본 도요오카 출생 황새 화포천습지에서 관찰(봉순이) - 2022. 단계적 방사장 설치 및 황새 입식 - 2023. 황새 재입식 - 2025. 황새 3마리 부화 성공 |  |
| <p>화포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시기 : 2025. 1. 24. 인증기관 : 람사르협약 사무국 인증기간 : 6년 내용 : 국제멸종위기종 보전과 생물 다양성 및 지역 주민참여의 국제적 표준 모델로 인정 ※ 전세계 총 27개국 74개 도시 인증 (국내 9개 습지도시 인증) |  |

2) 추진방법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은 과학적 근거, 주민참여 거버넌스, 지속가능 이용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과학적 모니터링 기반 복원

2004년부터 연중 월 2회 이상 생태 모니터링(서식종·식생)을 실시하여 훼손 원인을 규명하고 복원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부농장(43ha), 퇴래뜰(68ha) 저류지 복원, 외래종 퇴치, 수변 식생대 확충,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 등 맞춤형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주민·행정·시민단체 거버넌스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2012) 및 제1차 화포천 습지보호 지역 보전계획 수립(2019), 화포천습지 지역협의체(2018)와 화포천습지 지역관리위원회 구성(2023)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은 정책·예산 지원과 보호지역 지정, 시민단체는 모니터링·환경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축제 운영, 환경정화, 주민은 보전 규약 준수, 친환경 농업을 담당하여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 생태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의 결합

환경정화사업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을 통해 주민 보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화포천생태공원 조성, 생태학습관, 생태체험장, 습지보전관리센터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철새 먹이주기 사업(2006)으로 독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월동 개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황새의 인공 번식(2025)에 성공하였습니다.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은 '과학적 조사-거버넌스-지속가능 이용'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으로 이어졌으며, 김해시가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대표 도시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주요 특징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은 심각한 오염과 훼손에 직면한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를 장기 모니터링과 복원 전략으로 되살린 선제적 사례입니다. 개발과 보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를 법제화하여

이해관계 조정 구조를 마련하였고, 보전 활동을 생태관광·친환경 농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철새 먹이주기와 황새 인공번식 성공 등 멸종위기종 보전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속가능 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

| 구분 | 기관 및 단체 | 주요역할 |
|-----------|----------------------|--|
| 행정 | 김해시 | 정책·재정 지원, 관리·감독, 사업 추진 |
| | 낙동강유역환경청 | 모니터링, 주민감시원 운영 |
| | 국가유산청, 예산시 | 황새 텃새화사업 협력 |
| | 경상남도교육청 | 초등학교 3학년 생태교육 의무화(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
| 교육·홍보 |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 | 강사양성, 환경교육, 생태체험, 시민홍보, 환경행사 |
| | 환경단체 | 화포천환경지킴이 화포천습지 생태봉사단 |
| 지역단체, 위원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회 | 한림·진영 마을대표, 영농법인, 환경전문가로 구성 대상지 및 사업유형, 보상단가 선정을 위한 심의(2013.~) |
| | 화포천습지생태해설사협의회 | 환경교육, 홍보, 모니터링(2014.~) |
|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협의회 | 현안문제 제시 및 논의, 의견취취, 문제해결방안 도출(2018.~) |
| | (사)김해화포천생태관광협회 |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홍보, 자원조사 및 자연보전활동, 마을가꾸기 등 |
| | 화포천습지연구회 | 초등교사 20명이 모여 화포천습지의 자연생태를 연구하는 모임(2018.~) |
| | 김해시 화포천습지 지역관리위원회 | 화포천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2023.~) |
| 농업인 | 퇴래·봉하·장방·명동들 친환경 작목반 | 친환경쌀 재배(약 120ha)로 소득 증가 친환경 농산물 이용상품 개발(봉하막걸리 등) |
| 기업 | 화포천습지보전 기업 서포터즈 | 경남은행, MBC경남 등 22개 기관 참여(2012.~2013.) 화포천 탐방 인프라 기증 및 생태관광지원 지원 |
| | 효성그룹(5개 계열사) | 화포천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원(2023.~) |
| 국제 파트너 | 람사르 습지도시 네트워크 | 국제멸종위기종 보전 성과 공유 및 공동 연구, 국제행사 참여(2013.~) |
| |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 | 황새 보전과 복원사업을 매개로 한 교류, 지역 학생·주민 상호방문(2014.~)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및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은 주민·행정·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법제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 보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공원, 생태학습관, 탐방로, 습지보전관리센터 등 생활권 내 접근 가능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였습니다.

▣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화포천습지는 낙동강과 맞닿은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로, 멸종위기종 23종을 포함한 812종의 야생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생태 보고입니다. 이곳은 상류 수질 정화와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을 통해 낙동강 하구와 연안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독수리 먹이주기, 황새 인공번식 및 2025년 부화 성공 등 국제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보전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서식지의 생태적 기증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래종 퇴치와 수변 식생대 조성 등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육상생태계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화포천습지는 2013년 26개국 람사르지역 대표단 방문, 2014년부터 일본 도요오카시와의 황새 보전과 복원사업을 매개로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통해 국내외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습지 보전 모델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김해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내 다른 습지도시와의 정보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로 확산되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화포천습지는 국내 최대 하천형 습지의 복원·보전 성공사례로, 전국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주목을

받아 다양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창녕 우포늪 등 다른 습지 지역에서는 화포천습지의 복원 방식과 생태관광 인프라, 체험 프로그램을 참고해 인공습지 체험장과 교육 콘텐츠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장(2013)은 화포천습지생태 공원의 계절·연령별 체험 프로그램과 높은 교육 참여율을 세계적으로 드문 성공모델로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화포천습지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복원과 보전이 결합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생태 체험·교육 모델임을 잘 보여줍니다.

나아가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해외 습지도시와의 교류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공동 모니터링·서식지 관리·관광 콘텐츠 개발 등 국제 협력의 파급효과가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된 하천형 습지를 장기 모니터링과 과학적 복원사업으로 되살린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주민·행정·시민단체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확보하고, 갈등 조정과 공동 목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생태공원·탐방로·생태학습관 등 생활권 내 녹색 인프라를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관광·친환경 농업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독수리 먹이 주기와 황새 인공부화 등 국제멸종위기종 보전 성과를 거두어 생물다양성 회복에 이바지 하였으며, 2025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통해 국제적 위상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복원과 보전이 결합된 통합 모델로서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를 창출했고, 향후 국제 협력과 공동 연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확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화포천습지 보전사업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훼손지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병행하는 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탐방객 편의와 교육·체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훼손 구역의 서식환경을 복원하고, 추가적인 수변 식생대 조성, 관찰데크·탐방로 확장, 환경교육장 보완 등 생태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화포천습지를 람사르습지로 공식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호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협력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정 이후에는 거버넌스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해 사업 완료 후에도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화포천습지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보전되고, 국내외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우수상

[환경부장관상]

기업

08

특수교육 숲케어 지원
프로젝트 "포용의 숲"

국립청도 숲체원

특수교육 숲케어 지원 프로젝트 "포용의 숲"

국립청도 숲체원

국립청도숲체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소속기관으로 영남권역에 산림교육·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형 산림복지시설이다. “국민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특수교원을 위한 “포용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수분야 숲교육 협의체’로 장애아동에게 숲체험의 기회를

국립청도숲체원은 장애아동의 산림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K-PACE센터, 메아리학교, 양산희망학교 등 특수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특수분야 숲교육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협의체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협업하여 장애유형별 발달 특성에 따라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8종을 개발·고도화하였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 내용,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개선했다.

숲을 구성하는 자연물을 재료로 특수아동의 언어능력, 자기표현력 등을 증진시키는 숙박형·당일형·학교 방문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감각·운동 중심 활동부터 자연물 기반 창작 활동까지 장애아동의 참여 특성에 적합한 세부 콘텐츠가 마련되었다. 시범운영을 거쳐 '21년부터 지금까지 약 6000여 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발달장애 학생의 산림복지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 자기보고식 효과분석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언어 표현 증가, 정서

안정, 문제행동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양산희망학교 학교숲 조성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획득하는 등 산림교육을 접목한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업하여 특수교원에게 숲의 회복력을

국립청도숲체원은 특수교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정서적 소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특수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기획하였다. 이 과정은 특수교육 전문기관과 국립청도숲체원이 가진 자원을 결합해 보다 구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연수는 2박3일 형태로, 장애아동 대상 산림교육의 효과 사례 이해 및 실습 등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산림교육 활동부터 해먹 풍욕, 명상 등 휴식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산림치유 활동까지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 만족도와 참여 교원의 사후 변화 분석에서는 정서적 회복감 증가, 수업 운영 자신감 향상, 특수학급·학교에서의 숲 활용도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2년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시작한 본 연수가 '23년 국립나주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 '24년 국립대전숲체원, '25년에는 국립장성숲체원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해가고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숲”을 향하여

장애아동에게 조금 더 친밀한 숲을 선물하고 특수교원에게 숲의 회복력과 에너지를 전달한 본 프로젝트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가치를 구현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장애아동의 학습권과 특수교원의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을 함께 확장하며 숲이 사회와 교육을 연결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자원이 되도록 꾸준히 힘을 보태고자 한다.

08 국립청도 숲체원

특수교육 숲케어 지원 프로젝트 "포용의 숲"

2021년 ~ 현재

요약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숲체험 기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발달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경험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청도숲체원은 '특수분야 숲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였다. 한편, 특수교원은 심리적 소진과 교권 침해 문제를 겪어왔다. 이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숲 기반 연수를 기획·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원 들이 자연

▼ 특수아동 숲체험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 '즐거운 숲'



▲ 특수교원 대상 산림치유 '자연스런 몸맘 스트레칭'

해소와 특수교원의 직무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함께 실현함으로써, 교육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산림복지 자원과 교육 전문성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국립청도숲체원은 모든 국민이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의 미션 달성을 위해 산림교육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함. 이에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숲체험 기회에서 배제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발달 특 성에 맞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산림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동시에,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특수교원의 심리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특수 교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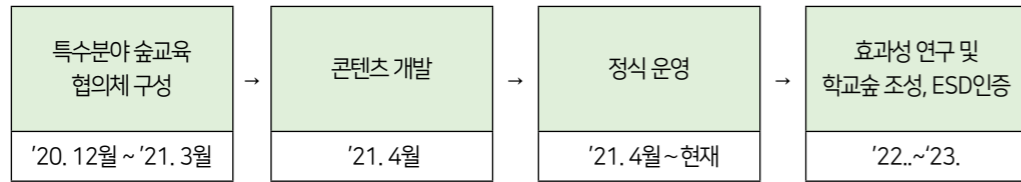
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접근성·안전성 부족 등으로 숲체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숲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더불어 장애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 속에서 이들을 위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 특수교원은 장애아동 교육 현장에서 잦은 교권 침해와 학부모와의 갈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누적, 심리적 소진을 겪음. 이는 교사의 전문성 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특수교원 이탈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특수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저감과 회복 탄력성 강화를 목표로 산림교육 기반의 심신 회복·재충전 연수를 기획함.

내용

1) 추진과정 및 방법

① (장애아동) 특수분야 숲교육협의체* 구성으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 특수분야 숲교육협의체: 국립청도숲체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K-PACE센터, 메아리학교, 양산희망학교



▣ (콘텐츠 개발) 특수아동 대상 산림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5개기관이 특수분야 숲교육 협의체 구성 및 MOU를 체결,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협업을 통해 특수아동에 적합한 3가지 산림교육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립청도 숲체원이 기 개발한 5가지 산림교육 단위 프로그램을 특수아동에 맞게 보완·개선함.

- 공통주제 :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숲을 구성하는 자연물을 재료로 한 체험 및 공예활동을 통해 숲의 다양성을 이해시키고 특수아동 언어능력 및 자기표현력, 자연 친화력을 증진시키는 체험형 산림교육
- 추진절차 :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진행
 - 특수학교 대상 상시 모집, 안내공문 발송 → 신청공문 접수, 일정 협의 → 교육 진행
- 운영방법 : 신청기관의 선호유형에 따라 숙박형, 당일형, 방문형으로 운영
 - (숙박형) 1박2일 또는 2박3일 형태로 국립청도숲체원 내에서 숙박하는 프로그램
 - (당일형) 오전 또는 오후에 입소하여 프로그램 체험 후 당일 퇴소하는 프로그램
 - (방문형) 강사가 특수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당일형 프로그램
- 지원사항 : 장애아동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차량 이동 비용 지원

▣ (콘텐츠 운영) 기획 회의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양산희망학교 특수아동 74명을 대상으로 운영 후 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보완·개선함. 시범운영을 토대로 '21년 5월부터 정식 진행하여 '21년 542명(19회)의 특수아동에게 산림교육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운영하여, '22년 1,527명, '23년 1,557명, '24년 1,826명 특수아동 대상 캠프를 운영함.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프로그램명 | 대상 | 내용 |
|------------|---------|---|
| 숲노리 자연노리 | 지적장애 아동 | 나뭇잎, 돌멩이 등 자연물 놀이를 통해 숲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기표현력을 키워보는 실외놀이형 산림교육 |
| 정다운 나무친구 | | 나무퍼즐 교구를 활용한 나무 꾸며보기 활동으로 계절에 따른 색깔 변화를 알아보는 실내놀이형 프로그램 |
| 쫄쫄물 지점도 공예 | | 흙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지점도를 활용해 컵받침 등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실내공예 프로그램 |
| 즐거운 숲 | | 자연물을 활용한 협동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실외 숲체험 프로그램 |
| 나무인형 만들기 | | 나무인형 만들기 나무인형을 직접 꾸며보고 목재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는 목공 프로그램 |
| 우드컬러링 | | 목공예에 컬러링 테라피를 접목시켜 나만의 액자를 만들어보는 목공 프로그램 |
| 뚝뚝뚝 뱀비받침 | | 뱀비받침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목공 기초능력 향상 및 나무와 목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목공 프로그램 |
| 숲&JOY | 발달장애 아동 | 숲의 여러 환경요소를 관찰, 놀이, 휴식활동을 통해 체험하며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숲체험 프로그램 |

▣ (효과성 연구) 발달장애 학생 대상 산림복지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자기보고식 효과분석 도구를 개발함. 어휘, 구문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각 10개씩 30문항을 그림과 함께 개발했으며 효과분석 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사를 분야별 전문가 10명 자문을 통해 검증했음. 개발된 효과분석 도구 및 조사방법의 현장 실효성 검증을 진행했으며 실험군·대조군 각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분석을 진행해 실험군의 언어능력이 평균 15% 향상됨(실험군 : 어휘14.66%, 구문 17.81%, 의사소통 12.16%, 대조군 : 어휘 5.35%, 구문 4.6%, 의사소통4.2%)을 확인함. 더불어 장애아동 대상 프로그램 운영 후 인솔 교사를 통하여 문제행동의 감소를 확인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연구개발센터 자료에 따르면, 문제행동(외재화된 문제행동, 내재화된 문제행동), 과잉행동에 대한 인솔자의 점수가 참여 전 8.64점에서 참여 후 7.29점으로 1.35점 낮아진 효과를 보임.

▣ (인솔 교사 만족도) 4회 이상 회기형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교의 인솔교사들은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평균 30% 이상 감소하고 과잉행동 빈도도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됨. 정서적 안정과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교실 적응력도 개선되었음. 인솔 교사들은 “숲에 다녀온 뒤 아이들이 한결 차분해졌다”, “서로 도우려는 모습이 부쩍 늘었다”,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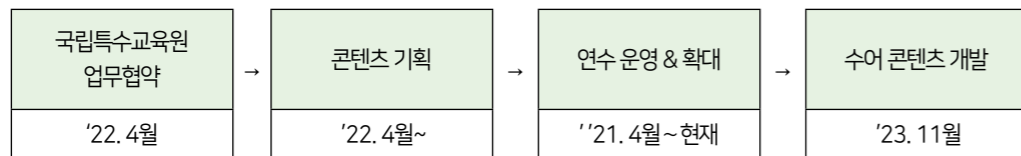
생활에서도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등 구체적인 변화를 언급함. 이러한 반응은 산림교육이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장애아동의 정서·행동 발달과 사회성 증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적 장치임을 보여줌.

▣ (학교숲 조성 지원) 특수학교 양산희망학교 지체장애 아동을 위해 학교숲 조성 컨설팅을 실시하여 '희망학교 꿈길'을 조성, 전교생 300명이 누구나 쉽게 숲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SD 인증) 장애아동 숲체험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과 연계한 특화된 양질의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 '특수아동 숲케어 지원 프로젝트'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획득함.

② (특수교원)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심리안정 지원사업 기획 및 권역별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 우리나라 대표 특수교육 국가기관으로 특수교사 연수 과정 총괄



▣ (콘텐츠 개발)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2. 4. 27.)하여 특수아동뿐만 아니라 특수분야 종사자까지 사업을 확대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산림교육 저변 확대와 특수아동 대상 산림교육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교원 대상 산림교육연수 '숲 안에 교실'을 공동 기획,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이론 및 실습을 통해 특수교원의 역량 강화와 특수아동의 산림교육 활성화에 도모하였음.

- 공통주제 : 특수교원 심리안정 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 추진절차 :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진행



▲ 특수교원 직무연수 '숲 안에 교실' 단체사진



▲ 특수교원 대상 산림치유 '밧줄과 해먹'

· 특수학교 대상 안내공문 발송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정보시스템 접수 → 교육 진행

- 운영방법 : 신청기관의 선호유형에 따라 숙박형, 당일형, 방문형으로 운영

· (숙박형) 2박3일 형태로 국립청도숲체원 내에서 숙박하는 프로그램

- 지원사항: 특수교원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비용 지원

▣ (콘텐츠 운영) 국립청도숲체원의 특수교사 대상 연수 수요조사 진행에서 응답자 86%가 산림체험 연수과정을 희망함에 따라 '22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과 연계하여 연수를 정식 진행하였음. '22년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총 4회, 175명을 시작으로 '23년 국립청도숲체원, 국립나주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으로 확대하여 총 6회, 341명, '24년에는 국립대전숲체원까지 더하여 총 11회, 66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음. '25년에는 국립장성숲체원이 추가되어 전국 총 5개소의 숲체원에서 총 11회, 615명을 대상으로 추진됨.

| 프로그램명 | 대상 | 내 용 |
|-----------------|----------------|---|
| 특수교육 - 산림교육의 효과 | 전국 특수 교원 | 장애아동 대상 산림교육의 효과 사례 이해 및 장애 아동 대상 숲놀이 실습 |
| 숲노리 자연노리 | | 나뭇잎, 돌멩이 등 자연물 놀이를 통해 숲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기표현력을 키워보는 실외놀이형 산림교육 |
| 밧줄과 해먹 | | 매듭법을 알아보고 직접 나무에 해먹을 설치해 풍경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산림치유 활동 |
| 건강 숲, 내음 | | 명상, 바디스캔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고 편백구슬을 활용한 베개를 만드는 산림치유 활동 |
| 우드 빵도마 | | 장애아동 대상 목재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빵도마를 제작하는 목공예를 체험하는 산림교육 활동 |
| 버드나무숲 | | 새소리 듣기, 새 관찰 등을 통해 새에 대해 알아보고 새 관찰이 주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산림교육 활동 |

*프로그램은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수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평균 4.9점(5점 만점)을 기록함. 응답자의 98%가 '숲에서의 심리적 회복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97%가 '산림교육을 현장 수업에 적용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함. 연수가 스트레스 완화와 전문성 향상을 동시에 충족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 구분 | 주요 내용 |
|----------|---|
| 프로그램 | -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 좋고 알차으며 강사가 전문적이었음 - 프로그램이 특수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습을 통하여 교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점이 돋보임 - 수어 숲해설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이 숲체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쓴다는 것을 알게 됨 - 목공 프로그램이 실용적이고 장애아동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 좋았음 |
| 심리적 회복 | - 숲속에서 2박 3일간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지내며 충분한 휴식을 경험하고 감 - 직무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었는데 숲체원을 하고 나니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날 용기가 생김 - 스스로가 존중받을 가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숲의 회복력 덕분에 깨닫게 됨 - 숲을 좋아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숲에 관심이 생기고 교사들이 치유를 얻게 됨 |
| 친절도 & 시설 | - 친절한 숲체원 직원들 덕분에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을 만들었음 - 숲체원에서 울산역까지 왕복 차량지원을 해주셔서 감동했음 - 몸과 마음에 휴식을 찾고 재충전하기에 좋은 시설이었음 - '무장애 데크로드'처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임 |

▣ (수어 콘텐츠) 국립특수교육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숲해설 콘텐츠를 개발함. 국립청도숲체원 내 무장애 데크로드에 설치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수어 영상과 함께 음성·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어 다양한 감각으로 숲 해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숲 체험을 즐기며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 산림교육 환경을 조성함.

2) 주요 특징

▣ 의의 : 두 프로젝트 모두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높은 만족도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을 의미함. 장애아동의 발달·정서 지원과 특수교원의 심리 안정·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복합적 교육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함.

▣ 특수아동의 숲체험을 위한 무장애나눔길 1km를 국립청도숲체원 내 조성 : '20. 12월~'21.3월까지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수아동 대상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도숲체원 내 장애인이 숲체험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도숲체원을 이를 수용하여 '21. 4월~8월까지 경사도 8.33% 이내의 무장애데크로드를 조성(사업비 770백만원; 녹색자금)하여 특수아동에 특화된 산림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함.

▣ 교통비를 포함한 교육운영비 등의 재정적 지원(복권기금=녹색자금) : 산림교육에서 소외된 특수아동이 더 많이 본 프로젝트를 통해 양질의 산림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3)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 구분 | 기관명 | 특성 | 주요 역할 |
|-------|----------------|--------------|--|
| 장애 아동 | 국립청도숲체원 | 국가산림교육센터 | ·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총괄 운영, 운영비 제공 |
| | 대구대학교특수교육과 | 학계·전문가 | · 특수교육-산림교육 융합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시 |
| | 대구대학교 K-PACE센터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 | · 발달장애인(전공과)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운영 방식 제시, 수혜자 측면 개선·보완 |
| | 울산 메리학교 특수학교 | 특수학교 | · 중복장애(지적·지체) 및 고등부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운영방식 제시, 수혜자 측면 개선·보완 |
| 특수 교원 |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 전문기관 | · 지적장애 및 초·중등부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운영방식 제시, 수혜자 측면 개선·보완 |
| | | | · 특수교사 연수 과정 추진 방향 제시 및 총괄 기획 · 연수 참가자 모집 및 교육 이수 행정 처리 · 특수아동 및 교원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자문 · 국립청도숲체원 내부 직원 대상 특수분야 역량 강화 교육 · 국립청도숲체원 내 수어 숲해설 콘텐츠 제작 지원 |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K-SDGs의 3번, 4번, 10번, 13번, 15번 목표 이행에 기여함.

| K-SDGs 목표번호 | 목표명 | 기여 근거 |
|-------------|---------------|--|
| 3번 |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장애아동과 특수교원이 숲에서 신체 활동과 심리적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함. 정서 안정, 스트레스 완화, 회복 탄력성 향상을 지원함. |
| 4번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장애아동과 특수교원의 자존감 회복 및 소통·공감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함.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산림교육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과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함. |
| 10번 |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 숲체험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아동에게 동등한 숲체험 기회를 제공함. 장애유무와 관계 없이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

| | | |
|-----|----------|---|
| 13번 | 기후변화와 대응 | 산림교육과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학습하게 함. 교사와 학생 모두가 환경친화적 생활습관과 기후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함. |
| 15번 | 육상생태계 보전 | 숲의 가치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지속가능한 숲 이용과 관리 방법을 경험적으로 익히도록 함. |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경상도 지역의 특수아동 대상 산림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관계지역의 핵심 관계자(대구, 울산, 청도, 양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경상권역을 전담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25년 현재까지 프로젝트 운영 결과 대구, 울산, 청도군 등의 특수학교 17개소 6,31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지역 특수아동에게 산림교육의 기회를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례로 평가함.
- 특수교원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력사업으로 발전하여, 국립청도숲체원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국립나주·춘천·대전·장성숲체원까지 총 5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었음.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원들이 근무지에서 가까운 숲체원에서 참여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연수 운영을 정례화하여 지역 단위 교육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음. 5개 숲체원에서 진행된 연수에는 누적 1,200여 명의 특수교원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전국 여러 시·도의 교육 현장에서 산림교육을 적용하는 사례가 확산됨.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본 프로젝트는 장애아동과 특수교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교육'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가치를 구현함. 국립청도숲체원을 중심으로 대학, 특수학교,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교육기관·산림복지 자원의 연계를 활성화함.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특수교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복지 모델을 제시하고, 교육·복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사례로 확산함.



▲ 국립특수교육원 연계 수어 숲해설 제작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장애아동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22년부터 교육부-산림청 정책사업인 '정다운 숲교실'과 연계하여 운영해 왔으며, 매년 전 소속기관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해당프로그램은 단일 연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를 확보함. 특수교원 연수는 지속가능한 장애아동과 특수교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2년 국립특수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25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프로젝트 주관을 본원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게 되었음. 이를 통해 국립특수교육원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으로 전 소속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두 사업 모두 정책·제도적 뒷받침과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우수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상]

단체

09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 실천 사례

- '한(憫) 끼의 품격' 과
'홈스위트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 실천 사례 - '한(憫) 끼의 품격'과 '홈 스위트홈' 중심으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식생활 빈곤을 줄이기 위한 작은 '한 끼'가 만들어낸 변화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만난 많은 저소득 한부모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공통된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과 가사·양육 겹치면 식사는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었고, 특히 아이가 혼자 식사해야 하는 상황은 부모에게 큰 불안을 남겼다. 제도가 존재해도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신청 순간의 낙인감 때문에 지원까지 닿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이가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간편한 식사 지원이었다. 이렇게 (주)코리아세븐과 협력해 '한(憫)끼의 품격'이 시작되었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부모와 아이 모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장벽이 나타났다. 상품권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을 남긴 채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부모들은 “혹시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사람 많은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는게 불편하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지원의 취지가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또 다른 장벽과 마주한 한부모들

센터는 이 문제가 단순히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이 일상에서 경험해온 심리적·사회적 장벽이 드러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에 (주)코리아세븐과 논의하여 미사용된

1,500원 이상 잔액에 대해 새로운 사용기간을 부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작은 제도 개선이었지만, 한부모들은 “남겨둔 금액을 천천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된 점이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이 비대면으로 전달되다 보니, 많은 한부모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센터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고,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조차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부모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센터는 '한(憫)끼의 품격' 이용자를 센터로 직접 초대해 정책 안내와 상담, 신청을 돕는 '홈 스위트홈'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했다. 방문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한부모들은 직원의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한부모 당사자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전하였다. 서로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경험은 방문한 한부모뿐만 아니라 참여한 직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되었고, 센터가 한부모에게 편안한 소속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수급자'에서 '소비자 시민'으로 성장하게 한 '한(憫)끼의 품격'과 '홈 스위트홈'

작은 한 끼를 매개로 한부모들이 지원의 대상에서, 서비스를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선다. 도움을 기다리는 위치에서 벗어나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를 표현하며, 사회적 자원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쌓이면서 한부모들은 '지원 받는 사람'을 넘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소비자 시민으로 성장하게 했다.

이 협력 구조는 한부모가족이 가진 심리적 장벽을 낮추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며 실질적인 책임의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작은 한 끼에서 시작된 선택의 경험은 앞으로 한부모가족이 자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09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 실천 사례 - '한(憫) 끼의 품격'과 '홈 스위트홈'을 중심으로-

2022. 6. ~ 2025. 08.

요약

본 사례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서울특별시, (주)코리아세븐, 롯데e커머스, 서울한부모회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 짐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긴박한 생활(수요)이 정책과 연결되지 못하여 행정처의 노력(공급)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함

○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돌봄공백 상태인 자녀의 식생활문제 개선을 (주)코리아세븐과 연계하여 식품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한(憫) 끼의 품격' 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침

▼ 서울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 사업시행 후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어진 상품권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소진 이유 중의 하나가 한부모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낙인감이라는 사실을 발견
- 후원처와 긴밀한 협력회의를 통해 미소진 상품권을 소급하여 소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일대일로 맞춤형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홈 스위트홈' 사업을 후속으로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중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정책 사각지대 현황

-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1인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평균 자녀 수가 1.5명으로 일반 가정(0.6명)보다 많음. 돌봄 성인이 한 명 부족하지만 아이 수가 더 많아 1인이 경제활동, 집안일,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함.
- 특히 저소득 한부모는 어려움이 심각하며, 국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수준으로 제한적임.

■ 한부모가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 서울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한부모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더하여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대상자부터 100%, 120%, 180%까지 대상자 층을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함.
- 서울시의 2만4천여 저소득한부모가구는 어떠한 소득구간의 사업에서도 신청만 하면 우선 순위 지원로 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참여율은 낮으며, 해마다 연말연초에 등장하는 정책사각지대의 심각성은 주로 저소득한부모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이들을 정책지원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저소득한부모의 사업신청 및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원제도가 한부모들이 활용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그의 실천경험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는가?

- 저소득한부모가구 대상의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문제의 원인 파악
- 제도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우며, 경제활동·가사·양육으로 심신이 지쳐 관심이나 접근 여력이 부족함.
- 이혼·사별 등의 충격으로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음.

첫째, 저소득한부모가구에 꼭 필요한 절실한 마중물 사업의 개발 필요

-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자녀 혼자 있을 때 식 사제공 서비스가 가장 필요. 매슬로우 욕구 이론상 식사는 생리적·안전 욕구와 직결되며, 돌봄 공백 시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예:2020년 인천 중화상 사건).

둘째, 몰라서 못받는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대안 탐색

- 맞춤형 홍보 활성화: 주민센터 활용, 유관지원 접근 강화.
- 일반인 대상 홍보: 힘 없는 한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한부모에게 정책 접근 시간 단축 효과

셋째, 신청을 못하거나 증빙서류 준비를 못하는 한부모의 어려움 해결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정책이나 지원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
- 신청이 어려운 한부모에게 신청방법 알려주고 함께 신청하기

내용

1) 추진과정

저소득한부모를 흡입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개발

- 2022년 6월, 9월 (주)코리아세븐 후원 협력회의를 통해 저소득 식생활관련 중요성을 어필하여 한부모 한끼 충전 사업 지원
- 2023년 4월 저소득한부모 한끼 충전 사업명칭 공모 =>“한(欄)끼의 품격”탄생



- 2023년 5월 “한(欄)끼의 품격”등 후원 협약 한끼의 품격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한 부모 111가구에 7만원을 모바일 푸드상품권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단 한 번을 사용하더라도 걱정없이 즐기며 드시라는 의미 에서 즐길 한(欄)과 품격을 결합하여 만들어짐. 사용기한은 연말까지
- 2023년 5월“한(欄)끼의 품격”사업 시작
- 2023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11명에게 7만원 권 지원 (총 3,108가구에 지원)



몰라서 못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홍보

-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저소득맞춤형홍보 몰라서 못받는 한부모가족이 없도록 홍보문구로 만들어 홍보 도구로 활용. 배너, 포스터 등 제작하여 상시비치, 외부행사에 비치, 후원처행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하게 노출함
- 저소득한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한부모 수급관리를 하는 427개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홍보
- 2023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 홍보 한부모포함,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홍보를 위해 누구에게나 노출이 되는 장소로 지하철 역사를 활용함.



- 2024년부터 현재까지 (주)코리아세븐의 점포 세븐일레븐의 결제기기인 포스기 화면에 센터와 센터사업 노출
- 2025년 4월,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공모사업에 선정, 내년 3월까지 가판대, 구수대, 전동차 면에 홍보 진행



▣ 저소득한부모와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친밀해지기 위한 노력

- 매년 '한(憫)끼의 품격' 사용자 대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모바일 상품권 7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사용 가능한 상품 부족, 방문 부담, 한부모 신분 노출 우려, 근처 세븐일레븐 부재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 사항 도출

① 한끼의 품격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여 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부모에게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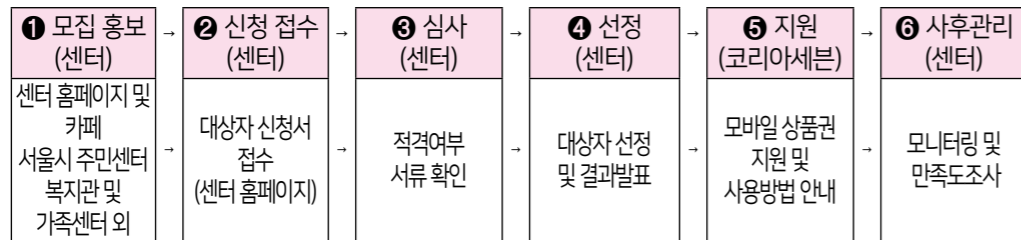
②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나 되며, 후원으로 약정한 후원금액은 실사용금액인지, 충전한 액면가인지에 대한 확인 필요

| 월별 구분 이용률 현황 (25.1월말 기준) | | | | | | | | | | | | | |
|--------------------------|--------|----|----|----|-------|--------|-------|-------|-------|-------|-------|-------|--------|
| 구분 | 25년 1월 | | | | | 25년 2월 | | | | | 비고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
| 발행금액 | | | |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8,944 |
| 사용금액 | | | | | 7,891 | 7,891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1,754 |
| 잔액 | | | |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46.7 |
| 잔액비율 | | | | | 0.28% | 0.28% | 0.29% | 0.29% | 0.29% | 0.29% | 0.29% | 0.29% | 0.16% |

| 월별 구분 이용률 현황 (25.1월말 기준) | | | | | | | | | | | | | |
|--------------------------|--------|-------|-------|-------|-------|--------|-------|-------|-------|-------|-------|-------|--------|
| 구분 | 25년 1월 | | | | | 25년 2월 | | | | | 비고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
| 발행금액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776 | 28,944 |
| 사용금액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264 | 81,754 |
| 잔액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288.5 | 46.7 |
| 잔액비율 | 0.28% | 0.28% | 0.29% | 0.29% | 0.29% | 0.29% | 0.29% | 0.29% | 0.29% | 0.29% | 0.29% | 0.29% | 0.16% |

2) 추진방법

▣ 저소득한부모를 흡입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 : "한(憫)끼의 품격"



- 2023년 5월 사업홍보 시작
- 매월 7만원권을 111명에게 지원, 적격 확인 후 순차 지원 구조임. 2023년 5~12월 888명, 2024년 1322명, 2025년 8월 현재 888명 지원
- 2023년 12월 만족도 조사 실시, 2024년에는 설문지를 고도화해 상·하반기 조사 진행
- 조사결과 신청경로는 공공·복지기관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 의미 인지도는 51%, '한끼의 품격' 취지대로 사용은 87%가 긍정 응답함. 사용품목은 김밥·도시락류 73%, 햄버거·샌드위치류 14%, 라면류 10% 순. 응답자의 84%가 전반적으로 만족, 자녀가 원하는 편의점 음식을 살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 다수
- 불편·미사용 문제는 (주)코리아세븐과 협력회의(센터-코리아세븐-롯데커머스)를 통해 개선
- 2023~2024년 미소진 금액 중 1,500원 이상 남은 경우 2025년 말까지 사용 가능토록 조치. 미소진자 대상 문자 발송 독려, 충전비는 (주)코리아세븐 부담

▣ 몰라서 못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홍보

- 2022년 5월부터 센터 홍보용 배너 제작·활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주민센터 대상, 수급자 담당자에게 리플릿 배포 및 홍보 공문 발송
- 2023년부터 지하철 역사 포스터 부착을 통한 일반인 홍보 진행
 - 2024년: 서울교통공사 공문 발송 → 1~8호선 266곳, 4주간 노출
 - 서울시 메트로 공문 발송 → 9호선 25곳, 4주간 노출
- 전국 세븐일레븐 POS 약 12,000대에 센터 및 사업 홍보, (주)코리아세븐과 기획회의 진행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2025년 4월 시민개방 공모 참여, 4월 22일 선정 → 홍보디자인요청·업체 선정(기발한 녀석들) 후 디자인 결정
 - => 홍보 개시: 2025년 9월~2026년 2월까지 780곳 노출 예정

▣ **홈스위트홈 사업의 개발 및 시행**

- 홈스위트홈 사업은 연초 사업계획외에 한끼의 품격을 시행하면서 필요에 의해 신규 개발된 사업으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알리고 방문하도록 하여 소속감도 고취하고 몰랐던 사업을 직접 듣고 신청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됨
- 한끼의 품격을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직접 전화하여 방문하도록 함 전화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있는지도 몰랐던 분도 있었으며, 방문하기까지 마음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전화통화를 통해 실무자들도 깨닫게 되는 기회였음
- 센터는 3월부터 6월까지 월2회, 총 8회의 홈커밍데이인 홈스위트홈을 운영함 미리 신청을 받고 참석을 하면 이들을 위한 사전 조사지를 작성하도록 함 센터장은 필수 참석하여 이들을 맞이하고 실무자가 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각 참여자 별로 각자가 경험한 센터의 사업을 이야기하고 맞춤형으로 사업을 선택하게 함
- 이 과정에서 한부모당사자 대표가 '나도 한부모다'로 시작하여 그들의 표현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함
- 사업과 연계하여 권리를 누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업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주요 특징**

▣ **저소득한부모를 흡입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 : “한(憫)끼의 품격”**

- 아무리 빈곤한 부모라도 자녀를 굶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7만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설계됨. 일반인도 사용하는 상품권을 제공해 낙인감을 줄였으며, 명칭에 담긴 뜻처럼 실제 취지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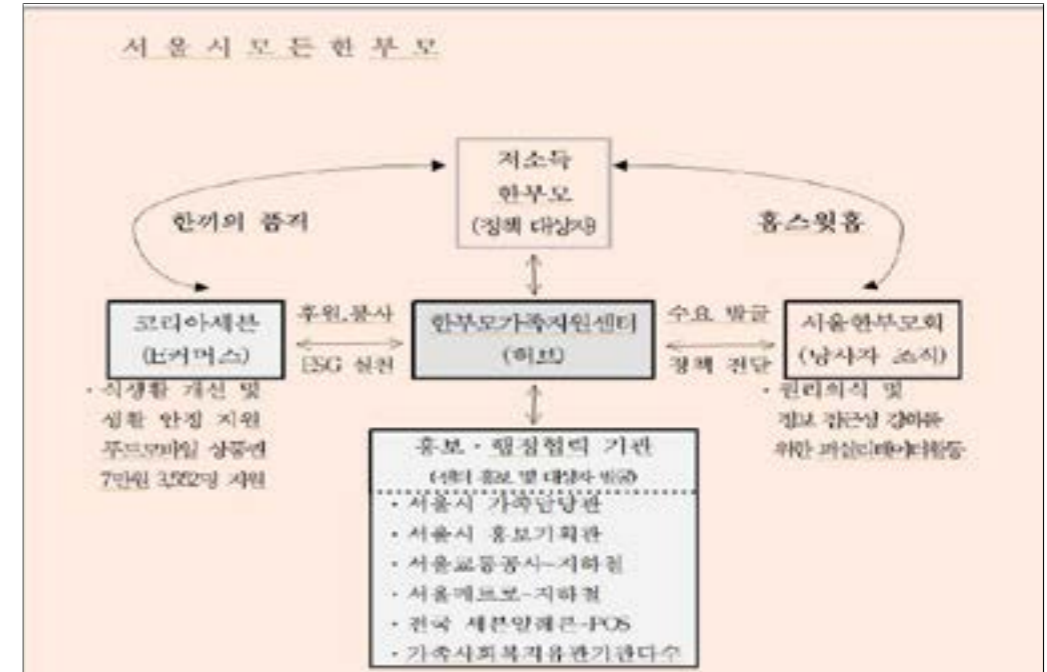
▣ **몰라서 못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홍보**

- 한부모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센터가 전달자 역할을 수행함. 포스터·리플렛·배너 제작으로 센터와 유관기관 행사에 활용했고, 맞춤형 홍보와 보편적홍보로 구분하여 시행함.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맞춤형 홍보와, 지하철 역사·세븐일레븐 POS 송출을 통한 일반 홍보로 노출을 극대화함
- ▣ **센터 방문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홈스위트홈”**
- 일부는 상품권 사용 시 한부모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했기에, 단순 지원을 넘어 권리 선택과 자기옹호를 경험하는 교육·인식개선의 장으로 개발됨. 한부모 대표가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며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는 과정에서 참여자와 실무자 모두 성취감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음.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 **주 사업 거버넌스 기관**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 | |
|--|--|---|
|   | 빈곤해소를 위한 식생활지원 | - (주)코리아세븐과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SDGs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 자사에서 실행 가능한 식품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지원하여식사 지원 |
|  | '2023년 5월 "한끼의 품격"협약 및 사업 개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 '한끼의 품격'경험자들은 '식사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됨', '평상시 금액대가 있어서 선뜻 구매하기 어려웠던 식품을 구매해서 먹어볼 수 있는 기회', '가족·지인들과 즐거운 한 끼를 즐김' 등의 후기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함 |
|  | 일반 시민 대상 한부모 인식개선 및 한부모 권익증진 도모 | - 세븐일레븐 POS기 및 지하철, 서울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이해자료 노출을 통해 일반 시민의 한부모 인식개선 및 민감도 향상 - '홈 스위트 홈'을 통한 '한끼의 품격' 사업에 대한 취지와 2025년 변경된 한부모가족 정책 소개를 통해 한부모 당사자들의 인식 및 권리 확대 |
|  |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 -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일반 쿠폰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이용기한을 연장해 편의를 높임. |
|  | 지속가능한 소비방식 유도 | - 생산: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 소비: 대상자 신청,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 사용, 사업경험 - 한끼의 품격과 홈스위트홈 사업을 개발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 관계자들을 참여 시켜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구성함 |
|  | 사업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 -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센터와 기업이 노력하여 미사용 금액에 대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사례를 통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정의를 실현함 |
|  | 지속발전 가능한 파트너십 | - SDGs 실천을 위해 기업과 센터 업무협약 진행, 파트너십으로 사업 운영. 기업 협업과 한부모 참여로 거버넌스 구축, 저소득 한부모 지원과 정책·사업 효과성 강화. |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 '한끼의 품격'이용자의 data base 구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수혜 기회 확장
- ▣ 한부모가족 당사자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상호이해도 및 상생구도로 관계발전
- ▣ (주)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 롯데이커머스와 거버넌스 구축 : 협력회의, 기획회의
- ▣ 지역의 통합사례회의 등 한부모관련 사례 발생 시 우리 센터로 협조 요청 활성화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구분 | 문제점 및 초기 상황 | 개선 및 현재 상황 |
|----------|--|---|
| 사업의 지속성 | 후원금 영수증 발행 오류로 인한 재정적 투명성 부족, 장기적 후원 유지의 불확실성 | 문제 해결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 기업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공고화 |
| 이용자 만족도 | 쿠폰 사용 시 심리적 낙인감 발생, 사용 기한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 사용 기한 연장 및 심리적 배려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및 사업 참여율 증대 |
| 사회적 가치 |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 그침, 사업의 잠재적 문제점 인지 부족 |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 사회적 혁신과 진정한 가치 창출 모델 제시 |
| 거버넌스 | 사업 초기 단계의 기본적인 협업 (자원 제공, 유통망 활용) |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이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추가된 강화된 거버넌스 구축 |
| SDGs 연관성 | SDG 1 (빈곤), SDG 2 (기아) 등 물질적 지원과 관련된 목표에 주로 국한 | SDG 16 (제도적 투명성), SDG 17 (파트너십) 등 사업의 질적 성장에 관련된 목표로 확장 |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구분 | 초기 단계 | 문제 해결 이후 |
|---------|--|--|
| 재정적 지속성 | 기업의 단순한 후원에 의존, 사업의 재정적 투명성 이슈로 인해 후원 지속 여부가 불확실했음 | 후원금 영수증 문제 해결로 재정적 투명성 확보, 기업의 신뢰를 얻어 장기적인 후원 파트너십 구축 |
| 운영적 지속성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경험이 부족했음 | 문제 해결 능력을 입증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사업의 운영 효율성 및 내재적 역량을 강화함 |
| 사회적 지속성 | 수혜자에게 물질적 지원만 제공, 이용자의 심리적 불편함(낙인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 | 이용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필요성을 강화함 |



우수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단체

10

의회 · 행정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 !」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 · 행정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작 — 첫 동행

시작은 2021년 어느 봄날, 작은 회의실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전쟁과 불평등,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던 시기였다. UN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인류의 공동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과연 이 목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날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답을 안양에서부터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리 손으로 시민과 함께 SDGs를 알리고,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해보자.” 그 결심이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의 첫 문장이 되었다.

2021년 6월, 첫 SDGs 홍보위원 1기 양성이 시작되어, 22명으로 출발했지만 의회와 행정이 빠르게 함께했고, 같은 해 가을에는 110개 부서·1,700명의 공무원이 SDGs 교육에 참여했다.

11월 12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SDGs 시민홍보 출범식’은 안양이 가야 할 방향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17개의 목표 블록을 하나씩 들고 구호를 외치는 홍보위원들의 모습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언하는 장면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안양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확산 — 학교·거리·도시 전체로

2022년, ‘찾아가는 SDGs 실천학교’가 본격 운영되면서 SDGs는 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대학교로 빠르게 퍼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행동을 적어보고, 게임을 통해

탄소중립과 세계시민 개념을 배웠다. 협의회가 만든 주사위 보드게임은 경기도환경교구대회 우수상으로 교육의 신뢰를 인정받았다. 교육은 세대와 공간을 넘어 유아·청소년·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각종 행사장의 체험부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버스·정류장·공사장 가림막 등 도시 곳곳에서 SDGs가 시민을 만났다.

협력 — 안양을 넘어 전국으로

SDGs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협의회는 9개 시·군의 요청에 응답했고, 13개 학교와 6개 기관에서 2,290명 이상에게 교육을 전했다. 특히 (사)미래희망기구와 협업한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봉사 및 캠페인은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국제협력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활동이었다.

안양은 교육·실천·홍보·협업을 모두 수행하는 SDGs 확산 모델 도시로 자리 잡았다.

결정 — 안양형 SDGs 탄생

2024년 3월 26일, 시민참여 과정을 거쳐 ‘안양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안양은 지속가능발전을 말하는 도시를 넘어 실천하는 도시로 공식 선언한 것이다.

정책·교육·홍보·협치가 SDGs라는 하나의 축으로 정렬되는 순간이었다.

의미 — 한 사람, 한 도시, 한 나라로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는 작은 행동이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다.

아이에게는 첫 기후행동을, 학생에게는 가치 있는 선택의 이유를,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배움을, 시민에게는 일상 속 실천의 즐거움을 남겼다. 그리고 5년의 여정은 이제 안양을 넘어 다른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끝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라고 위원들은 말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학교에서, 거리에서, 버스에서 SDGs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안양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움직이는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다.

10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 · 행정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 !」

2021. 5월 ~ 계속

요약

2021년 5월 시의원, 행정, 위원 등의 운영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SDGs 활동'이 필요함을 인지, 'SDGs 홍보위원(22명, 현재 4기까지 69명)'을 양성하였음.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고·대학 학생과 어 린이, 어르신, 일반시민 등 각각의 대상에 맞는 맞춤형 활동을 전개 이후 다른 지역 및 기관의 요청으로 서울, 인천, 양평, 과천, 인천 등에서도 SDGs 시민교육, 탄소중립·생태전환 교육 및 실천활동을 계속 특히 일상 속에서 시민들에게 SDGs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버스 광고, 공사장 가림막 뒀스, 승강기 타운보드, 시홈페이지 배너·알림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실질적 SDGs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모든 지역과 연계하여, 함께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목적/배경

① 필요성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전 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UN에서 합의한 글로벌 공동목표임.
-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 수십억명의 인구가 빈곤하고 국가 내(또는 국가 간) 불평등은 고조되고 있고, 빈부, 기회, 권력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한 상태

- SDGs는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 한 사람 ·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전 세계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갈 수가 있음
- 따라서 안양시는 안양시의회, 안양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대학 등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안양'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구적 발전을위해 함께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실천

② 어떻게 시작했는가?

- 첫 시작은 2021년 5월 운영위원회2)에서 SDGs 교육 필요성을 인지, 6월부터 5주간에 걸쳐 SDGs 홍보위원 1기 22명을 양성하며 시작
 - * 현재 69명 : 2기 12명, 3기 12명, 4기 23명
- 2021년 9월, 안양시청 및 구청(주민센터 포함)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110개 부서 1,700여 명에게 SDGs 소개 및 이해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 2021년 11월, 'SDGs 시민홍보 출범식'을 시청앞 광장에서 안양시장, 시의장, 의회, 시민, 지속협 위원 들의 참석 하에 출범하였고
- 2022년 3월부터, '가치를 담대!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를 본격적으로 운영 하면서 안양시 관내 중·고·대학교와 지역아동센터·어린이 집, 어르신, 시민을 대상으로 SDGs를 알리고 실천
- 2024년 8월, 안양미래내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
- 다른지역 및 기관의 요청(9개 시·군)으로 (사)미래희망기구, 양평 및 시흥 청소년문화의집, 과천다함께돌봄센터 등과 협업하여 13개 학교, 6개 기관 31회에 걸쳐 2,290명의 학생들에게 SDGs 시민 교육, 탄소중립·생태전환 교육 활동을 지속
- 또한 2023년 6월, SDGs의 버스 광고 홍보를 시작으로, 공사장 가림막 뒀스, 시홈페이지 배너·알림, 영상홍보시스템, 승강기, 버스정류장 안내광고판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일상 속 시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전개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최종 문서에서는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미리정하여 새로운 목표가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하면서, 취약계층, 극빈층과 함께,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음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제적 합의는 되었지만, 이것이 달성되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저 말뿐인 공허한 약속이 될 것임

- 따라서 안양지속협의 목표인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작
- 시의회, 행정과 긴밀한 공조하에 학생, 어린이, 어르신, 행정, 일반시민 등에게 SDGs를 이해시키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면서, 2024년 3월 26일, '안양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과 다양한 협력과 협업
-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내용

1) 추진과정



2) 추진방법

① 시의회·행정과 협업,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SDGs 사업 구상 및 시행

▶ 운영위원회 운영 : 매월 1회 / 20명(의회 3, 행정 3, 협의회 14명)

- 내용 : 협의회 활동 지원, 사업안건 토의 및 심의

▶ 시의회·행정 협력사례

- 각종 행사시 참여 및 축하, 격려 * 2025 한마당 행사(25. 6. 6), 의원 16명 참여

| 구분 | 2025 정기총회 | 2025 한마당행사 | 2024 정기총회 | 2024 한마당행사 | 2023 어린이날 행사 |
|----------|-----------|------------|-----------|------------|--------------|
| 시장 | 축사(시장) | 축사(기·경제실장) | 축사(부시장) | 축사(기·경제실장) | 축사(시장) |
| 시의회 | 축사(의장) | 축사(총·경위원장) | 축사(영상) | 축사(보·환위원장) | 축사(의장) |
| 국회의원(3명) | 축사(2명) | 축사(2명) | 축사(2명) | 축사(2명) | 축사(3명) |
| 도의원(7명) | 2 | 2 | 3 | 2 | 4 |
| 시의원(20명) | 8 | 12 | 2 | 8 | 13 |



▲ < 2025 한마당행사 의원 참여('25. 6. 6.) >



▲ < 한마당행사, 민병덕 국회의원 패션쇼 동참 >

1단계(준비단계) : 홍보위원 양성, SDGs 홍보 준비

② 2021 ~ 2025년 SDGs 홍보위원 4기 기 양성과정 교육(2025년 현재 69명 활동)

▶ 4기 교육 : '25. 4. 16.(수) ~ 5. 9.(금) / 23명 양성



▲ < SDGs 홍보위원 4기 수료식('25. 5. 9.) >

③ 찾아가는 SDGs 안양시 공무원 교육(2021. 9. 1. ~ 10. 31.)

- ▶ 대상 : 안양시청, 동안· 만안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110개부서 1,700여명
- ▶ 방법 : 각 부서 방문 교육 및 홍보자료 배부(약 부서당 40분 소요)
- ▶ 내용 : SDGs 이해 및 행정기관 참여의 필요성 소개, 일상 속 실천방법 등 교육



▲ <시·구·주민센터 각 부서 방문 SDGs 홍보 및 교육>

④ SDGs 시민홍보 출범식

- ▶ 일자 / 장소 : 2021. 11. 12.(금) / 안양시청 앞 광장
- ▶ 참석 : 70여명(시장, 시의장, 시의원, 협의회 위원, 자전거동아리, 일반시민)
- ▶ 내용 : SDGs 홍보블록 17개를 홍보위원들이 하나씩 들고 실천구호 암송
 - '탄소중립 실천 자전거 동아리' 시청광장 순회 홍보, 시민들에게 SDGs 홍보

2단계(실천단계) : 'SDGs 이해 및 실천학교' 운영(학생, 아동, 어르신, 모든시민 대상)

⑤ 가보자 go! 찾아가는 SDGs 실천학교 운영(학생 대상)

- ▶ 대상 : 안양시 관내 중·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 ▶ 기간 / 강사 : 2022. 3월 ~ 현재 / 지속협 SDGs 홍보위원
- ▶ 내용 : 대면교육 : 2시간(이론교육 1시간, 실천교육 1시간)
 - SDGs 이론 및 실천교육(세계시민교육, 생태전환 교육, 탄소중립 교육 등)



▲ <SDGs 이론 교육>

▲ <보드게임 실습, 실천활동 작성>

▲ <SDGs 실천활동 발표>

* 'SDGs 주사위 보드게임'으로 2023 경기도환경교구대회, '우수상' 수상

- ▶ 실적 (붙임 #1, 2022 ~ 2025년(~ 8월), SDGs 실천학교 교육 현황)
 - 2025년(~ 8월) : 10개 학교, 5개 기관 29회, 2,555명 참여
 - 2024년 : 15개 학교, 6개 기관 58회, 6,691명 참여

⑥ 안양미리내 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교육청, 2000만원 사업)(학생 대상)

- ▶ 2025년 : 글로벌 에코리더 성장 프로젝트 탄소중립세상을 만드는 모의유엔총회
 - 8. 29. ~ 11. 28.(24차시) / 초 5학년 ~ 고 1학년, 2개반 31명 참여
- ▶ 2024년 : 지구와 함께 건강학교(환경교육 + 수영강습)
 - 7. 28. ~ 8. 5.(23차시) / 초등학교 3 ~ 6학년, 2개반 77명 참여
- ▶ 성과 (붙임 #2, 모의유엔총회 작성 결의안 ; 기후대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
 - SDGs에 대한 인식제고 및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환경의식 함양
 - 세계시민교육 및 탄소중립 모의유엔총회를 통한 글로벌 에코리더 육성



▲ <미리내 공유학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25. 8월.)>

⑦ 해양생태계 보호의 SDGs 그림자극 동화구연(GPGP섬에서 살아남기)(아동 대상)

- ▶ 대상 / 기간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집, 안양시민 / 2022. 6월 ~ 현재
- ▶ 실적 : 분기 1 ~ 2회 (붙임 #3, 2022 ~ 2025년(~ 8월), SDGs 그림자극 현황)
 - 2024년 : 6개 기관, 2개 행사 8회, 469명 참여 - 2025년 2회 174명 참여

⑧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2022. 9월 ~ 현재)(어르신 대상)

- ▶ 대상 :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어르신, 어린이집 조부모, 시민 등
- ▶ 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소개, 키오스크 사용법 실습
- ▶ 실적 : 분기 1 ~ 2회 (붙임 #4, 2022 ~ 2025년(~ 8월), 디지털 교육 현황)
 - 2024년 : 7개 기관, 2개 행사 9회, 249명 참여 - 2025년 16회 544명 참여



▲ <순종지역아동센터 공연 : 어린이 대상>



▲ <경로당, 키오스크 교육>

㉠ 각종행사 간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한 SDGs 실천 (모든 시민 대상)

- ▶ 대상 / 기간 : 안양시민 / 2021. 9월 ~ 현재
- ▶ 실적 (붙임 #5, 2022 ~ 2025년(~ 8월), 각종 행사 간 부스운영 현황)
 - 2024년 : 7개 행사 11회, 2,150명 참여 - 2025년 3회 750명 참여



▲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여('24. 10. 2.)



▲ 제6회 보육박람회 참여('24. 10. 12.)

3단계(확산단계) : 안양형 SDGs 수립, 다양한 방법의 홍보, 타 지역과 협업

㉠ 안양시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확정 및 시행

- ▶ 준비 / 확정 : 2023. 5월 / 2024. 3. 26.(화)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위원장(안양시장), 부위원장(생태분과 위원장)
- ▶ 지속협 주도적 참여 : 시민설문조사, 공론회(3회), 중간·최종보고회 등

㉡ 다양한 방법의 SDGs 홍보 * 정책기획과 협조

- ▶ 방법 : 다양한 SDGs 홍보 수단을 개발, 일상 속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
 - 버스(2) : 안양시 일반버스, 시청버스
 - 시홈페이지(4) : 베너, 영상홍보시스템, 알림, '분야별 정보 - 지속가능발전'
 - 기타(3) : 공사장가림막 휨스, 승강기 타운보드, 버스정류장 안내판



▲ <일반버스 홍보, '23. 6. 14.>



▲ <시홈페이지 베너, '24. 7. 11.>



▲ <시 영상홍보시스템, '24. 7. 18.>



▲ <승강기 타운보드, '24. 7. 18.>



▲ <버스정류장 안내판, '24. 9. 19.>



▲ <공사장 가림막 휨스, '25. 7. 2.>

㉢ 다른 지역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한 SDGs 홍보 (붙임 #6, 타시·군 / 기관 지원 현황)

- ▶ 대상 지역 / 실적 : 서울, 인천, 과천, 시흥, 부천, 이천, 양평
 - 2024년 : 4개 학교, 2개 기관, 9회, 462명 참여 - 2025년 6회 190명 참여
- * 타 기관 협업 : 양평·시흥 청소년문화의 집, (사)미래희망기구, 과천돌봄센터
- ▶ 내용 : SDGs 이론·실천교육(축구공 색채 입히기, 간식 먹고, 자원 순환 분리배출)

3) 주요 특징

- ① 시의회 의원, 공무원들과 협력 및 협업을 통해 'SDGs 이해 및 실천' 활동을 계획, 학생, 아동, 어르신, 시민 등 다양한 대상의 맞춤형 SDGs 교육과 실천활동 지속
- ② 전국 최초로 SDGs 실천캠페인을 위한 버스광고 게시 및 공사장가림막 휨스, 승강기, 버스정류장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법의 SDGs 홍보활동 전개
- ③ 서울, 인천, 양평 등 9개 시·군 지역·기관, 안양과천교육청과 협업하는 SDGs 이해 및 실천 활동을 통해 SDGs가 안양 뿐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①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K-SDGs 목표 4, 10)
 - 다양한 방법의 SDGs 홍보, 각종행사 간 부스 운영
 - 시민(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요 지식 습득
 - 지속가능발전목표, 인권, 성평등, 평화와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론 및 교육과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 마련
 - * 지속가능발전이 교육을 통해 정착과 확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거
- ②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존의 중요성 강조, 실천 계기 마련(K-SDGs 목표 13, 14, 15)
 - 탄소중립과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 관련 인식 제고
 -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가능한 내용을 꾸준히 지도
 - 그림자극 공연을 통해 어린이, 유아 등에게도 생태계 보호, 환경에 대해 소개
 - 키오스크, 기후행동기회소득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① 서울, 이천, 과천 등 타 지역·기관 요청으로 2024년 9회 462명 학생에게 SDGs 교육
- ② 특히, 양평 용문고, 양일중학교 교육은 양평청소년문화의집 및 (사)미래희망기구와 협업하여 '총대신 축구공을! 소년병 반대 캠페인'의 축구공 색채 입히기, '간식 먹고, 자원순환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함
- ③ 공사장 뒤편, 버스정류장 광고, 시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SDGs 홍보를 적극 확산
- ④ 다른 지역의 자료 및 교육 요청이 계속되는 바 모든 지역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SDGs 확산 및 정착에 실질적 기여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 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SDGs를 실질적·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 활동 실시
- ② 어린이, 학생,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SDGs를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자원 순환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례와 가이드 라인 제시
- ③ 지속협 행사 때마다 안양시장 및 시의회 의장, 의원 등이 나와 격려하고 함께하며, 각종 활동 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효율적 사업 전개
- ④ 의회·행정과 협력하며 사업 전개, 타 시·군·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속적 활동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 ① 「찾아가는 SDGs 실천, 가보자 go!」는 2021년부터 5년째 지속, 목표별 세부내용까지 연계하여 전 시민이 SDGs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까지 계속
- ② SDGs 실천학교 운영 후, 다른 기관과 지역의 요청이 있는 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안양시 뿐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지역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실시
- ③ 다른 시·군 지역 및 기관과 협업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추진(4년째 추진)

사례관련 활동 보도뉴스 및 동영상 링크

1) 활동 보도뉴스 링크

- ① '21. 10. 20, 안양시, 공무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교육 마무리
<https://buly.kr/5UDpiQH> / <https://buly.kr/74SeXlt>
- ② '22. 3. 11, 안양시, '미래를 담다! SDGs 실천학교' 첫 강의
<https://url.kr/z8wsdx> / <https://cutt.ly/1wo44agP>
- ③ '23. 6. 5, 경기환경교육주간 교구경진대회 우수상
<https://ngoanyang.or.kr/7824>

- ④ '23. 7. 3, 안양시, 충훈고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 버스 홍보
<https://cutt.ly/iwo44Mfl> / <https://ngoanyang.or.kr/7895>
- ⑤ '24. 7. 5, 관내 공사현장 SDGs홍보 가림막 설치 확산
<https://anyangbank.tistory.com/9260>
- ⑥ '25. 5. 22, 2025 지속가능발전 한마당 행사
<https://ngoanyang.or.kr/10255>

2) 동영상 : 안양미리내공유학교 '우리의 결의안이 지구를 바꿉니다.' 교육소감 인터뷰 등

- ① '25. 8. 6, 안양미리내공유학교
<https://youtu.be/EXIb6vIRJKY?si=aKqCHjA7yPYrvPrs>
- ② '23. 4. 14, 그림자극 공연 및 SDGs 실천학교 학생 소감
<https://youtu.be/Oyo5FJbat2U>



우수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상]

기업

11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방 시범사업

유천케어팜 유한회사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찰 시범사업

유천케어팜 유한회사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찰 시범사업은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폭염 속에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에 처음으로 데이터 기반 예찰 체계를 구축한 시도이며, 나아가 산불감시·인명구조·농산물 절도 예방 등 다양한 농촌 안전 분야로 확장 가능한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읍시의 여름은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었고,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기는 날은 더 이상 낫설지 않았다. 농작업 중 어르신이 탈진하거나 집 밖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지만, 정작 폭염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면밀하게 바라본 곳이 농업회사법인 유천케어팜 유한회사 팀이었다. 팀은 그동안 정읍 지역의 돌봄·농업·복지 현장에서 고령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여름철 온열질환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그래서 농촌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예찰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유천케어팜 팀은 덕천면·감곡면·북면 등 기온, 습도, 열지수 등 폭염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고, 여기에 고령 인구 비율, 농작업 형태, 마을의 주거 분포 등을 결합해 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도시보다 조용하고 한적해 보이던 농촌 마을 여러 곳이 실제로는 열지수가 높고, 기후 취약성이 집중된 위험지대였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 팀은 바로 예찰 단계를 가동했다.

팀이 양성한 청년농 예찰팀은 드론 기반 열지수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마을을 돌며 실시간 데이터를

기록했고, 위험 단계에 진입하면 즉시 어르신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거나 드론 방송으로 수분 보충과 체온 점검을 안내했다. 드론의 확성기에서 들려오는 짧은 음성 안내만으로도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 예찰요원들은 필요할 경우 직접 어르신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고, 이는 단순한 관측을 넘어 관계 기반 돌봄으로 이어졌다.

이 시범사업의 중요한 가치는 단순히 폭염 대응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드론 기반 예찰 체계는 넓은 농촌 지역을 소수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큰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폭염을 감지하던 시스템은 조금만 조정하면 산불 초기 연기를 감지하는 감시 체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시야 확보가 힘든 농촌 지형 특성상 인명구조 상황에서도 드론이 먼저 출동해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절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외곽 농경지에서도 드론 예찰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즉, 이번 사업은 하나의 폭염 대응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안전 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정읍시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유천케어팜 팀이 축적한 현장 데이터와 예찰 시스템을 기반으로, 읍·면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읍형 농촌 안전돌봄 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폭염뿐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안전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확장도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도한 현장 중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신뢰를 높였고,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은 단순한 복지나 안전 사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과학적 데이터와 사람 중심 돌봄이 결합된 체계가 필요하다.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찰 시범사업은 그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례이며, 앞으로 농촌 지역의 종합 안전정책을 이끌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11 유천케어팜 유한회사

정읍시 농촌 마을 온열질환 예찰 시범사업

2021. 5월 ~ 계속

요약

1. 정읍시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폭염 시 온열질환 위험을 사전에 예찰하는 시범사업 추진.
2. 열화상 카메라 및 환경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여 마을 단위 순찰 실시.
3. 드론을 통해 농작업 중 고체온 반응, 취약지대(온열집중지점) 실시간 탐지.
4. 위험 징후 발견 시 보건소·마을 돌봄센터와 즉시 연계해 응급 대응.
5. 청년농업인이 드론 조종과 데이터 수집·분석을 담당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6. 수집된 열 데이터 기반으로 농촌 폭염 취약지도(Heat Map) 작성.



7.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마을회와 협력하여 대응 매뉴얼 및 교육 실시.
8. 예찰 활동 결과를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유하여 정책 반영.
9. 지역 주민 대상 폭염 예방 교육 및 냉방쉘터 연계 강화.
10. 농촌형 기후위기 대응 돌봄 모델로 전국 확산 가능한 표준사례 마련.



▲ 반복적인 인명피해



▲ 기술센터, 동사무소, 통장 협조 점검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실천 목적

- 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농촌 고령농업인들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심각하게 대두됨.
- ② 농작업 중 발생하는 돌발적인 건강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농촌형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③ 단순한 방제·생산 활동을 넘어 드론 기술을 활용한 주민 건강 돌봄 체계를 마련하여, SDGs 3번(건강과 복지), 11번(지속가능한 마을), 13번(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시작 배경

- ① 정읍시 농촌마을에서 여름철 고령농이 폭염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였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어려움.
- ② 기존의 돌봄 인력 중심 체계로는 농작업 현장의 실시간 위험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식.
- ③ 이에 청년농업인 조직(유천케어팜 드론팀)이 보건소, 마을회와 협력하여 열화상 드론 예찰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됨.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폭염 취약계층 문제

정읍시 농촌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농작업 환경이 대부분 야외라 폭염 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도시보다 훨씬 높음.

특히 독거노인이나 홀몸 고령농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급 대응이 어려움.

내용

1) 추진과정

문제 인식 및 사업 구상

여름철 농촌 고령농의 온열질환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 → 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
청년농업인 조직이 드론을 단순 방제용이 아닌 안전 예찰 도구로 활용하는 아이디어 발굴.

협력체계 구축

농업기술센터 유천케어팜 협력체계
청년농업인은 드론 운영·데이터 분석 담당, 보건소는 응급 대응, 마을회는 주민 참여 조직화 역할.

예찰 장비 및 인력 준비

열화상 카메라·환경센서 장착 드론 확보.
청년농업인 대상 드론 조종 및 열 데이터 판독 교육 실시.

시범 운영

여름철(7~8월) 하루 2시간씩, 마을 단위 드론 순찰 운영.
위험 반응 탐지 시, 즉시 보건소 및 돌봄센터에 통보 후 현장 대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예찰 과정에서 수집한 열 데이터·기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약지점(Heat Map) 보고.
취약지점 분석 결과를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주민 교육 및 참여 확대

마을 주민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냉방쉘터 안내.
드론 예찰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여 신뢰성 강화.

성과 평가 및 확산 준비

시범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회 개최, 응급 대응 건수·주민 만족도 조사.
농촌형 온열질환 예찰 모델로서 전국 지자체 확산 가능성 검토.

2) 추진방법

드론 기반 예찰 체계 구축

열화상 카메라와 환경 센서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하여 농촌 마을을 주기적으로 순찰.
고체온 반응(40℃ 이상 의심)이나 취약지점을 실시간 탐지·전송.

청년농업인 예찰 드론팀 운영

청년농업인이 직접 드론 조종과 데이터 수집·분석을 담당.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역량 강화와 동시에 돌봄 서비스 제공.

보건소·마을회 연계 대응 시스템

드론 탐지 → 보건소 상황실 통보 → 마을 돌봄인력 출동 체계 마련.
응급 발견 시 즉시 냉방쉘터 및 의료 지원 연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드론 예찰로 확보한 열 데이터, 기온, 습도 정보를 활용하여 폭염 취약지도를 제작.
농촌 안전정책(냉방쉘터 설치, 취약가구 지원) 수립 근거로 활용.

주민 참여·예방 교육

마을 주민 대상 온열질환 예방법, 응급대처법 교육 실시.



▲ 열화상 및 스피커 드론 운영



▲ 농업인 폭염경고 방송

드론 예찰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하여 신뢰와 협력 확보.

시범사업 → 확산 전략

정읍시 1~2개 마을에서 시작 → 성과 검증 후 전 읍·면 단위 확산.
농촌형 기후위기 대응 표준모델로 전국 보급 추진.

3) 주요 특징

기술 융합형 안전 서비스

농업용 드론에 열화상 센서·환경센서를 탑재하여 방제 → 건강 예찰 → 산불 감시로 활용 범위를 확장.

농촌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모델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 봄·가을 건조기 산불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연중 예찰 체계 마련.

청년 주도 + 지역 거버넌스

청년농업인이 드론 운영·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보건소·산림청·지자체와 협력하는 통합 대응 네트워크 구축.



▲ 정식적인 예찰드론 운영 홍보



▲ 온열질환 농업인 예찰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예찰 시 고온 반응(인체·산불 징후) 즉시 통보 → 보건소·소방서·마을 조직과 연계한 신속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드론 탐지 데이터를 활용해 폭염 취약지도와 산불 위험지점 지도를 제작, 행정 정책에 반영.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전·환경 예찰 전문 인력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확산 가능성

정읍시 시범 → 전북도 전역 → 전국 농촌·산촌 확산 가능한 복합 재난 예찰 표준 모델 제시.

4) 거버넌스 참여 기관과 역할(공동추진인 경우)

청년농업인 드론팀(유천케어팜 중심)

드론 운영 및 열화상·환경센서 데이터 수집
온열질환 및 산불 위험지점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공유, 주민 교육 지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현장 상황 관리 및 예찰 활동 행정 지원
농작업 안전 교육 및 폭염 대응 지침 제공

정읍시 보건소

온열질환 의심 대상자 응급 대응 및 이송 체계 가동
건강 취약계층 사전 등록·관리, 예방 캠페인 운영

정읍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예찰 결과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행정·예산 반영
폭염 및 산불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

정읍소방서(산림청 협력 포함)

드론 예찰 중 산불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출동
봄·가을 건조기 산불 감시 및 진화대응 총괄

마을회·주민조직

예찰 활동 시 현장 협조 및 취약계층 정보 제공
예방 교육 참여 및 냉방쉘터·산불 감시망 운영



▲ 농업 예찰 드론 AI 탐색



▲ 지속적인 열화상 및 AI 온열질환 예찰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K-SDGs 3번 - 모두를 위한 건강과 웰빙 보장

폭염 시 고령농업인의 온열질환 조기 발견 및 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열화상 드론 예찰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K-SDGs 11번 -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조성

정읍시 농촌 마을 단위에서 기술+주민참여형 재난예찰 시스템을 구축. 마을 주민, 지자체, 보건소, 소방서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안전 공동체 모델 실현.

K-SDGs 13번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여름철 폭염과 봄·가을 건조기에 발생하는 산불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후위기 대응 모델 마련. 드론으로 취약지점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기반자료(Heat Map, 산불 위험지도) 제공
→ 행정 차원의 기후적응 대책 수립 지원.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지역 내 확산 가능성

정읍시에서 시범 운영 후 성과가 검증되면, 전북도 전체 농촌 마을로 확대 가능. 보건소·소방서·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모델이 다른 읍·면에도 적용될 수 있음.

타 기관 벤치마킹 효과

농촌뿐만 아니라 산촌(산불 위험 지역), 어촌(기후취약 지역) 등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적용 가능. 지자체·산림청·질병관리청 등 관련 기관에서 드론 기반 재난예찰 모델을 정책 사업으로 검토 할 수 있음.

정책적 파급효과

드론 예찰 데이터를 통해 폭염 취약지도·산불 위험지도를 작성하면,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협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국민 안전 인식 제고

“드론은 방제 장비”라는 인식을 넘어, 농촌형 재난예찰·안전 관리 도구로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 주민 참여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

전국적 확산 가능성

농촌 고령화 + 기후위기 문제는 전국 공통 현안이므로, 정읍시 사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음. 향후 국제 교류(일본·중국 농촌 고령사회 문제 대응)에도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문제 인식의 적절성

농촌 고령화와 기후위기(폭염·산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임. 특히 정읍시 농촌마을은 폭염·산불 모두에 취약해,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함.

목표와 추진 방향의 명확성

드론이라는 농업 현장 친화적 기술을 활용하여 온열질환 예방 + 산불 감시라는 이중 목적을 동시에 달성. 사업 목적이 K-SDGs 3·11·13번 목표와 명확히 연계되어 있음.

추진과정의 체계성

문제 제기 → 파트너십 구축 → 시범운영 → 데이터 분석 → 주민 참여 → 확산 계획이라는 단계별 구조가 분명.

청년농업인, 보건소, 소방서,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등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 실행력이 높음.

혁신성과 차별성

기존의 돌봄·재난대응 방식은 사후 대응 중심이었으나, 본 사업은 사전 예찰 기반 예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별적.

드론을 단순 방제 장비가 아니라 농촌형 안전망 장치로 확장한 점이 혁신적임.

성과 및 파급효과

주민 건강 보호, 재난 대응 속도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효과 기대.

정읍시 시범 → 전북도 → 전국 지자체 확산 가능성 높음.

지속가능성

드론 예찰은 인력 의존도가 낮고, 데이터 기반 정책 반영이 가능해 장기 지속성이 높음.

지자체·중앙정부 협력 사업으로 제도화될 경우 지역 안전 표준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음.

2) 사례의 지속성 평가(당해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례인가?)

기술 기반의 지속

드론과 열화상·환경센서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임.

장비 업그레이드와 정기 점검만으로 매년 반복 운영 가능 → 당해연도에 국한되지 않음.

제도적 연계 가능성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소, 소방서와의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면, 지자체 공식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시 지속사업화 가능.

운영 주체의 지속성

청년농업인 드론팀이 주도하여 운영하므로 지역 내 안정적 인력풀 확보.

청년 일자리와 연계되어 인력 교체·확충도 용이.

재원 확보 가능성

초기에는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 활용, 이후에는 농촌형 재난대응 국비 사업 및 지속가능발전 공모

지원금과 연계 가능.

주민참여형 지역화폐 보상제도 도입 시,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로 정착.

사회적 필요성의 지속성

기후변화로 폭염·산불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은 오히려 매년 강화될 전망.

따라서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확장적 운영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됨.



우수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상]

기업

12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강원,
세계시민교육의 불을 켜다

코이카월드프렌즈빌리지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강원, 세계시민교육의 불을 켜다

코이카월드프렌즈빌리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SDGs를 알리고 학생들은 행동으로 답했다.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 월드프렌즈빌리지는 2015년부터 영월의 학생들을 만나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마주했다. 강원도 영월은 한때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던 탄광 중심지였으나, 석탄산업 쇠퇴 이후 인구는 3만 7천 명으로 감소했고(2024년 기준)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은 크게 낮아졌다.

이에 월드프렌즈빌리지는 '찾아가는 카라반 교육'을 통해 SDGs 핵심 주제를 차에 싣고, 폐광지역의 학교 및 교육 지원 기관을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도시화의 문제점과 기후위기를 다루는 수도권 교육으로는 영월 학생들의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인 지역 특수성을 이해한 '영월형 SDGs 교육' 모델의 필요함을 느꼈다.

2023년부터 장학사, 초·중·고 교원들로 구성된 WAVE 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SDGs 사례를 재구성했다. 세계 문제에서 영월을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라, 영월에서 세계를 연결하는 구조로 해석한 것이다. 2024년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GREEN 영월' 프로그램을 6회에 걸쳐 운영한 뒤, 학생들 스스로 어떻게 환경문제를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할지를 기획하였으며 '2024 영월군청소년문화축제 쓰리GO'에서 친환경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기후위기 메시지를 확산했다.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활동가로서 성장한 것이다.

2025년 신천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4회기 정규수업을 운영했다. 수업을 통해 나의 일상과

세계문제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생각을 직접 글을 쓰고 그림으로 그려 SDGs 동화책을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였다.

폐광지역에서 전국으로 SDGs 가치를 확장했다.

영월을 넘어 정선·삼척·태백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으로 교육 범위를 넓혔다. '2023년 지구를 살리는 ESG 릴레이 환경교육'에서는 폐광지역의 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월드프렌즈빌리지로 초청하여 환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GREEN 라이트 챌린지'를 진행하여 SNS 실천 인증을 유도해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지역사회 전체로 실천 행동이 확산하였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와 협력하여 대학생 대상 1박 2일 캠프 "전지적 개발협력시점"을 운영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SDGs 주요 이슈를 체험하고 이슈 분석·실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여 청년세대가 사회 문제를 자신의 진로·역량과 연결해 탐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부산, 충주, 인천, 대구 등 다양한 지역 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SDGs 교육을 진행했고 특수분야 교원 연수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교원에게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강의하여 SDGs 교육의 질적 확산에도 이바지했다.

월드프렌즈빌리지는 2024년 기준 총 16,980명의 참여자를 기록했고, 폐광지역 만족도는 4.56점, 전체 만족도는 4.4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진로 탐색 협력 분야 표창(2020)', 영월군 '진로 체험 우수기관 선정(2024)'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폐광지역 기관 중 유일하게 환경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도 보유하게 되었다. 영월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SDGs 교육이 폐광지역을 넘어, 강원을 넘어 전국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영월을 월드프렌즈빌리지는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으로 불을 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 코이카월드프렌즈빌리지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강원, 세계시민교육의 불을 켜다

2020~2025

요약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월드프렌즈빌리지)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15년에 개원하여 해외봉사단 국내교육과 교육원 인근 지역에 SDGs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카라반 교육으로 폐광지역(정선, 영월, 태백, 삼척) 곳곳의 학교와 기관을 찾아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DGs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며 WAVE 교육전문가 네트워크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를 SDGs교육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의 학생과 교원을 불러 모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K-SDGs 목표 4(양질의 교육)와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목적/배경

1) 실천행동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 탄광의 불이 꺼진 도시 강원, 세계시민교육의 불을 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와 산업 쇠퇴(폐광)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 강원 영월에 위치한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는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따라 ODA를 추진하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가) 폐광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0년부터 찾아가는 카라반 교육을 통해 폐광지역(정선, 영월, 태백, 삼척) 및 충북·강원 지역의 학교와 기관에 직접 방문해 무료로 SDGs 교육을 하고 있다.

- 환경, 인권, 위생, 도시재생 등을 주제로 강의하여 미래세대들의 세계시민의식을 강화하고 SDG 4(양질의 교육)와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을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

-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보편적인 교육 방식과는 다르게 폐광지역(정선, 영월, 태백, 삼척)은 경제·언어·문화적 장벽과 다문화 학생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폐광지역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SDGs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나) 대외 교류 및 영월 방문객 활성화

- 월드프렌즈빌리지를 SDGs 교육의 거점으로 만들어 영월의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방학 기간에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연계하여 중·고등학생의 2박 3일 방문과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 모집한 대학생의 1박 2일 캠프를 기획하고 SDGs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역 체류형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따라서 ①교육 대상과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②세계시민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 ③타 기관에 영월을 홍보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④미래세대에게 SDGs를 스스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2)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는가?

▣ 강원 폐광지역의 다양성 존중 필요

-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는 교육 접근성의 불균형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이었다.
- 2024년 영월의 00고등학교에서 빈곤 수업을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들이 많아 수업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원주의 00초등학교 수업 전 반에 다문화 학생이 있으니 언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받았다. 지역의 생활 환경 및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민감하게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 교육 접근 불균형

- 영월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570명(2022년 기준)이며, 원주의 다문화 가구원은 6,392명(2022년 기준)이다. 강원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22.3%가 교육격차 심화를 고를 만큼(출처 : 2024년 도민의식조사)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경험과 수치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보편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 이러한 문제 인식은 다양성을 존중해야한다는 교과서적인 언어가 아닌, 내 친구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지속적인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내용

1) 추진 과정

| | |
|----------------|--|
| 1단계 문제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광 지역의 교육 접근 불균형 인식, 지역 맞춤형 SDGs 교육 필요성 확인 - 다양한 네트워크 및 전문가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 검증·개선 체계 마련 필요 - 타 지역 기관 연계로 영월 방문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
| 2단계 프로그램 검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문가 컨설팅 운영 - 지역 특성 반영 컨설팅 - 월드프렌즈빌리지 자문단 18명 ('20), 28명 ('21) - WAVE(월드프렌즈빌리지 교육지원단) 운영 10명 ('22~) -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 ('23) -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컨설팅 ('21~) |

| | | |
|--------------------------|---|---|
| 3단계 교육 제공 SDGs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제작 - 찾아가는 교육 카라반 운영 (수시) - 폐광지역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 내일도 맑음인가요?, 열대과일의 대이동, 탄소 줄이GO, 행복 더하GO, 모두가 GREEN 생태계, 우리가 지켜요! 모두의 파이란 하늘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지구를 살리는 소비와 생산, 내가 입는 옷의 비밀/가치 소비시대, 슬기로운 에너지 소비생활 - 청렴 : GO, STOP, 청렴한 세계시민, 청렴 ON - 파트너십 : 해피투게더, GG(지구지킴이) 세계시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우리는 월드프렌즈 - 문화다양성 : 똑똑똑, 문화다양성 두드리기, 사라진 황금의 제국, 잉카, 잠보, 아프리카, 초원을 넘어 세계로, 몽골과 놀자! - 기타 : 변, 하지말아요(위생), 식사를 합시다(기아), 행복을 나르는 공정무역(공정무역), 행복으로 향하는 도시(도시재생), 마음으로 온 인권(인권), 알.쓸.국.잡.(JOB)(진로), 꼬.꼬.문(문해력), - 주천고등학교 동아리 'SDGs TAP' 운영 ('22) - 청소년이 GREEN 영월 56명(6회) ('24) - 폐광지역 미래세대 대상 글로벌 리더십 정기 교육프로그램('25) - 다(多)복한 다(多)가족 다(多)Dream(다문화가정 캠프) ('24) - KOICA 월드프렌즈빌리지 서포터즈 세경대 학생 12명(6회) ('23) - KOICA WFV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26명(5회) ('24), 30명 ('25) - 세계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1월 '22, 1월 '23, 7월 '25) |
| 4단계 타 기관 협력 지역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 협력 - 진로·교육 박람회 참여 - 영월 방문객 활성화(캠프 기획,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찾아가는 영월진로박람회(7월) ('20) - 2020년 대한민국 온라인 청소년박람회(12월) ('20) - 대한민국 교육기부박람회(12월) ('20~'24) -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월) ('21) - 2021학년도 영월 관내 유·초·중·고교(원)감 연수 부스운영 ('21) - 2021년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체험부스(7월, 8월) ('21) - 21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영월진로박람회(10월) ('21)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2 영월진로직업박람회(5월) ('22) -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5월) ('22)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필·통 한마당(5월) ('22~'25) - 2022년 영월군청소년문화축제&에코문화제(10월) ('22) - 2023년 영월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협의 ('23) - 2023년 마을선생님 박람회(12월) ('23) - 제57회 단종문화제 "단종의 옷자락을 따라"(4월) ('24) - 2024 영월 진로박람회 'Young world X Job world'(10월) ('24) - 2024년 영월군청소년문화축제 쓰리GO(10월) ('24) - '전지적 개발협력 시점' 캠프(8월 '24, 7월 '25) - 2025 영월진로박람회 교육발전특구영월 이루어 드림(4월) ('25) - 전남학생 공공외교스쿨 국제개발협력 실천 교육(7월) ('25) - 북원여자고등학교 '국향제'(7월) ('25) |
| 결과 | - SDG 4(양질의 교육),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실현 | |

2) 추진방법

▣ 1단계 : 문제 인식

코이카 월드프렌즈빌리지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미래세대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폐광 지역 특화 SDGs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목표는 첫째, 교육 대상과 콘텐츠를 초등학교에서 중·고·대학생, 교원까지 다각화하고, 둘째,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학습권을 보장하며, 셋째, 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월 방문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 2단계 : 프로그램 검증

SDGs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2022년부터 이를 정식화한 WAVE 교육지원단을 운영하였다. WAVE 교육지원단은 장학사, 교원, 유관기관 교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여 신규 교육프로그램 자문,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 주 수요자층을 위한 운영방안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 WAVE 교육지원단

- 일시 : 2022년~계속
- 대상 : 장학사, 교원, 유관기관 교육 관계자 2025년 9명 (총 39명)
- 내용 : SDGS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자문 활동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현장 사례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확인



- 성과 : 신규교육프로그램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또한, 강원도자연학습원 교육팀의 전문가로부터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신청 관련 컨설팅을 받았으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의 사후점검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타 기관 및 전문가의 협업을 교육의 깊이와 확장성을 더할 수 있었다.

▣ 3단계 : 교육 제공과 SDGs 실천

검증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행을 하였다. 주제별 프로그램을 제작해 '찾아가는 교육 카라반'을 수시 운영하며, 폐광지역 등에 방문하였다. 2024년 기준 16,980명의 참여자를 기록했다. 폐광지역 미래세대 대상 글로벌 리더십 정기 교육프로그램은 영월 신천초등학교 5학년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SDG 12~15(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기후 행동, 육상·수중 생태계 보호)와 SDG 17(파트너십) 등을 주제로 수업을 받은 후, 직접 체험 활동을 통해 SDGs를 실천하며 동화책을 제작했다.

▣ 폐광지역 미래세대 대상 글로벌 리더십 정기 교육프로그램

- 일시 : 2025. 5. 16.(금)~9. 23.(화) / 총 14회차
- 대상 : 영월 신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 10명
- 내용 : 폐광지역 맞춤형 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 인지 및 환경 인식 개선



- 성과 : 동화책 제작 사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직무연수를 통해 강원도 주변에 거주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SDGs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SDGs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키웠다. 환경, 도시재생, 다문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배우고, 이를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익혔다.

▣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직무연수

- 일시 : 2021년, 2023년, 2025년
- 대상 : 2025년 20명(총 47명)
- 내용 : 국제사회의 핵심의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안내
- 만족도 : 4.88점



▣ 4단계 : 타 기관 협력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 확장과 영월의 방문객 증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4년부터 계속된 전지적 개발협력시점캠프는 글로벌인재교육원,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코웍스 글로벌인재교육사업부와 함께 대학생 참가자를 모집해 1박 2일간 지구촌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했다. SDGs 이슈인 장애, 문맹, 성별 문제에 대한 체험 후 문제 정의 → 해결안 도출 → 발표의 순환 구조로 설계되었다.

▣ 「전지적 개발협력시점캠프」

- 일 시 : 2024년~계속
- 협력기관 : 글로벌인재교육원,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 코웍스 글로벌인재교육사업부
- 대 상 : 대학생 2025년 27명(총 51명)
- 내 용 :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범분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체감하고 사회적책임 의식을 함양
- 만족도 : 4.67점



전남학생 공공외교스쿨 국제개발협력 실천 교육은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코웍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과 협력해 중·고등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이해, 현지 언어·문화 체험, 위기대응 소양 강의를 2박 3일간 제공했다. 만족도 4.95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각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전남학생 공공외교스쿨 국제개발협력 실천 교육

- 일 시 : 2025. 7. 23.~25./2박 3일
- 협력기관 : KOICA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코웍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 대 상 : 중·고등학생 총 20명
- 내 용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현지 언어·문화 체험, 위기 대응등 기초 소양 중심 사전 연수
- 만족도 : 4.95점



이 외에 진로·교육 박람회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2020년 교육부의 '진로탐색 협력 분야' 표창, 2024년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진로체험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4단계의 추진을 통해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폐광 지역의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문가 네트워크와 현장 실행의 조화로 프로그램의 품질을 유지하며, SDGs 4(양질의 교육)와 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 주요 특징

▣ 지역 특화·맞춤형 SDGs 교육 설계

- 영월군의 폐광·인구감소라는 특수한 지역 여건과, 다문화·저소득층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 환경을 분석하여, 수도권 일반형이 아닌 지역 맞춤형 SDGs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신천초등학교 5학년 대상 정규 SDGs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SDG 4(양질의 교육)·SDG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중심의 현장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 스스로 SDGs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 지속성과 확산성을 고려한 다층적 참여 환경 조성

- 방학 기간 중 중·고등·대학생·교원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1박 이상의 SDGs 캠프를 운영하여 영월 방문자 수를 늘리고 전국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 지역 박람회 및 축제에 SDGs 환경과 다문화 주제로 참여하여 미래세대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 이원 구조(현장-전문가 네트워크)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

- WAVE 교육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에서 추구하는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성을 검증하였다. 환경 및 진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최신성·현장성을 전문가와 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점검받아 교육 주제의 확장성을 담보하였다.

▣ 지속성과 확산성을 고려한 다층적 참여 환경 조성

- 방학 기간 중 중·고등·대학생·교원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1박 이상의 SDGs 캠프를 운영하여 영월 방문자 수를 늘리고 전국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 지역 박람회 및 축제에 SDGs 환경과 다문화 주제로 참여하여 미래세대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추진성과 및 파급효과

1) K-SDGs 몇 번 목표 이행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 K-SDGs 4번 목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 세부 목표 4-7 : 다양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 습득에 노력

지표 (1)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의 주류화'

- 찾아가는 교육 및 방문 교육 진행하여 16,980명(2024년 기준)의 참여자
- 환경 관련 SDG 목표 6, 13, 14, 15와 포용(인권) SDG 16 등 교육프로그램 강의 기획·운영하여 만족도 4.46점 달성(2024년 기준)
- 최근 3년간 지역사회에서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6건의 진로 체험 행사 및 교육 기부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약 11,000명의 참가

지표 (4) '교원 중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경험자 배출'

- 2022년부터 운영한 WAVE 교육지원단과 2021년, 2023년과 2025년에 진행한 특수분야 교원 연수를 통해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경험자를 86명(WAVE 39명, 교원 연수 참여자 47명) 배출

▣ K-SDGs 12번 목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세부 목표 12-8 :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 정책과제 ②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지원 ▶ 환경교육 프로그램 8개 제작
- 정책과제 ③ 지역기반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 교육 만족도 92.14점(2024년 기준)
- 정책과제 ④ 유아 환경교육 강화 ▶ 유아 기관 참여 22곳
- 정책과제 ⑤ 청소년 환경교육 체험기회 확대 ▶ 미래세대 대상 '필·통(Feel이 통하는) 한마당', '북원여자고등학교 북향제' 등 10개 환경 부스 운영

2) 사례의 파급력(다른 기관이나 지역 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 청소년 주도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전파된 SDGs 인식

- 2024년 청소년이 GREEN 영월은 6회에 걸쳐 총 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기후위기 등의 주제를 교육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배운 내용을 '2024년 영월군청소년문화축제 쓰리GO'(10월)에서 친환경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 부스에서 OX 퀴즈, 리우저블 텀블러 나눔 등 지역 주민과 다른 청소년들에게 SDGs의 가치를 전파했다.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내 환경 인식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실천을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낳았다.

▣ 진로체험 우수기관 선정으로 지역 교육의 표준 제시

- 2024년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로부터 '진로체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교육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폐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SDGs 교육이 다른 지역 기관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평가(애로사항, 과제 포함)

1) 사례 전반에 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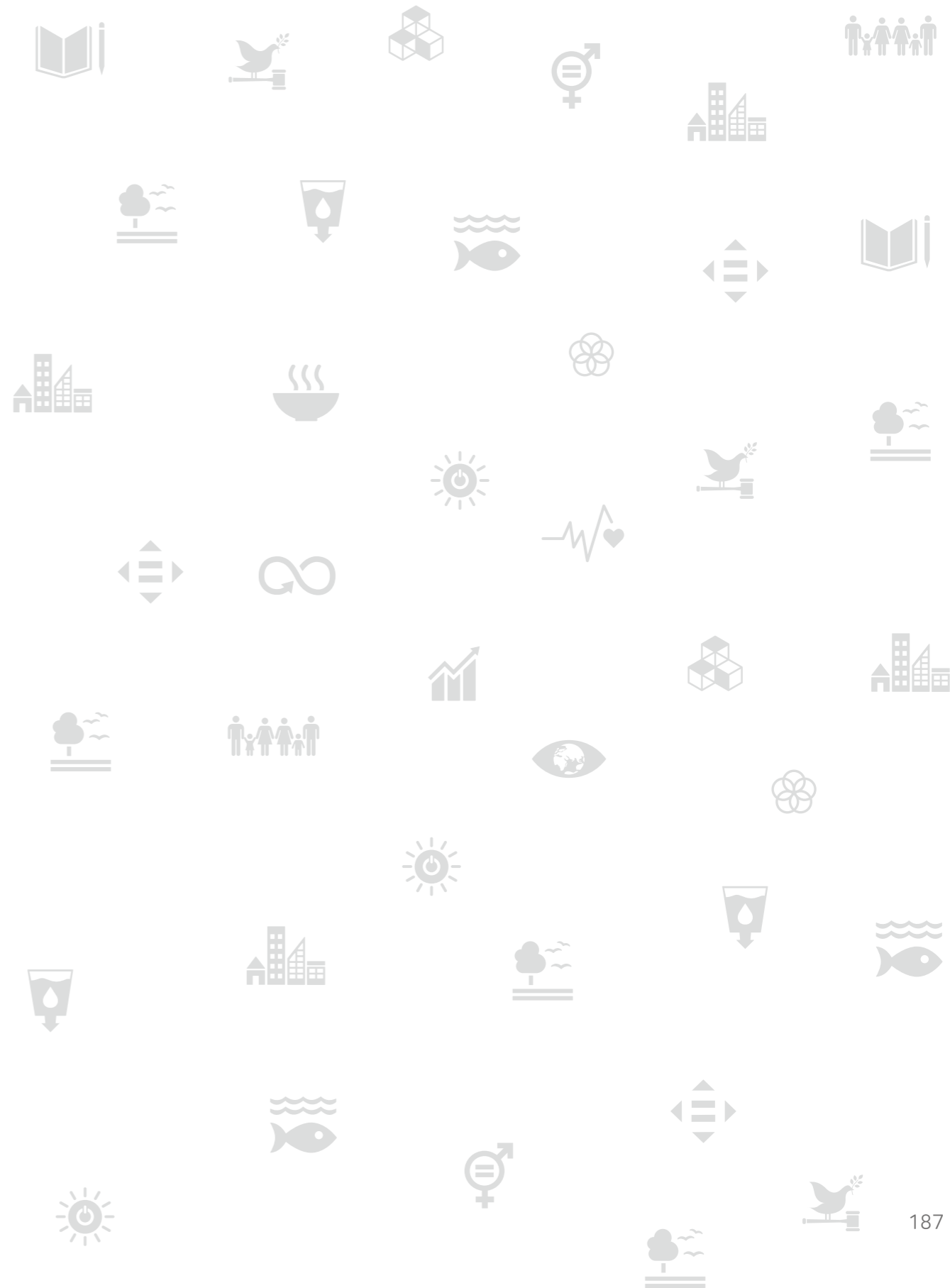
- ▣ 교육이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회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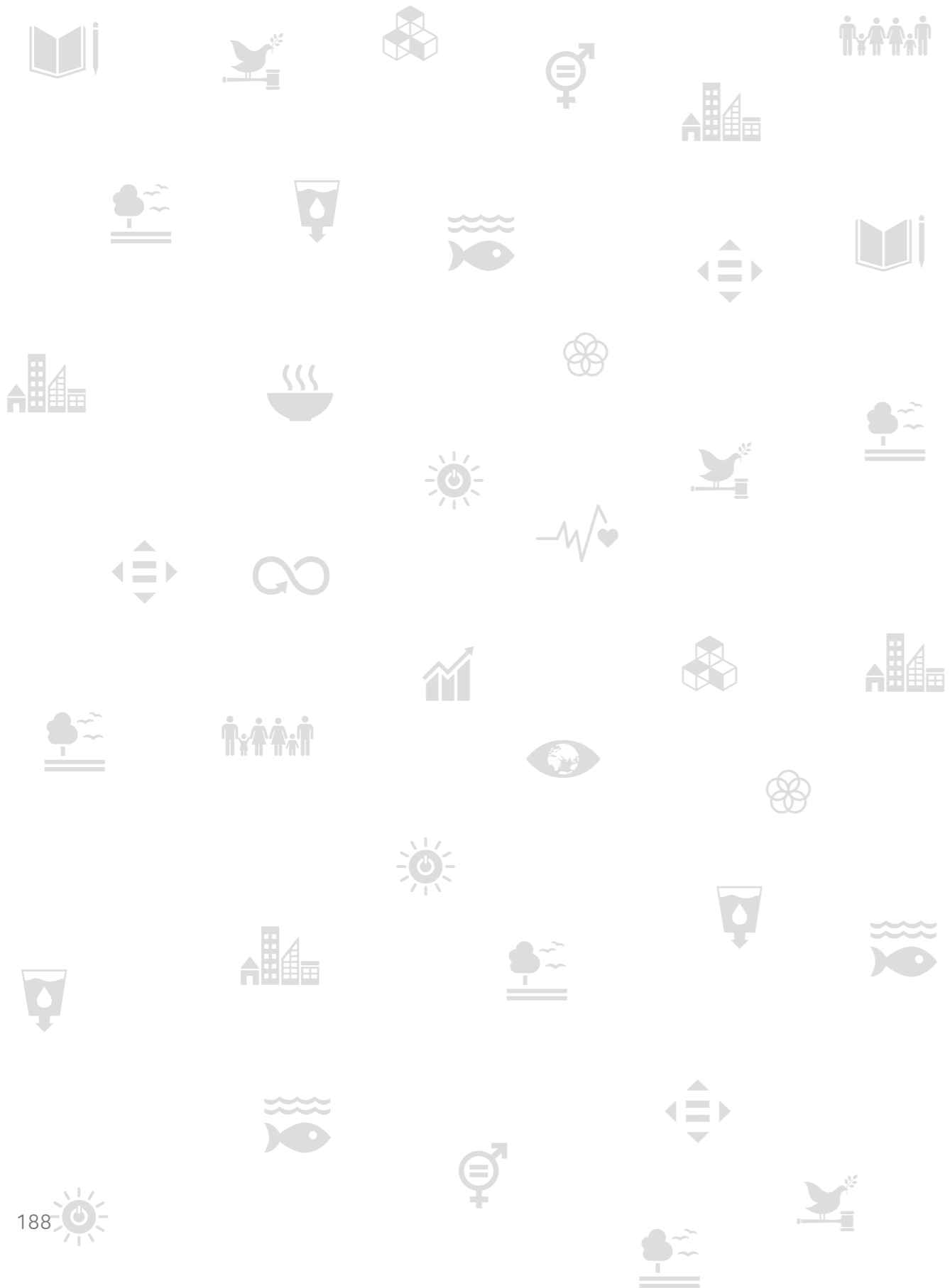
- ▣ 다양한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외부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영월을 SDGs 교육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지역의 교육·경제·사회적 자산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사례의 지속성 평가

- ▣ 환경뿐 아니라 교육, 보건, 빈곤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다회차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 ▣ 방학 기간 동안 돌봄기관의 캠프 요청 증가, 자율학기제 확산 등의 교육 환경 변화는 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며,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2025년 제27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 우수사례집

2판 1쇄 _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_ (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행일 _ 2025년 12월

주 소 _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55

전 화 _ 042-221-4990

본 사례집은 국무조정실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